

碩士學位 論文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

嶺南大學校 大學院

韓國學科

韓國學 專攻

金 吾 順

指導教授 李 淸 圭

2005年 12月

碩士學位 論文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

指導教授 李 淸 圭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嶺南大學校 大學院

韓國學科 韓國學 專攻

金 吾 順

金吾順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 查 委 員 _____ ㉠

審 查 委 員 _____ ㉠

審 查 委 員 _____ ㉠

2005年 12月

嶺南大學校 大學院

감사의 글

이 論文을 提出하기까지 始終 아낌없이 보살펴주신 이청규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형우 교수님과 오상학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논문을 쓰는 데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준 문순덕 선생님, 지도 자료를 열람케 해 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계자와 지도자료를 촬영해준 정이근 선배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도록 곁에서 독려해준 여러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5년 12월

金 吾 順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2
II. 제주 고지도의 개관	5
1. 제주 고지도의 유형과 특징	5
2. 18~19세기 제주 고지도	6
III. 제주 고지도의 지명 분석	15
1. 제주 고지도의 지명 개관	15
2. 제주 고지도의 지명 분석	21
1) 지명의 군현별 분포	21
2) 지명의 유형별 분포	23
(1) 자연지명의 분석	23
(가) 산지 지명	24
(나) 도서 지명	26
(다) 하천 지명	29
(라) 해안 지명	35
(마) 호소 지명	36
(바) 평야 지명	39
(사) 기타 지명	40
(2) 인문지명의 분석	42
(가) 행정 지명	42
(나) 교통 지명	62
(다) 경제 지명	66
(라) 군사 지명	75
(마) 문화 지명	87
IV. 결론	89
참고 문헌	92
Abstract	95

표 목 차

<표 1> 분석대상 지도별 지명 수 -----	16
<표 2> 제주도 전체 지명의 유형별 분포 -----	16
<표 3> 경기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 -----	16
<표 4> 「제주삼현도」 전체지명의 유형별 분포 -----	17
<표 5> 『제주삼읍도총지도』 전체지명의 유형별 분포 -----	18
<표 6> 『제주삼읍전도』 전체지명의 유형별 분포 -----	18
<표 7> 군현별 제주도 지명 수 -----	21
<표 8> 조선시대 삼읍의 경계 -----	22
<표 9> 자연지명의 세부항목 분류 -----	23
<표 9-1> 분석대상 지도별 자연지명 세부항목 분류 -----	23
<표 10> 군현과 4개 시·군 오름 분포 -----	25
<표 11> 시·군별 오름 수 현황 -----	25
<표 12> 현재 제주도 하천 분포도 -----	33
<표 13> 지도에 표기된 목장별 수처 이름 -----	38
<표 14> 인문지명의 세부항목 분류 -----	42
<표 15> 『제주읍지』와 세 지도에 나타난 면리의 수 -----	46
<표 16> 『제주읍지』에 나타난 18세기 말 제주목의 면리편제 및 호구 ---	48
<표 17> 『제주읍지』에 나타난 18세기 말 정의현의 면리편제 및 호구 ---	51
<표 18> 『제주읍지』에 나타난 18세기 말 대정현의 면리편제 및 호구 ---	52
<표 19> 18~19세기 제주목의 면리편제 변화-----	56
<표 20> 18~19세기 정의현(군)의 면리편제 변화 -----	59
<표 21> 18~19세기 대정현(군)의 면리편제 변화 -----	60
<표 22> 지도에 표기된 과원의 시·군별 현황 -----	66
<표 23> 조선시대 제주 지역 봉수와 연대의 변천 과정 1 -----	80
<표 24> 18~19세기 제주 지역 봉수와 연대의 변천 과정 2 -----	81

그림 목차

<지도 1> 『해동지도』 중 「제주삼현도」	12
<지도 2> 『제주삼읍도총지도』	13
<지도 3> 『제주삼읍전도』	14
<지도 4> 『고지도첩』 중 「탐라전도」	28
<지도 5> 『제주삼읍도총지도』의 과원 분포도	67
<지도 6> 18~19세기 제주 관설목장의 공간범위	73
<지도 7> 『제주삼읍도총지도』의 봉수와 연대 분포도	84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

I. 서론

1. 연구 목적

인간에게 이름이 있듯이 모든 지역과 장소에는 지명이 존재한다. 지명은 일정한 지역(장소)의 명칭으로 고대로부터 인류가 살아오면서 특정한 위치·범위·유형의 지리적 실체에 대해 공동으로 약정한 고유명사다.¹⁾ 그러므로 지명은 특정 지역과 장소를 상징한다. 아울러 지명은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역사성과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다. 환경지각 결과인 지명은 객체로서 장소가 갖고 있는 특성과 명명주체로서 인간의 인식이 결합돼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지명 속에는 객체인 장소가 지니는 특성과 지각 주체의 의지, 감성, 세계관 등이 함축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명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의미의 결집체로 볼 수도 있다.²⁾

이 같은 지명은 새로 생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역사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지명은 전근대(前近代)사회에서 국가 행정뿐 아니라 개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을 했다. 이 때 사용된 지명들은 문헌이나 지도를 통해 확인된다. 특히 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지리지나 다른 종류의 문헌에 수록된 지명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즉 지도의 지명은 언어로서 이름과 그 이름이 배치된 곳(장소)이 연결됐을 때 구체성을 띠 수 있고 지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도는 이와 같은 것이 구현된 최고의 매체인 것이다.³⁾

이와 같이 지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지도에 수록된 각종 지명을 분석함으로써 지도의 성격을 밝힐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토대로 지도 제작의 목적도 추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지명들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당대인의 환경인식과 더불어 지역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1)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15쪽.

2) 정진원, 1982,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촌락명의 분석을 중심으로」, 59쪽, 『지리학논총』 제9호.

3) 오상학, 2005, 「대동여지도의 지명에 관한 연구-경기도 지명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45호, 396쪽.

고 본다.

따라서 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문헌의 지명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분석의 대상으로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 고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인 『해동지도(海東地圖)』 중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1750년대 제작·이하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1734~1754년 제작)』,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1872년 제작)』를 연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는 논문 분석 지도에 나타난 모든 지명을 추출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제주 고지도의 지명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8~19세기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선행 연구가들에 의해 제주도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뤄졌으나, 고지도 관련 연구 논문은 많은 편이 아니다.

제주 고지도 논문은 이찬(1979)의 「十八世紀 耽羅地圖考」, 양보경(2001)의 「濟州 古地圖의 類型과 特徵」, 오상학(2000)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와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2004)」 등이 있다.

이찬(1979)의 논문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24방위의 방위각선을 지도상에 표시한 좌표지도이자 항해지도인 『탐라지도』와 『탐라순력도(1702~1703년 제작)』 중 「한라장축(漢拏壯矚)」,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1709년 제작)』 등 3종의 지도를 대상으로 해서 제주 고지도의 특징을 밝혔다.

양보경(2001)의 논문은 1910년대 이전 한국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된 제주 고지도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 지도의 종류와 분포,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총괄적으로 분석했다.

오상학(2000)의 논문은 현존하는 독립된 제주 고지도 가운데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인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를 밝힌 논문이며, 오상학(2004)의 논문은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선행 연구는 제주의 개별 단독지도 중 일부 혹은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의 특성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지

는 않았다.

이 연구 논문은 처음으로 18~19세기 제주 고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비교분석했다.⁴⁾ 즉 역사학적 관점에서 제주 고지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자는 역사적 관점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지리적 관찰법도 적용해서 18~19세기 제주 고지도에 표기된 지명을 통해서 당시 역사적·사회적 환경을 고찰하고 하고자 한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 고지도에 수록된 지명과 기호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봉수나 연대처럼 중요한 군사시설물은 지명 대신 그림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 고지도에 나타난 지명만 추출하고 기호로 표시된 항목을 빼다면 봉수나 연대와 같은 항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돼 제주 고지도의 내용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 고지도의 특징을 고려해서 글자가 아닌 기호로 표시된 항목도 추출했다.

이런 방법으로 추출한 지명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지리학에서 지명을 유형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지명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과 지리학의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그것이다.⁵⁾

전자는 지명 속성에 따라 인문지명, 자연지명으로 분류하고 다시 여러 범주로 세분했다. 후자는 지리학적인 주제인 인간과 자연관계, 지역성, 공간관계 등의 범주로 구분해 유형을 나누는 것이다.⁶⁾ 그러나 후자는 지명항목 중 해당항목을 분류할 때 자의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명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범주를 나누었다. 자연지명은 지형에 따라 산지, 도서(島嶼), 하천, 평야, 호소, 해안,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그러

4) 현대 지명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한 논문은 여러 편 있다. 김옥자, 1992,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석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홍천군과 양양군·속초시를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박태화, 1999, 「영남지방 지명에 관한 연구:창녕군, 봉화군, 남해군의 경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1). 이항근, 1996, 「충청남도의 지명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전경숙, 1979, 「충청북도 지명의 유형분석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진천군과 단양군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현재 옛 지도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오상학의 「대동여지도 지명에 관한 연구-경기도 지명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제45호, 2005가 있다.

5) 이영택(1986)은 지리학 분야에서 지명을 역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명을 풍토, 열 지명, 종교, 동성(同姓)지명, 자연지명, 산업지명, 교역지명, 방어지명, 궁·관직·행정지명, 음운(音韻)·오용(誤用)·특수지명 등으로 분류했지만, 분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강길부(1997:68)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유형을 분석했다. 그는 ①자연환경을 단적으로 표현한 지형어, ② 토지제도, 세제, 정치, 군사 등에 관련해 지은 법제적, 정치적 의미의 법제어, ③사냥, 고기잡이, 농사짓기, 교환경제, 공동생활 등 주민의 생산유통에 관련해 발생한 사회 경제사적인 의미의 사회어, ④ 신앙·민속, 구비전승, 의식주 등 소박한 생활 속에서 생긴 생활어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6) 정장호·신동승, 1995, 「초등학교 교과서의 지명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25, 5쪽.

나 모든 자연지명이 이 범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 위치한 바위는 해안이나 기타로 분류가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 분류의 자의성 때문에 유형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지명의 유형별 경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예외 항목에 크게 유의하지 않았다.

인명지명의 경우 기존 연구를 참고하면서 행정, 군사, 경제, 교통, 문화 등의 범주로 구분했다.⁷⁾

한국 고지도의 경우 대부분 행정목적으로 제작된 관찬지도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지명의 기초를 이룬다.⁸⁾ 행정구역의 명칭은 도명, 군현명, 방면, 동리 등으로 세분했다. 당대 사라진 고지명도 행정지명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행정항목으로 분류했다. 군사항목의 경우 군영, 진보, 봉수 등이 포함된다. 교통항목은 역원을 비롯 포구, 도진(渡津) 등이 해당된다. 경제와 관련된 항목은 창고, 목장, 어염(魚鹽), 전답 등이 포함된다. 문화관련 항목은 궁궐, 사묘(祠廟), 학교, 제단, 불우(佛宇) 등이 해당된다.

지명의 유형 분류는 지명의 구성어소를 형태소별로 나눠 분석했다. 즉 국어는 어휘구조가 배의성(配意性)이 짙기 때문에 복합어 또는 분석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명의 경우 '기본+기어(基語)'의 복합어적인 구조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다.⁹⁾ 따라서 유형 분류는 '-山, -川, -城'과 같이 후반부의 접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지명을 '전반어소(前半語素·자립형태)+접미사'로 구분하고, 접미사에 따라 유형을 나눴다. 접미사가 생략된 경우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추적해서 접미사를 파악한 다음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지명은 범주에 따라 분류한 다음 유형별 비율을 검토해 전체 경향을 파악했다. 그런 다음 유형별로 세부 항목을 분석해 유형별 지명의 특성을 밝혔다. 이 같은 작업은 제주고지도의 내용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항목을 지도화 함으로써 당시 제주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지명분석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연구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해당 시기 모든 제주 고지도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른 고지도와 비교 분석은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7) 기존 연구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간행한 『해동지도:해설·색인』과 동 기관에서 간행한 『조선후기 지방지도:경기도편(해설·색인)』이 대표적이다.

8) 지리학 분야의 연구는 이런 행정항목 대신 취락항목을 두어 구분했다. 취락항목에 도회, 군현, 동리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행정구역명을 수록했다. (원경렬, 1991 ; 정장호·신동승, 1995).

9) 정진원 앞의 논문, 1982년, 63쪽.

II. 제주 고지도의 개관

1. 제주 고지도의 유형과 특징

제주도는 조선시대 국내 최대 공마(貢馬) 사육지이며 국토 방위의 요새지로써 다른 지역보다도 중시됐던 곳이다. 따라서 조선전기부터 제주도의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¹⁰⁾ 실제로 성종 13년(1482년) 양성지가 『제주삼읍도(濟州三邑圖)』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¹¹⁾

따라서 제주 고지도는 일찍부터 제작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만들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 고지도는 현재 규장각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수십 종이 소장돼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제주 고지도는 대부분 18세기와 19세기에 제작된 것이다.¹²⁾ 조선전기 제작된 지도들이 전란을 겪으면서 유실됐기 때문이다.

한국 고지도의 유형 분류는 지도가 포괄하는 대상 지역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대부분 책이나 기관에서 한국의 고지도를 천하도(天下圖·세계지도), 군사지역과 변경지역을 그린 관방지도(關防地圖),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전도(全圖), 도(道)를 단위로 그린 도별지도(道別地圖), 군현과 그 하위 지역을 그린 분도(分圖·郡縣地圖),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¹³⁾

제주 고지도는 세계지도, 조선전도, 도별지도에 포함돼 있으며, 제주의 군현만 그린 군현지도, 제주를 독립적으로 그린 단독지도, 군현지도집 중의 제주도 지도 등 다양하다.

제주 단독지도와 군현지도에는 세계지도, 전도, 도별지도와 같은 소축척 지도에 반영된 내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즉 제주 고지도는 전국도나 팔도도의 전라도 지도나, 제주도 단독지도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또 제작 당시 정보량, 제작자의 의도, 제작 의도에 따라 그 지도의 내용이 달라진다. 『여지도(輿地圖)』나 『광여도(廣輿圖)』 등 전국지도에 수록된 제주도 고지도는 국가 보고용이었기 때문에 동리(洞里) 등 행정사항 위주로 적혀 있다.

그러나 제주 단독 지도나 군현지도에는 전국지도에 비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

10) 오상학 앞의 논문, 2004, 31쪽.

11) 『성종실록』 권 138, 성종 13년 2월 13일, 임자.

1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濟州의 옛 지도』, 127쪽.

13) 양보경, 2001, 「濟州 古地圖의 類型과 特徵」, 『문화역사지리』 제13권 제2호, 82쪽.

다. 제주도의 동서·남북거리를 비롯해서 목장·봉수·연대·과원·촌점·호구·인구·방호소·오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즉 당시 제주의 행정·군사·자연·생활상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것이다.

제주 단독 고지도의 경우 특징적인 사항도 많다. 제주 단독 고지도의 전체구도는 남쪽을 지도의 상단에 두고 24방위를 제주도 주변에 표시했다. 지도의 외곽에는 한반도 남해안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지명을 표기했다. 남쪽을 지도 상단으로 놓는 경우는 과거 지도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북쪽을 지도 위쪽에 배치한 현대 지도와 차이가 있다. 이는 제주도와 같은 섬은 본토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랬기 때문이다. 또한 24방위를 표시한 것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주변지역과 위치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4방위를 배치하고 해당 방향에 주변 지역을 그려 넣은 것이다. 이러한 방위 배치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울릉도 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 방식이다.¹⁴⁾

주변의 외국지명은 중국의 소주(蘇州)와 항주(杭州) 등을 비롯해서 일본, 유구(琉球·현 오키나와), 안남국(安南國·현 베트남) 등이 표기돼 있다.

2. 18~19세기 제주 고지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후기 제주 고지도의 제작은 국방의 중요성과 통치의 필요성 때문에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목사 이규성(李奎成·1706년 9월~1710년 12월 재임)이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¹⁵⁾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1709년 제작)』 하단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여백의 수로(水路)를 설명한 부분에서 구지도(舊地圖)와 신지도(新地圖)를 언급하고 있다.¹⁶⁾ 이를 통해 볼 때 『탐라지도병서』를 제작할 당시 이미 두 유형의 지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 시기 지도제작의 전통을 말해주는 것이다.

18~19세기 제주 고지도는 수십 종이 있지만, 이 논문의 논의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주 단독지도와 군현지도집 가운데 수록된 제주 고지도이다.

제주 단독지도는 지도책이나 지도첩, 지지 중에 포함돼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14)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도판 227 참조.

1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지도 자료, 1996, 8쪽.

16) 『탐라지도병서』, 水路 舊地圖云 自濟州距海倉九百餘里 新地圖云 自禾北抵甫吉島一百餘里 既不得尺量水路 則指言其里未得其詳 而自濟州距海倉也 甫吉島幾過其半 則不下四百餘里

구성된 단독의 제주지도를 말한다.¹⁷⁾ 앞서 밝혔듯이 단독 지도는 전국지도에 포함된 지도보다 당대 제주의 자연, 인문환경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 제주 단독 고지도는 『탐라지도병서』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제주지도』 등이 있다.

현전하는 제주 단독 고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는 『탐라지도병서』이다. 이 지도는 목판본이며, 수록 내용이 풍부해서 후대에 제작된 지도들이 기본으로 삼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¹⁸⁾ 이 지도는 가로 98cm×세로 125cm의 대형지도로, 지도 상단과 하단에 제주의 지리적 상황을 설명한 지지(地誌) 내용이 수록돼 있고, 그 가운데 지도가 그려져 있다. 지도의 외곽에 24방위를 표시하고, 제주도 주위에 일본, 중국, 전라도 남부 지역을 표시했다. 이 지도에 기록된 지지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역사, 크기, 목장, 봉수, 연대, 과원, 방호소, 읍성, 한라산, 산방·천지연·천제연·정방 등 제주의 명승에 관한 내용을 적어 놓았다. 촌점(村点) 150곳, 호구 8995호, 인구 4만 5129명 등으로 기록해 놓았다. 지도에는 마을의 명칭, 포구, 오름 등이 상세히 표현돼 있다.¹⁹⁾

이 지도는 18세기 제주 고지도 제작의 모범이 될 정도로 수록 내용이 매우 자세하지만 목판본 지도여서 지도판독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탐라지도병서』 계열 지도인 군현지도집 가운데 「제주삼현도」를 선택했다. 이 지도는 1750년(영조 26)경 제작한 전국 군현지도첩 『해동지도』 중 수록된 같은 이름의 두 종류의 지도 가운데 하나다. 이는 18세기 중반에 제작됐으나 수록 내용은 18세기 초 『탐라지도병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작성됐다.

이 지도의 앞면에 기록된 주기(註記)에 보면 『해동지도』를 제작할 때 제주목에 목판으로 간행한 인본(印本) 2종이 있어, 두 종의 지도를 모두 수록했다(耽兩羅地圖 既是本邑印本 而詳略不同 並存以備參考)고 적혀 있다. 따라서 이 지도가 『탐라지도병서』 계열과 같은 목판본을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탐라지도병서』 계열 지도라는 사실은 지도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즉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한 점, 주변에 24방위를 배치한 점, 서남쪽에 외국의 지명을 배치하고 북쪽으

17) 양보경 앞의 논문, 2001, 90쪽.

18) 오상학(2004:137)에 따르면 18세기 전반의 가장 대표적인 제주 단독 고지도로, 목판본으로 제작돼 널리 유포됐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서울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곳에 소장돼 있다. 송실대가 소장한 『제주지도』와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한 『해동지도』에 수록된 「제주삼현도」가 이 지도계열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미뤄 조정에 보관돼 국가차원에서 군현지도 편찬시 기본도로 활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9) 양보경 앞의 논문, 2001, 90쪽.

로 한반도 육지부의 지명이 표기된 점이 그러하다.²⁰⁾

이 지도는 『탐라지도병서』의 상·하단에 기록된 설명을 빼고 채색을 적절히 가미해 흑백 목판본 지도보다 아름답다. 한라산 성산일출봉 송악산 등 제주의 경승을 강조해 그렸고, 한라산에서 뺏어내린 임수(林藪)도 두드러지게 표현했다. 지도의 크기는 가로 47cm×세로 30.5cm며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돼 있다.

또 다른 「해동지도」는 18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전라남북도여지도(全羅南北道輿地圖)』 가운데 제주지도 계열이다. 이 지도는 「제주삼현도」에 비해 제주섬 모습이 동서로 압축돼서 왜곡되게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성곽으로 이뤄진 읍치와 방호소를 다른 지역에 비해 강조해 그렸고 열녀문·효자문·정자(亭子)·사우(祠宇) 등 문화적인 내용도 수록했다.

그러나 수록 내용을 보면 앞의 「해동지도」에 비해 사실성이 떨어진다. 제주도 주변도서, 한반도 남해안, 중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지명 등은 거리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려져 있다. 지도에 표기된 여러 섬과 외국지명도 오류가 많다. 송악산 남쪽에 있는 가파도와 마라도의 위치가 서북쪽에 잘못 그려져 있다. 또 유구국과 소유구도 성산포 부근에 배치했다. 아울러 지도 내용도 당시 사회상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대정현의 동해방호소는 이미 헐려졌는데도 여전히 표기돼 있고, 대정향교도 효종 4년(1653) 제주목사 이원진(李元鎭·1651년 7월~1653년 4월 재임)이 단산(簞山)으로 이설했는데, 옮기기 전 위치에 놓았다. 이 지도는 수록된 내용으로 볼 때 17세기 중반경 제작된 목판본 지도(영남대 소장)의 『전라남북도여지도(全羅南北道輿地圖)』 가운데 제주지도를 그대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²¹⁾

분석 대상으로 삼은 또 하나의 지도는 『제주삼읍도총지도』이다. 이 지도는 18세기 전반 마정(馬政)이라는 실용적인 목적 아래 제작된 제주 고지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른 제주의 고지도보다 목장과 관련된 항목이 매우 상세하게 수록돼 있어서 자료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지도는 제주도를 단독으로 그린 조선시대 가장 큰 대축척 지도(가로 119.5cm×세로 122cm)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 지도를 보면 목축문화가 발달된 해발 200~600m 중산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말 목장인 10소장(十所場)과 천미장(川尾場)·모동장(毛洞場) 등의 우목장(牛牧場)이 그려져 있다. 또 각 소장에는 비를 피하던 피우가(避雨家)와 물을 먹이던 수처(水處), 잣성²²⁾의 출입문(梁)이 표기돼 있다. 특히 산마장의 모습도 상세히 그려져

20) 오상학 앞의 논문, 2004, 140~141쪽.

21) 오상학 앞의 논문, 2004, 142쪽.

22) 중산간 지대에서 방목 중인 말들이 해안의 농경지로 내려와 입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 환상(環狀)으로 쌓았던 돌성(石城)으로, 이를 '잣' 또는 '잣담'이라고 한다.

있다. 산마장에서 키운 말을 진공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아 마필수를 점검할 때 사용됐던 목책시설도 보인다. 미원장(尾圓場)·사장(蛇場)·두원장(頭圓場)²³⁾ 등이 그것이다. 이 지도는 조선시대 '국마의 보고'로 불리던 제주도 목장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지도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길게 뻗은 숲과 오름, 마을과 포구도 상세히 그려져 있다.

이 지도의 전체 구도는 제주목 관아 일대 해안이 만의 형태로 움푹 들어가 있어서 지형이 왜곡돼 있다. 다른 여러 제주 단독 고지도와 같이 남쪽을 지도상단으로 배치했고, 주위에 간지(干支)로 된 24방위를 배치했다. 남해안의 섬들과 동남아의 나라도 표기했다.

이 지도는 통상 177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²⁴⁾ 왔지만, 1734년~1754년 경 제작된 제주 단독 고지도라고 본다.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단서는 제주성 안에 표시된 문묘(文廟)와 제주성 남문 밖 사직단(社稷壇)의 위치에서 알 수 있다.

정조 연간 편찬된 『탐라지(耽羅誌·일본 天理大 소장·저자 미상)』에 보면 문묘 즉 제주향교는 경종 4년(1724년) 제주목사 신유익(愼惟益·1723년 8월~1725년 6월 재임)이 향교에 화재가 나자 제주성 동성 안으로 이전했으며, 영조 30년(1754) 제주목사 김몽규(金夢燧·1752년 12월~1754년 10월 재임)가 제주성 남문 밖 3리로 이전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지도에는 문묘가 제주성 동성에 위치해 있다. 또 이 문헌에는 숙종 46년(1720) 제주목사 정동후(鄭東後서·1719년 6월~1720년 7월 재임)가 사직단을 서문 밖으로 옮겼다가 영조 10년(1734) 제주목사 정도원(鄭道元·1733년 8월~1734년 9월 재임)이 남문 밖 옛 터로 다시 환원시켰다고 기록돼 있는데, 사직단은 바로 남문 밖에 표시돼 있다.

이로 미뤄 볼 때 이 지도는 사직단이 제주성 남문 밖으로 옮겨진 1734년 이후, 제주향교가 남문 밖으로 이설되기 전인 1754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논의 대상인 세 번째 지도인 『제주삼읍전도』는 19세기 대표적인 제주 단독 고지도의 하나다. 이는 조선왕조가 1872년 전국 지도제작의 일환으로 만든 제주도 지도이다. 그 당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으로 외세와 무력충돌한 조선정부는 서양세력에 대

23) 산마장의 점검모습은 『탐라순력도』 중 「산장구마(山場驅馬)」에 잘 표현돼 있다. '원장'은 말을 취합하기 위해 만든 원형목책이고, '사장'은 취합한 우마를 1두 또는 1필씩 통과할 수 있게 만든 좁은 목책통과로이다. 원장은 다시 '미원장'과 '두원장'으로 구분되며, 그 중간을 연결하는 것이 '사장'이다. 구마는 우선 우마를 미원장에 몰아넣고, 사장을 통해 점검한 후 두원장에 취합해 점검했다.

24) 『濟州의 옛 지도(1996:2000)』에는 제작 연대를 1770년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오상학(2004:142)은 제주읍성 안에 향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향교가 성 밖으로 이전하기 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지도의 제작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했다. 국방과 치안을 위한 관제개혁, 군제 개편, 군사시설의 확충과 경비태세의 강화, 군기의 정비 등과 함께 전국 각 지역, 특히 군사시설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다. 이 지도는 이런 배경 아래 제작된 것이다. 이 지도는 도별로 제본돼 있지 않고, 각 군현별로 독립돼 있는데, 제주도 지도는 제주도 전도(全圖)와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등 삼읍을 분류해 그린 분도(分圖) 등 4장이 수록돼 있다. 이 지도에는 '정의' '대정' 고을이 현(縣)이 아닌 군(郡)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것은 두 고을이 1864년(고종 1) 군(郡)으로 승격됐기 때문이다.²⁵⁾

이 지도는 면명(面名)과 소속 동수(洞數), 리명(里名)을 기록해 놓았다. 또 각 면에 소속된 마을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속된 동리를 뚜렷히 구분해 놓았다. 또한 이 지도는 앞 시기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됐지만, 지도 모양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제주지도 가운데 가장 정제되고 실재의 모습에 가깝게 표현된 지도로 평가된다.²⁶⁾

지도의 수록 내용을 보면, 군현의 이름과 해안의 진(鎭) 이름을 붉은 색으로 강조해 표기했다. 해안의 봉수대와 포구도 상세히 표기했을 뿐 아니라 제주도를 둘러싼 남해안의 도서와 중국 안남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이름도 표시했다. 이와 함께 한라산 일대 영실의 오백장군, 제주의 오름, 목장도 상세히 표기했다. 삼성혈, 산천단 등의 문화관련 지명과 행객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원(院)도 노랗게 강조해 그렸다. 이 밖에 목장의 수처, 현재 해수욕장에 해당하는 '사(沙)', 도로 등이 수록돼 있다.

지도의 구도는 제주를 독립적으로 그린 고지도와 같다. 크기는 가로 109cm×세로 69cm로 비교적 큰 편이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다.

조선 후기 지도첩 가운데 수록된 제주의 대표 고지도로는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총 43면)』 화첩 가운데 게재된 「한라장축(漢拏壯矚·1702~1703년 제작)」이 있다. 18세기 초 제주의 지형 등 자연환경, 관아 배치와 촌락의 위치 등 지역구조, 과거 시험이나 경로잔치 등 풍습, 목장이나 과원 등 제주의 산업, 방어시설 등을 담고 있는 종합 자료이다.

그러나 이 지도는 「한라장축」을 비롯한 기존 지도 도면에 대한 기존 연구²⁷⁾가

25)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직고(官職考) 군수조(郡守條)에 「旌義郡守本濟州東道 本朝太宗十六年用按撫使吳湜之啓 析漢拏山南幅圓二百餘里之地 東爲旌義西爲大靜俱置縣監 今上元年陞郡守 大靜郡守本濟州西道 本朝太宗十六年始置縣監 今上元年陞郡守」라 기록돼 있다.

26) 오상학 앞의 논문, 2004, 147쪽.

27) 제주시와 탐라순력도 연구회는 2000년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분야별 연구내용을 밝힌 『탐라순력도연구논총(耽羅巡歷圖研究論叢)』를 펴냈다.

있기 때문에 역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19세기 제주 대표 고지도에는 제주목사 이원조(李源祚·1841년 윤 3월~1843년 6월 재임)가 부임해서 제작한 『탐라지도병지(耽羅地圖并識)』와 김정호의 『청구도(靑邱圖)』 중 제주지도 등이 꼽힌다. 전자는 당시 군사나 행정 목적의 지도와 달리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그 형세를 그림처럼 감상하고자 하는 감상용 지도다. 후자는 군사 행정적으로 선택적 항목만 반영된 지도다. 두 지도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존하는 18~19세기 제주 고지도 가운데 대표성을 띤 제주 단독지도 3종(『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을 분석의 자료로 삼아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Ⅲ. 제주 고지도의 지명 분석

1. 제주 고지도의 지명 개관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의 지명 수는 모두 2288개다.²⁸⁾

각 지도별로 지명의 수(표1)를 보면, 「제주삼현도」가 642개(28.0%), 『제주삼읍도총지도』가 926개(40.5%), 『제주삼읍전도』가 720개(31.5%)로 나타난다.

이를 대분류(표2)하면 자연지명은 926개로 40.5%, 인문지명은 1349개로 58.9%, 기타 13개 0.6%를 차지한다. 자연지명의 비율보다 인문지명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 이는 경기도 지명을 중심으로 분석한 『대동여지도』와 차이를 보인다.(표3)²⁹⁾ 『대동여지도』의 경우 자연지명 비율이 54.8%, 인문지명 비율이 45.2%로 나타나 있다.

지도별 분포를 보면 「제주삼현도」의 경우 자연지명이 227개로 35.3%, 인문지명이 408개로 63.6%로 지명간 편차가 매우 크다. 『제주삼읍도총지도』의 경우 자연지명이 391개로 42.3%, 인문지명이 530개로 57.2%이며, 『제주삼읍전도』의 경우 자연지명이 308개로 42.8%, 인문지명은 411개로 57.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인문지명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행정과 관련된 지명이다. 총 555개로 전체지명 가운데 24.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교통지명 282개(12.2%), 경제지명 240개(10.5%), 군사지명 240개(10.5%), 문화지명 32개(1.4%) 순이다. 인문지명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경기도 지명을 중심으로 분석한 『대동여지도』와 비교할 때 행정지명과 경제지명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대동여지도』의 경우 행정지명 비율이 13.5%, 경제지명 비율이 5.3%로, 제주도 세 지도의 지명 분포의 절반이다.

28) '한라산'과 같이 삼읍에 모두 소속된 경우 한 지명을 삼읍에 소속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사(沙)'와 같은 지명은 읍면 단위로 하나로 집계했다. '부면과(夫面果)'의 '원당봉(元堂烽)'과 같은 경우 '부면'이라는 행정지명과 '과원'이라는 경제지명으로 분류했고, '원당봉수'라는 군사지명과 '원당오름'이라는 자연지명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지명총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또 거리단위나 방위를 나타내는 지명은 제외했다. 그러나 판독이 불가능한 지명은 분석에 포함시켰다.

29) 오상학 앞의 논문, 2005, 400쪽.

<표 1> 분석대상 지도별 지명 수

지도	도내외	자연지명	인문지명	기타	계
삼현도	제주	182(32.4%)	373(66.4%)	7(1.2%)	562
	도외	45(56.3%)	35(43.7%)		80
	계	227(35.3%)	408(63.6%)	7(1.1%)	642
도총지도	제주	334(40.4%)	489(59%)	5(0.6%)	828
	도외	57(58.2%)	41(41.8%)		98
	계	391(42.3%)	530(57.2%)	5(0.5%)	926
삼읍전도	제주	268(41.2%)	383(58.7%)	1(0.1%)	652
	도외	40(58.8%)	28(41.2%)		68
	계	308(42.8%)	411(57.1%)	1(0.1%)	720
총계	2287	926(40.5%)	1348(58.9%)	13(0.6%)	2288

<표 2> 제주도 전체 지명의 유형별 분포

유형	자연(926)							인문(1349)					기타	계
	산지	도서	하천	평야	호소	해안	기타	행정	군사	경제	교통	문화		
도내	467	56	88	16	35	67	55	490	209	240	275	31	13	2042
도외	8	121				13		65	31		7	1		246
계	475	177	88	16	35	80	55	555	240	240	282	32	13	2288
비율	20.8	7.8	3.8	0.7	1.5	3.5	2.4	24.3	10.5	10.5	12.2	1.4	0.6	100

<표 3> 경기도 지역 지명의 유형별 분포

유형	자연							인문					계
	산지	고개	하천	평야	호소	도서	해안	행정	군사	교통	경제	문화	
개수	272	73	75	4	6	65	9	124	96	116	48	32	920
비율	29.6	7.9	8.2	0.4	0.6	7	1	13.5	10.4	12.7	5.3	3.4	100

지도에 행정지명이 가장 많은 것은 지도 제작의 목적이 국가에 보고하기 위한 행정용이고, 제주도가 동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방, 경제, 지형학적 요충지로 인식되면서 일찍부터 지도 제작이 이뤄졌다고 추정된다.

경제지명의 비율도 『대동여지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데, 이는 제주도의 목장관련 이름과 과원 이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목장관련 지명은 전체 경제지명 240개의 절반을 넘는 127개(52.9%)로 집계된다. 과원 이름 수는 98개로 경제 지명의 40.8%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고려시대 이후 국내 최대 목마장이 되면서 국가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목장 이름이 제주의 고지도에 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원은 조선시대 감귤진상을 위해 공과원이 정비되면서 그 중요성이 지도에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세 지도별로 비교해 보면, 「제주삼현도」(표4)의 경우 행정지명 174개(27.1%), 교통지명 82개(12.8%), 군사지명 77개(12%), 경제지명 69개(10.7%), 문화지명 6개(0.9%)순이다. 『제주삼읍도총지도』(표5)의 경우 행정지명 198개(21.4%), 경제지명 119개(12.8%), 교통지명 105개(11.3%), 군사지명 87개(9.3%), 문화지명 21개(2.3%) 순이다. 『제주삼읍전도』(표6)는 행정지명 183개(25.4%)이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지명 95개(13.2%), 군사지명 76개(10.6%), 경제지명 52개(7.2%), 문화지명 5개(0.7%)로 집계되고 있다.

자연지명의 경우 산지지명의 비율이 가장 높다. 모두 475개로 전체 지명의 20.8%를 차지한다. 산지지명 다음은 도서지명, 하천지명, 해안지명 순이다. 도서지명은 177개(7.8%), 하천 지명은 88개(3.9%), 해안지명은 80개(3.5%)로 나타난다.

이를 지도별로 살펴보면, 「제주삼현도」(표4)의 경우 산지지명 89개(13.9%), 도서지명 54개(8.4%) 표시돼 있으며, 하천지명과 해안지명이 각 28개로 4.4%를 보이고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표5)의 경우 산지지명 194개(21%), 도서지명 69개(7.5%), 하천지명 41개(4.4%), 기타지명 31개(3.3%), 해안지명 29개(3.1%) 순이다. 『제주삼읍전도』(표6)는 산지지명 192개로 전체지명의 26.7%이며, 도서지명 54개(7.5%), 해안지명 23개(3.2%), 하천지명 19개(2.6%) 순이다.

섬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 것은 제주섬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 도서 이름이 제주 주변을 둘러싼 한반도 남해안의 일대 섬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반도 남해안의 섬 이름은 121개로 전체 도서 관련 지명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하천지명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3읍의 주요 하천을 표기했는데, 이것은 용천수를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된 화산섬 제주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제주삼현도 전체 지명의 유형별 분포

유형	자 연							인 문					기타	계
	산지	도서	하천	평야	호소	해안	기타	행정	군사	경제	교통	문화		
제주목	52	8	15	4	6	19	11	112	32	50	47	5	6	367
정의현	17	2	6	1	1	5		22	22	14	22	1	1	114
대정현	18	4	7	2	1	1	2	16	14	5	11		0	81
제주총계	87	14	28	7	8	25	13	150	68	69	80	6	7	562
도외	2	40				3		24	9		2			80
총괄	89	54	28	7	8	28	13	174	77	69	82	6	7	642
비율	13.9	8.4	4.4	1.1	1.2	4.4	2.0	27.1	12	10.7	12.8	0.9	1.1	100

<표 5> 제주삼읍도총지도 전체 지명의 유형별 분포

유형	자 연							인 문					기타	계
	산지	도서	하천	평야	호소	해안	기타	행정	군사	경제	교통	문화		
제주목	98	8	22	4	13	12	18	121	35	73	51	17	3	475
정의현	52	9	14	1	2	7	6	31	24	30	27	1	0	204
대정현	40	6	5	2	5	3	7	22	16	16	23	2	2	149
제주총계	190	23	41	7	20	22	31	174	75	119	101	20	5	828
도외	4	46	0	0	0	7	0	24	12	0	4	1		98
총괄	194	69	41	7	20	29	31	198	87	119	105	21	5	926
비율	21	7.5	4.4	0.8	2.2	3.1	3.3	21.4	9.3	12.8	11.4	2.3	0.5	100

<표 6> 제주삼읍전도 전체 지명의 유형별 분포

유형	자 연							인 문					기타	계
	산지	도서	하천	평야	호소	해안	기타	행정	군사	경제	교통	문화		
제주목	97	9	13	2	5	13	8	90	31	32	53	5	0	358
정의군	54	5	0	0	1	4	2	47	21	11	21	0	1	166
대정군	39	5	6	0	1	3	1	29	14	9	20	0	0	127
제주총계	190	19	19	2	7	20	11	166	66	52	94	5	1	651
도외	2	35	0	0	0	3	0	17	10	0	1	0		68
총괄	192	54	19	2	7	23	11	183	76	52	95	5	1	719
비율	26.7	7.5	2.6	0.3	1.0	3.2	1.5	25.4	10.6	7.2	13.2	0.7	0.1	99.9

자연지명 중 평야나 호소지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평야지명은 16개(0.7%), 호소지명은 35개(1.5%)에 불과하다. 이 역시 섬으로서 제주의 환경지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관련 지명은 총 32개(1.4%)로 매우 적다. 따라서 연구 대상인 세 지도에 나타난 세부 항목을 보면 인문지명은 행정과 교통의 비율이 높다.

행정항목에서는 행정구역의 명칭과 관련된 군현(郡縣)·방면(方面)·리명(里名)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지명을 표기한 것도 특징적이다. 세 지도에는 모두 50개의 외국지명이 적혀 있다. 제주를 독립적으로 그린 고지도의 경우 외국지명을 표기한 사례가 많은 데, 이것은 동아시아 중심지로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통항목에선 포구이름의 비중이 가장 많다. 제주섬을 두른 포구이름이 거의 빠짐없이 표기돼 있다. 이 역시 도서지역으로서 제주 고지도의 특징으로 분석된다. 반면 역원이나 도로, 진(津)의 지명 비중은 매우 적다. 『대동여지도』의 교통항목 가운데 역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차이를 보인다.

경계관련 범주에 포함된 지명의 경우 과수원을 뜻하는 ‘과(果)’의 표기가 가장 많다. 다음은 목장관련으로 제주섬 일대에 있는 목장이름을 비롯, 목장 출입구를 뜻하는 ‘양(梁)’, 풍우를 피했던 ‘피우가(避雨家)’, ‘목책시설’ 등이 상세히 표기돼 있다. 경제 항목 중 창고의 지명은 적다. 제주읍치의 중심이던 제주목, 제주 동·서부지역의 행정과 군사방어의 중심이던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소재 별방진과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소재 명월진에 창고의 지명을 표기해 놓았다.

군사항목은 해안 방어 시설인 연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이 봉수, 진보, 성곽 순으로 분포돼 있다.

이 밖에도 문화관련 항목으로는 ‘단(壇)’ ‘묘(廟·사묘)’ ‘문(門·관아의 문)’ 등이 쓰였다. 각 지역의 효자나 효부, 열녀를 기리는 ‘정문(旌門)’도 표기돼 있다. 문화항목이 적은 것은 세 지도가 행정이나 군사 등 실용적인 목적에서 제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연지명의 경우 산지항목 가운데 오름(기생화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산지 지명 475개 가운데 455개³⁰⁾를 차지한다.

오름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악(岳)’이 가장 많고, ‘산(山)’ ‘봉(峰)³¹⁾ 봉(峰)³²⁾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산지 항목에서 오름 다음으로는 산이나 모루(旨·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살레모루·山來旨) ‘암(岩)’ 등이 나온다.

오름 이름 가운데 ‘악(岳)’이 가장 많은 것은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습관과 관련이 있다. ‘오름>오름’은 제주에만 남아있는 독특한 옛 말로, 악(岳)이나 봉(峰)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옛 문헌인 『세종실록(世宗實錄)』(권151, 지리지, 정의현)에는 ‘오름삿기/岳沙只’,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정의현, 봉수)에는 ‘오름삿기오름/呑音岳沙只’, 『남사록(南槎錄)』(권1)에는 “지지에 의하면…사투리로…악(岳)은 ‘오름/呑老音’이라 한다(地誌…俚語…以岳呑老音).” 『탐라지(耽羅志·이원진·1653)』(제주목, 풍속)에는 “제주의 기록에, 말에 특이한 것이 많은데…岳을 ‘오름·오름·兀音’이라한다(州記, 語多殊音…以岳爲兀音).”고 기록돼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오음(呑音)’은 고유어 ‘오름>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다. ‘오(呑)’는 한자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말 ‘오’를 표기한 것이다. ‘음(呑)’은 한자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말 ‘오름’의 말자음 ‘ㅁ’을 표기한 것이다.

30) 오름이름은 산지 지명 중 계곡이나 골짜기, 전남지역의 산 지명은 제외했다. 현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오름의 경우 오름으로 간주했다. 예를 들면,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수록된 ‘건송악(乾松岳)’은 명백한 오름표기이나 현재 지칭하는 오름을 찾기 힘들다.

31) 제주의 경우 봉수는 대개 오름에 설치됐는데, 앞서 밝혔듯 봉수와 산지 지명으로 2중 분류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오름을 지칭하는 접미어로 ‘봉(峰)’을 넣었다.

32) 오름을 ‘봉(峰)’으로 표기한 예는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적봉(赤峰·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붉은 오름)’이 유일하게 나온다.

다. 『세종실록』의 ‘악(岳)’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고려했음은 물론 읽을 때 도 뜻으로 읽어 ‘오름’이라 했다.

따라서 예부터 제주에서는 악(岳)의 뜻으로 ‘오름·오름>오름’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악(岳)과 봉(峰)은 그 뜻이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제주에서는 오름(오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주로 ‘악(岳)/오름’을 써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악(岳)/오름’보다 ‘봉(峰)/오름’이 우세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³³⁾

도서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도(島)’가 가장 많고 ‘암(岩)³⁴⁾ ‘협(峽)³⁵⁾ ‘양(梁)³⁶⁾ 등이 쓰였다. 도서 관련 지명으로는 제주해안의 ‘여(嶼)’가 세 지도에 모두 표기됐는데, 선박항해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표기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³⁷⁾

하천지명으로는 ‘천(川)’ ‘수(水)’ 등이 보이며, 호소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지(池)’가 가장 많이 쓰였고, ‘담(潭)’ ‘연(淵)’ 등이 쓰였다. ‘수(水)’나 ‘지(池)’는 대부분 제주목장의 우마의 물 공급처이다.

평야관련 지명은 ‘평대(坪代·벵디)’³⁸⁾로 표기돼 있다.

해안과 관련 지명으로는 ‘곶(串)’, ‘두(頭)’, ‘사(沙)’, ‘양(梁)’ 등이 사용됐다. 곶(코지)은 해안으로 돌출한 지형에 붙이는 이름인데, 해안지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두(頭)’는 육지부와 닿아 해안에 뾰족하게 나온 바위군으로 대개 쓰이는데, 제주시 ‘용두암’이나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앞바다의 ‘용머리’를 ‘용두(龍頭)’로 표기하고 있다. ‘사(沙)’는 현재 해수욕장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양(梁)’은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가 좁아 물살이 매우 빠른 전남 도서지역에 많이 보이는데, ‘위량(蔚梁)’과 같은 지명이 그 예다.

33)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출판부, 4~7쪽.

34) 『제주삼읍전도』에 보면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 있는 ‘형제도(형제섬)’를 ‘형제암(兄弟岩)’으로 표기했다.

35) 『제주삼읍전도』에 보면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눈섬’을 ‘무산협(巫山峽)’으로 표기했다..

36)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전남 완도군 노화읍 넓도를 ‘광아량(廣鵝梁)’으로 표기한 것이다.

37) 『숙종실록』, 숙종 3년 5월 8일 계미.

실록 내용에 보면, 제주목사 윤창형(尹昌亨)이 바닷가에 배를 정박하는 곳에다 성을 쌓는 지형을 개록(開錄)하여 장계한 것을 가지고 복계(覆啓)하기를 “제주 세 고을의 해안에 배가 정박하는 곳은 모두 암석이 깔려있어 큰 배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제주의 도근천과 화북 등 두 곳이 다른 데와 비교하면 조금 넓기는 하나 명월소는 선소(船所)를 버리고서 은벽한 곳으로 옮겨 설치했으니, 마땅히 독포로 옮겨 설치해야 한다고들 했습니다.”고 기록돼 있다.

38) 오창명(1998:281)에 따르면 ‘평대(坪代)’는 ‘벵디’의 한자 차용 표기다. ‘평(坪)’은 음이 ‘평’이지만 격음으로 변하기 전음인 ‘벵’의 음가자 표기, ‘대(代)’는 음이 ‘대’이지만 유사음 ‘딤’의 음가자 표기다. ‘벵디’는 ‘넓은 벌판’을 뜻하는 제주방언이다. 따라서 제주지명에서 ‘평야’는 한반도 평야지대를 일컫는 ‘평야’와 그 개념이 다르지만 ‘넓은 벌판(들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서 ‘평야’로 분류했다.

자연관련 항목 중 기타항목에는 ‘수(藪)’ ‘굴(窟)’ 등이 사용됐다. ‘수(藪)’는 ‘숲’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며, ‘곶’이라도 한다. 현재 제주 ‘곶자왈’지대를 중심으로 당시 큰 숲지대가 있는 곳에 사용됐다. 제주의 대표적인 곶자왈지대인 조천읍 일대에 ‘우장수(筭長藪)’와 안덕면 일대 ‘나수(螺藪)’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2. 제주도 지명의 분석

1) 지명의 군현별 분포

세 지도에 표기된 지명을 군현별로 정리(표7)하면 제주목, 정의현(군), 대정현(군) 순이다.

한라산 북쪽에 해당하는 제주목의 경우 1200개(52.5%)로 전체 지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의현(군)은 485개(21.1%), 대정현(군)은 357개(15.6%)이다. 도외지명은 246개로 10.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7> 군현별 제주도 지명 수

군 현	제주목	정의현(군)	대정현(군)	도외	계
제주삼현도	367	114	81	80	642
삼읍도총지도	475	204	149	98	926
제주삼읍전도	358	167	127	68	720
합계	1200	485	357	246	2288
비 율	52.5	21.1	15.6	10.8	100

조선시대 제주지역 군현의 경계는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주목은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정의현(군)은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에서 서귀포시 법환동 지역을 이른다. 대정현(군)은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서귀포시 강정동 지역을 이르렀다. 실제 군현의 경계는 지도에 따라 다소 다르게 표기돼 있다.

『탐라순력도(1702~1703년)』 중 「한라장축」에는 제주목의 경우 동쪽으로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용항포(龍項浦), 서쪽 경계는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포(頭毛浦·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포구)로 돼 있다. 정의현과 대정현의 경계는 서귀포시 법환포(法閑浦·현 서귀포시 법환동)와 서귀포시 색수(塞水·서귀포시 색달동) 사이로 표기돼 있다.

「제주삼현도」는 제주목과 대정현의 경계를 궤포(蕪浦·현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한 포구), 정의현과 대정현의 경계는 법한포(法汗浦)로 표기했다.

『제주삼읍도총지도』는 경우 동쪽으로 용항포, 서쪽으로 두모포와 군영포(軍營浦·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한 포구)사이, 정의현과 대정현의 경계는 법한포와 변수포(邊水浦·서귀포시 강정동 한 포구)로 돼 있다.

『제주삼읍전도』는 제주목은 동쪽으로는 용항포, 서쪽으로는 두모포와 군영포 사이며, 정의현과 대정현은 변수포를 경계로 하고 있다.

시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표화 하면, 조선시대 제주 삼읍간 대략적인 경계는 <표8>과 같다.³⁹⁾

<표 8> 조선시대 제주삼읍의 경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동쪽 정의현 경계	서쪽 대정현 경계	남쪽 바다	북쪽 바다	해남 관두량	동쪽 제주 경계	북쪽 제주 경계	서쪽 대정현 경계	남쪽 바다	동쪽 정의현 경계	남쪽 바다	제주 경계	북쪽 제주 경계
80리	81리	120리	1리	970리	35리	20리	95리	15리	57리	10리	37리	32리

‘제주목’ 지명은 「제주삼현도」에 367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477개, 『제주삼읍전도』에 358개 표기돼 있다. ‘정의현(군)’에 해당하는 지명은 「제주삼현도」 114개, 『제주삼읍도총지도』 204개, 『제주삼읍전도』 167개 표기돼 있다. ‘대정현(군)’은 「제주삼현도」 81개, 『제주삼읍도총지도』 149개, 『제주삼읍전도』 127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지명 분포는 18~19세기 제주지역의 호구상황과도 일치한다.

숙종 때 제주목사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보면 제주목은 동·서·남 3면에 95리 총 호수 7319호이며, 정의현은 동·서 2면에 22리 총 호수 1426호이며, 대정현은 동·서 2면에 12리 797호이다. 『남환박물』에는 면별 소속 마을과 인구수는 기록하지 않았다. 『제주읍지(1780년대)』의 경우 제주목은 좌·구우·신우·중 4면에 79리 인구 3만9374명, 정의현은 좌·우·중 3면에 38리 2325호 1만4406명, 대정현은 우·좌 2면 22리 1704호 8275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제주지역 군현별 지명 분포는 위계가 높고 행정·군사적으로 중요한 고을에 지명이 많이 수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9) 이원진, 『탐라지』, 1653,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참조.

2) 지명의 유형별 분포

(1) 자연지명의 분석

자연지명은 926개로 전체지명의 40.5%를 차지한다. 자연지명을 유형별(표9)로 분류하면, 산지에 해당하는 지명이 475개로 전체의 20.8%이다. 도서 지명은 177개로 전체 지명의 7.8%이다. 이어 하천(88개), 해안(80개) 순으로 지명이 많다. 호소(35개)나 평야(16개) 관련 지명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즉 제주의 자연지명은 산지와 도서지명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지 지명은 전체 자연지명의 51.3%, 도서지명은 전체 자연지명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산지 지명과 도서지명이 전체 자연지명의 70%를 넘고 있다.

<표 9> 자연지명 세부항목 분류

구분	유형	내용
자연	산지	山(63) 岳(274) 烽(60) 기타(78. 岩7, 峰1, 旨1, 頂1, 項3 포함)
	도서	島(92) 磯(10) 기타(75 · 岩4, 梁3, 峽1, 夾1, 頭1 포함)
	하천	川(75) 水(11) 水口(2)
	평야	坪代(16)
	호소	潭(7) 池(27) 기타(淵 1)
	해안	串(49) 頭(8) 기타(23 · 沙6, 梁5, 滄, 1 岩1 포함)
	기타	藪(22) 窟(10) 기타(23 · 泉5, 淵4, 潭1, 項1 포함)

<표 9-1> 분석대상 지도별 자연지명 세부항목 분류

지도	자연지명 유형							계
	산지	도서	하천	평야	호소	해안	기타	
제주 삼현도	山(14) 岳(51) 烽(15) 기타(9 · 岩3, 項1 포함)	島(29) 磯(3) 기타(17 · 岩1포 함)	川(24) 水(4)	坪代(7)	潭(2) 池(6)	串(18) 沙(4) 頭(2) 梁(2) 기타(2)	藪(7) 窟(2) 기타(4 · 泉1 項1 포함)	
제주삼읍 도총지도	山(28) 岳(106) 烽(22) 기타(38 · 峰1, 岩 4, 項2 포함)	島(34) 磯(5) 기타(32 · 梁3, 岩 2, 夾1포 함)	川(35) 水(4) 水口(2)	坪代(7)	潭(3) 池(17)	串(15) 頭(4) 기타(10 · 梁2, 滄 1, 岩1포 함)	藪(13) 窟(5) 기타(13 · 泉2 淵1, 潭1 포함)	

제주삼읍 전도	山(21) 岳(17) 烽(23) 기타(3· 湄1,頂1 포함)	島(29) 嶼(3) 기타(22 · 岩1,峽 1포함)	川(16) 水(3)	坪代(2)	潭(2) 池(4) 淵(1)	串(16) 기타(7· 頭2 沙2 梁1포함)	藪(2) 泉(2) 窟(3) 淵(3) 기타(1)	
------------	--	--	---------------	-------	----------------------	----------------------------------	---------------------------------------	--

(가) 산지지명

자연지명을 세부항목(표9)으로 나눠 살펴보면, 산지항목에서는 접미사가 오름이름에 쓰인 악(岳)이 274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은 봉(烽)이 60개, 산(山)이 63개이다. 이외에 암(岩·7), 항(項·3), 정(頂·1)⁴⁰⁾ 봉(峰·1) 지(旨·1) 등이 수록돼 있다.

산(山)의 경우 정의현이 21개로 가장 많고, 제주목(18), 대정현(16)순이나 지역별로 큰 편차는 없어 보인다. 도외지명의 경우 모두 산(山)을 쓰고 있다. 악(岳)의 경우 제주목이 155개로 가장 많고, 정의현이 62개, 대정현이 57개로 나타난다. 봉(烽)의 경우 제주목 25개, 정의현 11개, 대정현 13개이다.

산지지명 가운데 오름 수는 455개로, 전체 산지지명의 96%에 이른다. 오름이란 화산섬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기생화산구(寄生火山口)를 말한다. 즉 오름의 어원은 자그마한 산을 가리키는 제주방언이며, 한라산체의 산록상에서 만들어진 개개의 분화구를 갖고 있는 소화산체(小火山體)를 의미한다. 분화구를 갖고 있고, 내용물이 화산쇄설물로 이뤄져 있으며, 화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⁴¹⁾

제주도 화산은 대부분 현무암질 용암분출에 기인된 분화활동의 결과다. 흔히 부르는 ‘오름’은 주로 분석구이며, 일부 해안지역에 수중화산활동과 관련된 응회구, 응회환, 마르(maar)도 분포하고 있다. 산방산과 같은 독립된 조면암질의 용암원정구도 작은 화구(火口)로 인정되므로 오름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오름의 수는 이 같은 정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즉 오름은 제주적인 자연경관 가운데 가장 특색 있는 지형으로 평가된다. 한라산 정상 분화구를 중심으로 한 산록과 대지상 요철의 볼륨을 갖게 해 화산섬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 중산간 지대 울창한 산림과 함께 강우에 의한 지하수 함양 면적을 높여주고 물의 토양 지체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홍수와 토양침

40) 정(頂)은 항(項)의 오기이다. 『제주삼읍전도』에 한라산 일대 ‘장구목 오름’이 ‘장고정(長鼓頂)’으로 표기돼 있다.

41) 제주도, 1999, 『제주의 오름』, 19쪽.

42) 제주도, 1999, 『제주의 오름』, 19쪽.

식에 의한 자연재해 예방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지형적 특색을 지닌 근원은 화산지질학적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제주화산체는 주로 신기의 조면암-현무암류로 이뤄져 있는데, 오름은 스토롬볼리식 분출활동(strombolian eruption)에 의한 현무암질 용암분출에 기인한 부산물인 것이다. 제주의 지표지질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화산암류가 분출구가 오름이라는 사실에서 용암류의 분포범위를 포함한 제주도 화산지질 연구에 오름(기생화산)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²⁾

한라산 정상에서 해안까지 분포하고 있는 오름은 하나의 제주의 다양한 식생분포를 보여주는 특수한 곳이다. 지대별로 그 식생 분포와 특성이 다른 것도 이 같은 화산체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오름은 옛 지도에도 그 중요성을 고려해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오름 관련 연구물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면 제주도의 오름 수는 330~360여 개에 이른다. 제주도 오름수를 331개⁴³⁾, 368개⁴⁴⁾ 라고 밝혔다. 한 섬이 갖는 제주의 오름 수는 세계 최대인데, 세계에서 오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지중해 시칠리아섬 에트나산(山)의 기생화산수 약 260개보다 월등하게 많다.

<표 10> 군현과 4개 시·군 오름 분포

오름수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계
제주목(257)	87	1	146	4	238
정의현(121)		15	12	93	120
대정현(97)		27	15	54	96
계(455)	87	43	173	151	454
비율	19.2	9.5	38.1	33.2	100

<표 11> 시·군별 오름 수 현황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계
제주의 오름	59	37	151	121	368
비율	16.0	10.1	41.0	32.9	100
오름 나그네	52	29	139	111	331
비율	15.7	8.8	42.0	33.5	100

43) 김종철, 1994, 『오름 나그네』 1권, 319~332쪽. 시·군·읍·면 별 오름수 합산.

44) 제주도, 1998, 『제주의 오름』, 33쪽.

분석 대상인 세 개의 제주 고지도에도 상당수의 오름을 표기해 놓았는데, 『제주삼현도』에 85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181개, 『제주삼현도』에 181개 표기돼 있다. 이를 군현별로 지명 수(표10)를 보면, 제주목이 257개로 가장 많고, 정의현 121개, 대정현 97개로 나타나 있다. 제주목에 오름이 집중된 것은 현재 제주시와 북제주군, 즉 한라산 북쪽 지역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도에 표기된 오름 수를 현재 4개 시군별로 분류하면, 제주시 87개, 서귀포시 43개, 북제주군 173개, 남제주군 151개로 나타난다.⁴⁵⁾ 이 같은 오름 지명의 분포는 앞의 오름관련 서적에 표기된 시군별 오름의 분포현황과 일치한다(표11). 지도에 표기된 오름의 지명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오름지명의 표기는 북제주군이 가장 많고, 남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순으로 나타나 있다.

(나) 도서지명

섬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 도(島)가 가장 많다. 제주도의 섬 지명과 전남 해안의 섬 지명이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도서 지명 가운데 표기된 현재 제주도 소속 섬의 지명은 64개, 전남일대 섬의 지명은 103개다.

제주섬의 경우 「제주삼현도」에 17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26개, 『제주삼읍전도』에 21개의 지명이 표기돼 있다. 제주도의 섬은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등 8개 유인도와 54개 무인도 등 62개가 있다.

세 지도에 표기된 섬 이름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의 경우 항해할 때 중요한 좌표구실을 했던 제주시 도두동 앞 관탈섬이 표기돼 있고, 서귀포시의 경우 설섬, 문섬, 범섬, 새섬 등 6개의 섬 이름을 수록했다.

북제주군은 타 지방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추자도⁴⁶⁾, 사서도를 비롯해 우도, 비양도, 차귀도 등 14개의 지명이 나타나 있다. 추자도와 사서도의 경우 세 지도 모두 빠짐없이 표기해 놓았다.

비양도의 경우 세 지도 모두 표기해 놓았는데, 특기할 만한 점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보이는 비양도 표기이다. 마치 「한라장축」 중 ‘비양방록(飛揚放鹿·비양도에 사슴을 방사하는 그림)’에 보이는 비양도의 모습과 흡사하게 그려 놓았다.

45) 오름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소재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 통계에서 제외했다. 한라산의 경우 『제주삼읍전도』에만 나오는데, 4개 시·군을 품고 있어 4개 시·군에 모두 포함시켰다.

46) 『남환박물』 도서 항목을 보면 “추자도는 영암군에 속한다…수로는 870리다. 보길도와 의거리는 70리다…수참(水站) 옛 터가 있다…신도(身島)는 그 주봉이다. 고려 삼별초난 때 김방경이 몽고의 혼도와 더불어 이곳에 이르러 후풍(候風)하고 마침내 큰 공을 이뤘으므로 제주인은 이를 생각해 후풍도라 이름했는데 대정지경과 마주보고 있다.”고 쓰여 있다.

비양도의 4개 봉우리와 화산활동⁴⁷⁾을 기록한 듯 봉우리에 붉은 칠을 해놓은 것이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비양도(飛揚島)’를 ‘비양도(飛楊島)’로 표기하고, 섬 안에 ‘一名瑞山此池國平清不安赤四峯’이라고 그림 설명을 해 놓았다. 이 기록을 해석하면 ‘일명 서산이다. 이 곳은 나라가 평안하면 푸르고, 불안하면 붉다. 4개 봉우리가 있다’이다. 문구 내용이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주에 밝힌 화산활동을 염두에 두고 그린 듯 보여 비양도의 역사와 관련,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서산(瑞山)’지명이 나오므로써, 고려 목종 10년 화산분출은 비양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서산(瑞山)’의 위치와 관련, 학계에선 가파도, 대정지역 군산, 비양도, 우도 등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고고학적 연구와 합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서산의 위치를 밝혀내기 위해선 지질학, 고생물학, 식물학, 지리학 학자들간 종합적인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⁴⁸⁾

한편 1770년대 제작된 『고지도첩(古地圖帖)』 중 「탐라전도(耽羅全圖)」를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목종 10년(1007)의 화산분출 기록인 「서산용출해중(瑞山湧出海中)」에서 군산으로 추정했던 ‘서산(瑞山)’이 나온다. 그런데 이 고지도에는 ‘비양악(飛揚岳)’으로 표시된 현재의 비양도와 ‘죽도(竹島)’로 표기된 현재 차귀도와 사이에 ‘서산(瑞山)’(지도 4)이 함께 나온다. 현재 북제주군 한경면 판포리 앞바다에 해당된다. 이 지도의 표기가 정확한지, 착오로 그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이 지도가 맞게 그려졌다면 역사 기록으로 갖고 있는 바다 속에서 서산의 화산분출은 현재 바다 속에 가라앉아 볼 수 없으나 화산분화활동 당시에는 하나의 독립된 수중화산이 아니었나 유추⁴⁹⁾하는 주장도 있다.

또 『제주삼읍도총지도』의 비양도 부문에는 화살을 만드는 전죽이 그려져 있는데 『탐라지』 등에는 “명월과 마주보고 있으며 뱃길로 5리이며 둘레는 10리다. 화살대(箭竹)가 많다.”는 기록을 참고로 그려진 것 같다. 실제로 답사해 보면 비양도

47)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고려 목종 5년(1002)과 목종 10년(1007) 제주의 화산활동을 기록해 놓았다. 즉 “고려 목종 5년 6월에 산이 바다 가운데 치솟아 나왔다. 산에 구멍이 네 개가 뚫어져 붉은 물이 솟아나와 닷새 만에 그치었다. 그 물이 모두 엉키어 기왓돌이 됐다. 고려 목종 10년에 서산이 바다 가운데 솟아 나왔다. 태학박사 전공지를 보내어 이를 조사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나올 때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날이 캄캄해지면서 벼락치는 것 같이 땅이 움직였다. 무릇 칠주야가 지나서야 비로소 개였다. 산의 높이가 백여 장 되고 주위가 사십여 리나 가량 되며, 풀과 나무가 없고 연기가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바라보니, 석류황과 같으므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공지가 몹소 산 아래에 이르러 그 모양을 그리어 바치었다”하니, 지금은 대정현(大靜縣)에 속한다.”고 기록돼 있다.

48) 강창룡, 2004,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로 본 상서로운 산(瑞山)의 위치에 관한 고찰」, 『제주 문화재연구』 제2호, 149쪽.

4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3, 「2003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42쪽.



에는 지금도 대나무가 꽤 있다.

남제주군 소속 섬으로는 대정읍의 가파도와 마라도, 안덕면의 형제도, 남원읍의 지귀도 등 4개의 지명이 표기돼 있다.

(다) 하천지명

자연지명 항목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은 하천 관련 지명이다. ‘강(江)’보다는 규모가 작은 ‘천(川)’의 지명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수(水)’와 ‘수구(水口)’ 순으로 표기돼 있다.

‘천(川)’은 「제주삼현도」에 24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35개, 『제주삼읍전도』에 16개 표기돼 있다. 이를 군현별로 보면, 제주목이 40개로 가장 많고, 정의현(군)이 19개, 대정현(군)이 16개의 하천 이름이 표기돼 있다.

하천의 분류는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제주삼읍도총지도』를 중심으로 군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삼읍도총지도』 표기된 제주목의 하천지명은 모두 17개. 이를 제주동쪽으로부터 살펴보면, 그 하천은 ‘대내악(大乃岳·제주시 아라동 소재 한 오름)’을 거쳐 ‘돛배오름(机岳·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우진제비(牛眞岳·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를 흐르는 ‘교래천’이다. 「제주삼현도」에는 ‘전천(前川)’,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교래전천(橋來前川)’, 『제주삼읍전도』에는 ‘응종천(應從川)’으로 표기돼 있다. 그 다음은 ‘배응별수(盃應別水·3소장 수처인 제주시 회천동 진폐기물 추정50)’에서 발원, ‘가사포(可沙浦·제주시 삼양2동)’로 흐르는 ‘삼소천(三所川·현재 제주시 용강동~삼양동 삼수천)’이다. ‘삼소천’은 세 지도 모두 표기돼 있다. ‘삼소천’ 서쪽에는 ‘삼릉천(三陵川·제주시 월평동~화북동 화북천)’이 보인다. 이 하천은 삼매양악(三每陽岳·제주시 아라동 세미양오름) 남쪽인 한라산 중턱에서 발원해, 이 오름 동쪽을 거쳐 ‘걸마로촌(鬃尔路村·제주시 아라2동)~고로포(古老浦·제주시 화북1동)’에 이른다. 또 ‘시사천(腮沙川·현재 조천)’, ‘방천(防川·제주시 영평동~제주시 화북동 방천)’, ‘별도천(別刀川·제주시 화북동 화북천 하류)’, ‘저천(猪川·제주시 영평동~제주시 화북동 방천)’이 표기돼 있다. ‘시사천’ 서쪽으로 ‘병문천(兵門川·제주시 오라동~용담동 병문천)’의 한 지류인 ‘독자천(獨子川·제주시 오라동~삼도동 병문천 합류점·현재 독자천)’이 표기돼 있다.

‘병문천(兵門川)’은 한라산에서 발원 ‘별랑포’에 이르는데, ‘독자천’ 서쪽에 표기돼 있다. ‘병문천(兵門川)’은 『제주삼읍전도』에는 ‘병문천(兵文川)’으로, ‘독자천

50) 오창명 앞의 책, 1998, 257쪽.

(獨子川)은 「제주삼현도」에는 '소용천(所用川)'으로 적고있다. '대천(大川)'은 한라산에서 발원, '오라호촌(吾羅好村·제주시 오라1동)을 거쳐 제주시 경승지인 '취병담(翠屏潭·제주시 용담1동 용연)' 아래 '대독포(大瀆浦·제주시 용담1동)'에 이른다.

'도골천(到骨川)'은 '장손악(獐孫岳·제주시 연동 노루손이오름)~'해안촌(海安村·제주시 노형동)~'도근천포(都近川浦·제주시 외도동)'에 이르는 하천이다. 현재 이름은 '도근천'이다. '도골천' 하류에는 '내도근천(內都近川)'이 표기돼 있다. '도골천'은 『제주삼읍전도』에는 '무수천(無愁川)'으로 표기돼 있다. '도골천' 서쪽에는 '수철천(水鐵川·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제주시 외도천 합류점·현재 제주시 광령천)'이 그 하류인 '외도근천(外都近川)'이 함께 표기돼 있다. 이 밖에 현재 금성천이 '정자천(亭子川)'과 '정자천(丁子川)'이 표기돼 있다. '정자천(亭子川)'은 '대천'과 함께 세 지도 모두 나온다.

「제주삼현도」에는 '선열악(先列岳·현재 제주시 연동 광이오름·'先'은 '光'의 오기인 듯)~'니포(泥浦·제주시 도두2동)'에 이르는 '니천(泥川·제주시 오라동~도두동 현재 흘천)'이 표기돼 있다. 또 '마두천(馬頭川·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한림읍 해안·현재 한림천)'과 '월계천(月溪川·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옹포리·현재 옹포천)'이 적혀 있다. '마두천'과 '니천'은 『제주삼읍전도』에도 표기돼 있다. '병풍천(屏風川)'은 '진목악(眞木岳·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천아오름)' 일대에서 발원, '유수암(流水岩·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검은데기오름)' 동쪽을 지나 '귀일포(貴日浦·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에 이르는 하천이다. 세 지도 가운데 『제주삼읍전도』에만 표기돼 있다. '병풍천'은 현재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하귀리 해안에 이르는 소왕천을 가리킨다.

『제주삼읍총지도』에 표기된 정의현 하천지명은 13개다. 정의현 동부에서 보면 제일 먼저 '청산천(靑山川)'이 표기돼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川尾川)'의 중류에 있는 하천이다. 한라산 동측사면에서 발원한 이 하천은 고지대 화산탄면을 거치면서 중산간 마을인 북제주군 구좌읍 교래마을과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마을을 휘돌아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까지 이어진다. 지도에는 한라산 동쪽에서 '녹산(鹿山·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대록산·소록산)~'궁산촌(弓山村·남제주군 표선면 성읍2리)~'영주산(瀛洲山·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일대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청산천' 아래엔 '개로천(蓋老川)'이 있고, 그 옆으로 '송천(松川)', '보모소천(浦毛所川·현재 가시천)', '토산천(兎山川)', '수망천(水望川·현재 남원읍 수망리 산내)'이 표시돼있다.

또 '화등천(火等川)'이 '수망촌(水望村·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을 돌아 '소열포(所悅浦·남제주군 표선면 세화2리)'로 흐르는데, '수망천' 곁에 표시돼 있다. 이 하

천의 현재이름은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태흥리의 '서중천'이다. '화등천' 서쪽으로 '사랑천(寺梁川)', '사랑천' 하류에는 '종목천(宗木川)'이 있는데, '사랑천'과 '종목천'의 현재 이름은 '종남천(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 종남천)'이다. '호촌천(弧村川)'은 '호촌포(弧村浦·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하례리)'로 이르는 하천인데, 현재 이름은 '신례천'이다. '호촌천' 곁으로 '영천천(靈泉川)'이 한라산 서벽과 남벽에서 발원, 서귀포 돈내코 계곡을 지나 '호촌망(弧村望·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예촌망)'에서 바다와 만나고 있다. 현재 이름은 서귀포시 상호동~하효동의 '효돈천'이며 이 하천이 품고 있는 지형지질적 가치가 커 제주남부지역 최고의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열천(牙列川)'은 '토평촌(土坪村·서귀포시 토평동)'을 지나 현재 정방폭포인 '정방연(正方淵)⁵¹⁾ 위로 흐르고 있다. '아열천'은 현재 서귀포시 동홍동~서귀동의 '동홍천'을 이른다. '서귀천(西皈川)'은 한라산 일대에서 발원, '쌍계암(雙溪岩·서귀포시 호근동 각수바위)'을 지나 서귀진 앞 바다로 흐르고 있다. '서귀천'은 현재 서귀포시 서홍동~천지동에 흐르는 '연외천'이다.

「제주삼현도」에는 '개로천(蓋老川)' '사랑천(寺梁川)' '보모소천(浦毛所川)' '토산천(兎山川)' '수망천(水望川)' 이 앞의 지도와 같이 표기돼 있으며, '서귀천(西皈川)'이 '홍로천(洪爐川)'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제주삼읍전도』에는 정의현 소속 하천은 그려져 있으나 그 이름은 표기돼 있지 않다.

『제주삼읍총지도』에 표기된 대정현 하천지명은 5개다. 서귀포시 방향에서 살펴보면 '어승생악(御乘生岳·제주시 해안동 어승생)' 남쪽에서 두 갈래로 발원, 서귀포시 '강정포(江汀浦·서귀포시 강정동)'로 빠지는 '대소가래천(大小加來川)'과 한라산에서 발원, '팔소장(八所場·서귀포시 소재 목장)'을 감싸고 내려와 '동해포(東海浦·현재 서귀포시 월평동)'에 이르는 '동해천(東海川)'이 표기돼 있다. '대소가래천'은 '대가래천'과 '소가래천'을 아울러 지칭한 것인데, 큰 하천은 도순천(서귀포시 하원동~서귀포시 강정동), 작은 하천은 약근천(서귀포시 강정동)을 가리킨다. '동해천'은 현재 서귀포시 대포동 회수천이다. '대소가래천'은 나머지 두 지도에는 '대

51) '정방연'에서 '연(淵)'을 '소'로 해석, '정방연'을 '정방폭포' 일대 바닷가를 이른다는 주장(오창명:1998)도 있으나, 현재 널리 불리는 '정방폭포'를 택했다. 옛 문헌에도 '정방연' 내용을 설명하면서 '폭포'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정방연'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정모연(正毛淵)'으로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산천)에는 "'정모소'는 정의현 서쪽 64리에 있다. 소가 깊다. 물을 대는 밭이 매우 많다(正毛淵, 在縣西六十四里, 深淵, 漑田甚多)."라고 기록했다. 『탐라지』와 『탐라순력도』 등에도 '정방연(正方淵)'을 소개했다. 『탐라지』(정의현, 산천)에는 "'정방소'는 정의현 서쪽 68리에 있다. 폭포가 있는데,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밭에 물을 대는 경우가 많다...(正方淵, 在縣西六十八里. 有瀑布. 引上流 多漑田...)"고 기록해 놓았다. 정방폭포 외에 천지연폭포나 천제연폭포의 경우도 이와 같이 분류함을 밝힌다.

가래천'과 '소가래천'으로 나뉘 표기돼 있다. '동해천'은 「제주삼현도」에는 나오지 않는다.

'성천(星川)'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 1번지에서 발원, '우부악(牛夫岳·서귀포시 색달동 우보름)' 동쪽을 거쳐 '천제담(天帝潭·현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폭포)'을 지나 '성천포(星川浦·서귀포시 중문동)'로 흘러가는 내이다. 현재 서귀포시 색달동 ~ 중문동의 중문천이다. '성천포' 동쪽에는 창고천이 '(창고)川'으로 표기돼 있다. '천(川)' 곁에 '창고천촌(倉庫川村·현재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이 있다. 이 하천은 한라산 1100도르변 '삼장동(三長洞·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삼형제오름)' 일대에 넓게 펼쳐진 고산습원에서 발원, '병악(竝岳·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 병악)'을 거쳐 '월내악(月乃岳·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월라봉)' 옆의 '범천포(犯川浦·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름도 창고천이다.

'사귀천(蛇鬼川)'은 '마급악(馬岾岳·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원물오름)'에서 '감남악(甘南岳·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감남오름)' 남서쪽으로 흘러 '사귀포(蛇鬼浦·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름은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다. '성천'은 나머지 두 지도에 동일한 표기로, '(창고)천'은 「제주삼현도」에 '창고천(倉庫川)', 『제주삼읍전도』에는 '범천(犯川)'으로 적혀 있다. '사귀천'은 나머지 지도에는 '차귀천(遮飯川·「제주삼현도」)' '차귀천(遮歸川·『제주삼읍전도』)'으로 각각 표기돼 있다.

세 지도에 표기된 현재 하천은 모두 25개다. 제주시가 삼수천, 삼릉천, 조천, 방천, 병문천, 독사천, 한천, 도근천, 광령천, 흘천 등 10개며, 서귀포시는 효돈천, 동홍천, 연외천, 도순천, 약근천, 회수천, 중문천 등 7개다. 북제주군은 교래천, 금성천, 한림천, 소왕천, 자구내 등 5개이며, 남제주군은 천미천, 송천, 가시천, 산내, 서중천, 종남천, 신례천, 창고천 등 8개다.

현재 제주도가 고시한 지방 2급 하천 22개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제주도의 하천은 60개의 지방 2급 하천과 83개의 소하천이 분포돼 있다. 이 가운데 60개의 준용하천은 지류하천을 포함한 숫자이며, 하류에서 하나의 하천으로 만나는 독립된 하천은 34개로 파악된다.

세 지도의 분석 결과, 제주의 하천은 제주도 남·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2). 이 같은 사실은 제주도의 지형지질과 관련이 있다. 제주도는 섬 중앙에 한라산이 위치, 하천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발산하는 방사상의 하계모양을 이룬다. 동·서부 지역은 남·북부 지역에 비해 사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비교적 평탄한 용암지대로 이뤄져 있다. 한라산의 주능선도 동서방향으로 나타나므로 제주도의 주요하천은 주로 남·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젊은 화산섬으로 화산 원지형이 잘 보존돼 있고, 침식이 얼마 진행되지 않은 유년기의 지형특성을 반영해 하천의 발달이 육지부에 비해 극히 미약하다.

하천 연장은 한라산 남북사면에서는 채 10km에 미치지 못하며,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도 약 25km에 지나지 않는다. 화산섬이어서 대부분 건천(乾川)에 속한다. 제주도의 하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乾川·dry stream)이다. 이는 제주화산도의 지형지질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주도의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현무암과 기생화산인 오름의 스킨리아(송이)는 지표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돼 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의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화산암류와 화산쇄설물은 투수력이 매우 좋음으로 인해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은 뛰어난 반면, 지표수를 차집해 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특징이 있다.

<표 12> 제주도 하천 분포도



<제주도청 홈페이지 자연생태관(2005년)>

이렇게 제주도의 하천은 타 지역의 하천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강을 이루고 있는 육지부의 하천 수로와 비교한다면 발원지 부근의 산악지역에서 형성되는 계곡과 그 형태가 비슷하다. 제주도의 하천은 여름철 집중호우시에 지하수의 과포화로 형성된 지표수와 상위용천수가 일시에 하천으로 물려들어 형성된 '내 터지는 현상'이 있다. 이는 결국 제주도의 하천계곡인 건천은 집중호우시에 한라산 고지대의 상류부에서 형성된 대량의 물을 하류인 바다로 급속하게 운반시켜 주는 배수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상시하천은 고지대 용천들이다. 제주시 한천 상류의 탐라계곡, 도근천 상류의 Y계곡, 도순천(강정천)의 발원지인 영실계곡과 효돈천 중상류의 돈내코 계곡과 백록계곡이 그것이다. 이들 하천은 상위 지하수의 하상용천으로 일부 구간 짧은 하천을 이루며, 예부터 선인들이 즐겨찾는 경승지이기도 했다. 제주시의 방선문과 용연은 한천으로 이어진다. 또 서귀포시의 3대 폭포인 천지연 폭포는 연의천, 정방 폭포는 동홍천, 천제연 폭포는 중문천에 이르며, 서귀포시의 돈내코 계곡은 효돈천으로 닿는다.

하천지명 가운데 ‘수(水)’는 11개, ‘수구(水口)’는 2개다. ‘수(水)’는 제주도 중산간에 있는 목장용 수처(水處)인데, 대부분 해당지역의 물 이름(5개)이나 ‘생수(生水·6개)’로 표기해 놓았다.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각 4개, 『제주삼읍지도』에 3개 표기돼 있다. 먼저 『제주삼현도』를 보자. ‘제주목’에는 북제주군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일대에 위치한 6소장의 수처가 ‘광제원평대(光濟院坪代·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소재 역원)’ 북쪽에 ‘생수’로 표기돼 있다. ‘정의현’에는 ‘횡산(橫山·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비치미오름)’ 남쪽에 ‘슬수(瑟水)’가 표시돼 있다.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미나리못’이다. ‘대정현’에는 ‘생수’가 2곳 표기돼 있다. 즉 ‘남송악(南送岳·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남송악)’과 ‘회려악(回麗岳·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돌오름)’사이, ‘우부악(牛夫岳·서귀포시 색달동 우보름)’ 북쪽에 표기돼 있다. 각 7소장과 8소장의 수처다.

『제주삼읍도총도』에는 ‘제주목’에 ‘배응별수(盃應別水)’와 ‘신고수(申古水)’ ‘생수(1곳)’가 표기돼 있다. 앞에서 밝혔듯 ‘배응별수’는 제주시에 위치했던 목장인 3소장의 수처 가운데 하나인 제주시 회천동 진폐기물로 추정된다. ‘신고수’는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5소장의 수처인데, 『제주삼읍전도』의 ‘가문악수(可文岳水)’와 동일위치에 표기돼 있다. ‘생수’는 ‘광제원평대’ 옆에 표기돼 있다. ‘정의현’에는 ‘슬수(瑟水)’가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지경의 말을 점검했던 장소인 ‘산마구점처(山馬驅點處)’ 동쪽에 표기돼 있는데, 『제주삼현도』의 ‘슬수’와 같다.

『제주삼읍전도』에는 ‘제주목’에만 3곳의 수처가 표기돼 있다. 앞서 밝힌 ‘가문악수’가 ‘고구산(高丘山·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큰녹고메·죽은녹고메)’ 북쪽에 표시돼 있고, ‘생수(2곳)’가 ‘기악(箕岳·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체오름)’ 북쪽과 ‘발산(鉢山·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발이오름)’ 동쪽에 표기돼 있다. 각 1소장과 6소장의 수처다.

‘수구(水口)’는 제주읍성내 ‘북수구(北水口)’와 ‘남수구(南水口)’가 나온다. 『제주삼총지도』에 유일하게 표기돼 있다. 이 수구는 명종 20년(1565) 곽홀(郭屹) 제주 목사(1565년 12월~1568년 6월 재임)가 만들었다. 1555년 을묘왜변 때 제주성을 방

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곽홀 목사가 동성(東城)을 동쪽 능선까지 물려쌓으면서 가락천과 산지천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가락천과 산지천에는 남쪽과 북쪽 수구(水口)에 무지개 다리를 만들었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선조 32년(1599) 성윤문(成允文)목사(1599년 3월~1601년 6월 재임)가 부임해 제주성을 고쳐 쌓았다. 남쪽 수구에는 겹무지개 다리를 놓고서 그 위에 제이각(制夷閣)을 세워 '남수각(南水閣)'이라 불렀고, 북쪽 수구에는 홀무지개 다리를 놓고 그 위에 죽서루(竹西樓)를 건립해 '북수각(北水閣)'이라 불렀다.

남·북수구 기록은 이원진의 『탐라지』(제주목, 성곽조)에도 나오는데, 곽홀 목사가 동쪽 성을 물려서 축조하고 남·북수구, 타첩 등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라) 해안지명

해안 항목에서는 '곶(串)'이 49개로 가장 많고, '두(頭)' '사(沙)' 등의 명칭이 함께 표기돼 있다. '곶(串)'은 바다 쪽으로 내민 땅의 끄트머리를 이른다. 바다 쪽으로 길게 내민 땅이라는 점에서 '반도(半島)'와 유사하지만 '반도'보다 면적은 좁다.

'곶(串)'은 「제주삼현도」에 18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15개, 『제주삼읍전도』에 16개 표기돼 있다. '남당곶(南堂串·제주시 화북1동 남당코지)'처럼 그 이름이 붙여진 곳은 20개며 나머지는 '곶(串)'으로만 위치를 표기해 놓았다.

이를 시·군 별로 보면, 북제주군이 33개로 가장 많고, 남제주군 9개, 제주시 7개다. 북제주군 가운데 구좌읍이 11개이며 한림읍이 8개, 애월읍이 5개다. 남제주군은 성산읍 4개, 남원읍이 3개로 두 지역에 집중돼 있다.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치면 '곶(串)'은 제주북부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제주동부에 일부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귀포시 등 제주 남부지역에는 표기가 돼 있지 않다.

'곶'의 분포도는 화산도인 제주지형과 관련이 있다. 제주의 화산활동은 시기가 이른데다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제주의 용암은 크게 아아용암(aa lava)와 파로이호이용암(paloehoe lava)로 나뉘는데, 전자를 곶자왓용암, 후자를 빌레용암이라 부른다. '곶'은 후자인 빌레용암과 관련이 있는데 용암이 넓고 멀리 흘러서 해안의 수심이 얕아 '곶'지형이 발달하게 됐다는 것이다. 북제주군 구좌지역과 한림지역에 '곶'이 발달한 이유다.

'두(頭)'는 제주시 용담1동 '용두암(龍頭岩)'⁵²과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

52)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산천조)』에는 “제주성 서쪽 5리에 있다. 북쪽 기슭은 바다에 닿아 있는데, 경사가 깎아지른 듯이 급하게 꺾여서 마치 용머리(龍頭)와 같다. 그 위는 평평하고 안온해서 앉을 수 있다. 그 앞에 있는 돌의 형세가 기이하고 괴상하다. 한 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용소(龍淵)와 포구, 어촌이 자못 아름답다.”고 쓰여 있다. 『남환박물』 경승 항목에는 “취병담 서쪽 단애에 있다. 바다에 임해 돌이 우뚝 솟았는데, 모양이 용의 머리와 같다. 높이가 10길은

를 지칭하는 ‘용두(龍頭)’의 명칭이 5개 쓰였다. 그 외에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아래 ‘사두(蛇頭·실체 판독 불명)⁵³⁾와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십지코지를 가르키는 ‘방두(方頭)’가 쓰였다.

‘사(沙)’는 오늘날 해수욕장을 말한다. 「제주삼현도」에는 북제주군 구좌읍과 조천읍 일대에 집중돼 있다. 구좌읍 김녕 해수욕장 일대와 조천읍 함덕리의 함덕 해수욕장이 포함된 곳이다. 제주서부지역으로 북제주군 애월읍 팍지리에 있는 팍지 해수욕장에 표기돼 있다. 남제주군 지역은 성산읍 성산일출봉 아래 해안가에 표시돼 있다.

『제주삼읍전도』에는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신양해수욕장 일대와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화순해수욕장 일대에 ‘사(沙)’의 표기가 보인다. 그러나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사(沙)’의 지명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밖에 해안 지명으로 ‘저생문(這生門)’과 ‘병구(瓶口)’가 표기돼 있다. ‘저생문’은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아래 바닷가에 있는 굴을 가르킨다. 이 이름은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탐라순력도』 중 「한라장축」에도 표기돼 있다.

‘병구’는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보이는 데, 성산일출봉 입구의 ‘터진목’을 말한다. ‘병구(瓶口)’는 ‘병목’의 한자 차자 표기로, 성산포로 들어가는 어귀가 마치 병의 목과 같이 생겼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전도』에도 성산일출봉 입구에 ‘치마로(鷗馬路)⁵⁴⁾ 혹은 ‘치조로(鷗鳥路)’로 보이는 명칭이 있으나, 현재 그 실체를 판독하기 힘들다. 그런데 동일한 위치에 표기된 것으로 보아 같은 명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마) 호소지명

호소(湖沼) 관련 지명은 35개로 많지 않지만 제주의 목장 수처로 그 중요성이 높은 편이다. 「제주삼현도」에 8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20개, 『제주삼읍전도』에 7개 표기돼 있다. 호소지명과 관련 접미사로 분류한 결과, ‘지(池)’가 27개, ‘담(潭)’이 7개, ‘연(淵)’이 1개다. 세 지도에 표기된 ‘지(池)’는 대부분 제주목장의 수처

되고 정상은 평평해 앉을 수 있다. 좌우에는 괴암(怪巖)이 많고 전복 캐는 것을 내려다 볼 수 있다.”고 묘사해 놓았다.

53) 오창명(1998:349~350)에 의하면 “‘사두(蛇頭)’는 ‘베염머리’의 한자 차용 표기다. ‘사(蛇)’는 ‘뱀’의 제주도 방언 ‘베염’의 훈독자 표기며, ‘두(頭)’는 ‘머리’의 훈독자이다. 뱀 머리와 닮았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설명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사두’가 무엇인지는 지칭하지 않았다.

54) 오창명(1998:478)에 의하면 “‘치마로(鷗馬路)’는 ‘소로기믈락’ 또는 ‘소레기믈락’의 차자 표기인데, 민간에서는 그런 음성형을 확인할 수 없다. 치(鷗)는 ‘소리개’의 제주도 방언 ‘소로기, 소레기’의 훈독자 표기, 마로(馬路)는 ‘믈락>믈르’의 음가자 결합표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로 활용됐다. 「제주삼현도」에는 6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17개, 『제주삼읍전도』에는 4개 표기돼 있다.

이를 상세히 나누면, 「제주삼현도」에는 1소장 1개(末子池), 4소장 1개(烈古池), 6소장 4개(池), 모동장 1개(池) 표시돼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1소장 3개(末川池, 馬削池, 有叱水池), 2소장 1개(鳥几池), 3소장 3개(小林池, 池2), 4소장 4개(池4), 5소장 2개(非木池, 准連池), 6소장 1개(巨害池), 7소장 4개(柳池, 東星池, 西星池, 池), 모동장 1개(院池)로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전도』에는 1소장 1개(馬中隱池), 4소장 1개(烈古池), 6소장 1개(巨害池), 모동장 1개(池) 표시가 돼 있다⁵⁵⁾. 『제주삼읍도총지도』의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 산마장 아래 ‘장담(長潭)’⁵⁶⁾을 포함하면 목장 수처는 20개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읍지(1780년대)』에 목장의 수처가 기록돼 있는데 각 목장의 수(水)를 포함한 수처다. 여기에는 1소장 4개, 2·3소장 각 5개, 4소장 11개, 5소장 18개, 6소장 8개, 9소장 7개, 10소장 6개, 산마장 13개 등으로 수록돼 있다.

이를 세 지도와 비교(표 13)하면 「제주삼현도」에는 모두 12개의 수처가 표기돼 있다. 1소장에 ‘말차지’와 ‘슬수(瑟水)’ 등 2개, 5소장에 ‘준연지’, 6소장에 ‘거해지(巨害池)’, 지(池) 4개와 ‘생수(生水)’ 1개 등 6개, 모동장에 ‘지(池)’가 그것이다. 또 7·8소장에 ‘생수’가 각 1곳 표시돼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모두 24개의 수처가 표시돼 있다. 1소장에 ‘말천지’ ‘마삭지’ ‘유질수지’와 ‘슬수’ 등 4개, 2소장에 ‘조래지’와 ‘장담’ 등 2개, 3소장에 ‘소림지’와 ‘배응별수(盃應別水)’ ‘지(池·2)’ 등 4개, 4소장에 ‘지(池)’ 4개로 표시돼 있다. 5소장에는 ‘준연지’ ‘비목지’ ‘신고수(申古水)’ 등 3개, 6소장에는 ‘거해지’와 ‘생수(1)’, 모동장에는 ‘원지’가 나와있다. 7·8소장에는 ‘생수’가 각 1곳 나와 있다.

『제주삼읍전도』에는 모두 7개의 수처가 표기돼 있다. 이를 목장별로 보면, 1소장에 ‘마중은지’와 ‘생수’ 등 2개, 4소장에 ‘열고지’, 5소장에 ‘가문악수(可文岳水)’, 6소장에 ‘거해지’와 ‘생수’ 등 2개, 모동장에 ‘지(池)’가 그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목장 수처는 제주 북동부 지역인 북제주군 구좌읍·조천읍과 북서부 지역인 애월읍과 한림읍·한경면 일대에 집중적으로 표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하천이 발달된 서귀포지역과 제주 동남부와 제주 남부지역에는 거의

55) 지(池)의 이름이 있는 경우는 독립적으로 파악했으나, 지(池)로만 표기된 경우는 시·군·읍·면 경계로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수는 이보다 많다.

56) 남도영(2001:191)에 따르면,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 인근에 있는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 진전천에 있는 있는 못인 ‘진소(진숫물)’와 송당초등학교 서북쪽에 있는 못인 ‘큰물’ 등이 우마에게 먹이를 주던 주요 수처였다고 밝혔는데, 이 장담(長潭)이 진소나 큰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처가 표기돼 있지 않다. 하천이 발달된 제주 남부지역의 경우 풍부한 수원을 얻을 수 있으나, 말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넓은 평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목장이 들어서기에는 썩 좋은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내 목장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북부지역에 1~6소장이 위치해 있고, 동남부 지역에는 성산읍 지역을 제외하고는 목장이 그리 발달돼 분포돼 있지 않다.

그밖에 호소관련 항목으로는 ‘연지(蓮池)’가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각 2곳 표시돼 있다.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도내봉(道內烽)’과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高內烽)’ 인근에 표기돼 있는데, 전자는 현재 애월읍 하가리 하가연못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연지도 인근에 목장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목장의 수처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표 13> 지도에 표기된 목장별 수처 이름

목장	『제주읍지』 수처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1소장	4곳	末子池, 瑟水	末川池, 馬削池, 有叱水池, 瑟水	馬中隱池.生水(1)
2소장	5곳		鳥几池	
3소장	5곳		小林池, 池(2), 盃應別水	
4소장	11곳		池(4)	烈古池
5소장	18곳	準連池	準連池, 非木池, 申古水	可文岳水
6소장	8곳	巨害池, 池(4) 生水(1)	巨害池, 生水(1)	巨害池, 生水(1)
7소장	표기 안됨	生水(1)	柳池, 東星池, 西星池, 池(1)	
8소장	표기 안됨	生水(1)		
9소장	7곳			
10소장	6곳			
산마장	13곳		長潭	
모동장		池(1곳)	院池	池(1곳)

호소항목의 지명 가운데 ‘담(潭)’은 ‘취병담(翠屏潭)⁵⁷⁾과 ‘백록담(白鹿潭)’이 세

57) 『남환박물』 경승 항목에는 “일명 ‘용추(龍湫)’라고도 하는데 제주(濟州) 서성(西城) 2리에 있다. 이는 한천(漢川) 하류이다. 양쪽 단애는 깎아지른 석벽이 수 십길 서 있다. 밑에는 청담(淸潭)이 있는데 길이는 수 백 칸이고 넓이는 백척이나 되며 수심은 또한 수 길이다. 가운데 농석(礮石)이 많고 두충(杜冲) 꺾(橋) 석류(石榴)가 양쪽 언덕에 나열돼 자라고 있다. 뱃놀이 하

지도에 모두 나오는데, '취병담'은 제주시 용담1동 용연일대 계곡이 병풍처럼 푸르름을 자랑하는 명소이며, '백록담'은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을 가리킨다. 『제주삼읍전도』의 경우 '취병담' 아래 '용연(龍淵)'을 별도로 표기해 놓았다.

(바) 평야지명

평야 항목의 지명은 모두 16곳이다. 세 지도 모두 '평대(坪代)'라고 쓰고 있는데, '넓은 벌판(들판)'을 뜻하는 제주방언 '벵디'의 차자표기다. 「제주삼현도」에 7개(제주목 4·정의현 1·대정현 2), 『제주삼읍도총지도』에 7개(제주목 4·정의현 1·대정현 2), 『제주삼읍전도』에 2개(제주목 2)가 표시돼 있다. '평대'는 일정 지역을 뜻하는 지명으로 쓰인 '원평대(院坪代·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 지명 '원벵디')' '종목평(宗木坪·북제주군 구좌읍 상도리와 종달리 경계 '종목벵디')' '굴평대(窟坪代·남제주군 성산읍 천미장 일대 지명 '굴벵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장 지대에 소재하고 있다.

세 지도에 표기된 평야 관련 지명은 모두 8개인데, '광제원평대(光濟院坪代)' '잠가전평대(暫可田坪代)' '은수평대(隱水坪代)' '독소평대(獨所坪代)' '차귀평대(遮飯坪代)' '원평대(院坪代)' 등이다.

'광제원평대'는 『제주삼읍도총지도』의 경우 '발산(鉢山·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큰 바리메)과 '효성악(曉星岳·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사이 목장수처(池, 生水), 목장문(瓮所梁)이 표기돼 있다. '잠가전평대'는 '괘악(机岳·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돛배오름)과 '산구음부리(山九音浮里·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굼부리)' 사이에 교래천을 끼고 표시돼 있다. '차귀평대'와 '독소평대'는 북제주군 한경면 6소장 일대, '은수평대'는 한라산 '이사랑악(伊士郎岳·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이스렁오름)과 '진목악(眞木岳·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천아오름), 이 일대 5소장 수처인 '비목지(非木池)' 등이 표시돼 있다.

이로 볼 때 세 지도의 '평대' 지명은 대부분 목장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말이나 소의 방목지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도영은 "'은수평대'는 현재 노로 오름, 붉은 오름, 삼형제 오름사이에 있는 해발 900~1000m의 평평한 땅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세 오름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 고산지대에서 볼 수 없는 평지가 펼쳐져 있어서 여름에 방목지대로 활용됐던 것 같다."⁵⁸⁾고 밝

기에 심히 적합하다."고 기록돼 있다. 이 문헌에 기록된 청담(淸潭)은 현재 용연을 가르키며, 이곳에서 밤 뱃놀이는 '용연야범(龍淵夜泛)'이라해 영주 12경(景)에 속한다. 근래 제주시와 제주동굴소리연구소가 '용연야범'을 모태로 현대화된 축제인 용연선상음악회를 열고 있는데, 2005년까지 모두 여섯 번 열렸다.

58) 남도영 앞의 책, 2001, 219쪽.

하고 있다.

(사) 기타지명

자연항목 가운데 기타 지명은 세 지도에 모두 55개 표기돼 있다. 「제주삼현도」에 13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31개, 『제주삼읍전도』에 11개 표기돼 있다.

기타 지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수(藪)’로 22개며, 용암굴, 폭포 등이 포함돼 있다.

‘수(藪)’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 『탐라지』와 『남환박물』 등에도 기록돼 있다. 『탐라지』와 『남환박물』에 각 10곳이 표기돼 있다. 지도에 표기된 수(藪)는 모두 13개.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1개, 북제주군 8개, 남제주군 4개다. 제주 동부와 서부, 북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제주시는 회천동 일대 ‘저목수(楮木藪)’가 표기돼 있다. 북제주군 8개로 구좌읍과 조천읍에 집중돼 있다. 구좌읍 김녕리 일대 ‘김녕수(金寧藪)’, 구좌읍 상도리 일대 ‘마마수(尔馬藪)’, 구좌읍 한동리 일대 ‘묘수(猫藪)’, 조천읍 선흘리 일대 ‘우장수(芋長藪)’, 조천읍 함덕리 일대 ‘우수(芋藪)’가 표시돼 있다.

북제주군 애월읍 어유리 일대에는 ‘뢰수(磊藪)’, 한림읍 월령리 일대 ‘현로수(玄路藪)’, 한경면 일대 ‘부수(腐藪)’가 보인다.

남제주군 지역으론 대정읍 동일리 일대 ‘세뢰수(細磊藪)’와 ‘서림수(西林藪)’, 안덕면 동·서광리 일대 ‘광수(廣藪)’, 안덕면 화순리 일대 ‘나수(螺藪)’가 표시돼 있다.

이로 볼 때 ‘수(藪)’는 북제주군 구좌읍과 조천읍, 남제주군 대정읍과 안덕면에 집중 표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지도 가운데 ‘수(藪)’를 입체감있게 표현한 「제주삼현도」를 보면 더욱 뚜렷하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녹두색으로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했는데 제주 북동부 지역인 구좌읍 조천읍 일대와 제주북서부 지역인 한경면 일대, 남서부지역인 대정읍 일대에 점점이 박혀있다.

‘수(藪)’의 명칭이 보이는 곳은 현재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꽃자왈’지대다. 이 곳은 제주 중산간 일대 자연림과 가시덩굴이 혼합식생한 큰 수풀지대다. 아직 학계에서 정확한 ‘꽃자왈’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꽃자왈이란 화산분출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분출돼 요철지형을 이루며 쌓여있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은 물론 보온·보습 효과를 일으켜 열대 식물이 북쪽 한계지점에 자라는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식물이 남쪽 한계지점에 자라는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이라는 것이다.⁵⁹⁾

59) 사단법인 꽃자왈 사람들, 2005, 『창립기념행사 자료집』, 24~25쪽.

자연 기타 항목에 ‘수(藪)’외에 ‘굴(窟)’, 폭포⁶⁰⁾, ‘천(泉)’ 등이 있다. ‘굴’ 지명은 ‘용생굴(龍生窟·현재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만장굴)’ ‘구룡굴(龜龍窟·제주시 화북1동 고래굴)’ ‘재굴(才窟·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협재굴)’⁶¹⁾ 등이 표기돼 있다. 폭포는 서귀포시 소재 천제연 폭포가 ‘천제담(天帝潭·『제주삼읍도총지도』)’과 ‘천지연(天池淵·『제주삼읍전도』)’로, 천지연폭포가 ‘천제연(天帝淵·『제주삼읍전도』)’으로, 정방폭포가 ‘정방연(正方淵·『제주삼읍전도』)’으로 표시돼 있다. ‘천(泉)’은 ‘사천(寺泉·제주시 봉개동 절물)’과 ‘산저천(山底泉)’⁶²⁾ 등 3개 표시돼 있다.

이 외에 자연 기타 지명으로 북제주군 구좌읍 비자림 일대가 ‘비자원(榰子園)’⁶³⁾으로 『제주삼읍전도』에 표기돼 있고, 산방산 아래 ‘암문(暗門)’과 ‘혈(穴)’이 『제주삼읍도총지도』에 표기돼 있다.

‘암문’과 ‘혈’은 바다와 인접해 그렸지만 『남환박물』의 ‘산방(山方·현 산방산)’ 관련 기록을 보면 이 곳임을 알 수 있다. 이 문헌에는 “산방은 대정 동쪽 10리에 있다. …전체가 모두 돌이며 사면이 절벽으로 험해 인적이 통하지 않고 오직 동쪽 한줄기 길이 있어 바위를 잡고 오른다. …산 남쪽 중앙에 석굴이 있는데 바윗집 같다. …이를 굴암(窟庵)이라 했다.”고 설명하면서 “그 남쪽에는 혈(穴)이 있는데 이를 암문(暗門)이라 한다. 양쪽 돌이 자연히 쪼개어져 1척 가량 구멍이 뚫렸는데, 깊이는 100척 가량이고 길이 또한 50여 척에 이른다. 그 북쪽에 큰 혈(穴)이 있는

60) 자연항목에 폭포항목으로 분류하기도 하나, 숫자가 많지 않아 자연 기타로 분류했다.
 61) 『남환박물』 경승관련 항목에 보면, “협재암(夾財巖)은 명월 서쪽 5리에 있다. 모양이 돌집 같은데 심히 궁륭(穹窿)한 모양을 했다. 위에는 백사(白沙)가 펼쳐져 있고 밑에는 큰 혈(穴)이 있다. 햇불을 쬐고 들어가면 넓이가 80보나 된다. 서북쪽에 또 굴이 두 개 있는데 이름을 소협재(小夾財)라고 한다…또 (세 굴에는) 석종유가 난다. 응결한 것이 흑 유소(流蘇)같기도 하고 흑은 마유(馬乳)같기도 하다. 아직 응결되지 않은 것은 똑똑 물방울이 떨어져 비와 같으므로 사람들의 의관을 적신다. 혈(穴)을 나서면 곧 사석(沙石)이 이뤄져 있는데, 대개 이는 피신처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62) 『남환박물』 지리관련 항목에 보면, “도내에는 감천(甘泉)이 없다. 백성들은 10리 내에서 떠나 마실 수 있으면 가까운 샘으로 여기고, 멀면 혹은 40~50리에 이른다. 물 맛은 짜서 참고 마실 수 없으나 지방민은 익어서 괴로움을 알지못한다. 외지인은 이를 마시면 곧 번번히 구토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병이 난다. 오직 제주의 가락천(嘉樂泉)은 성안에 있고 석혈(石穴)이 흑 용출하기도 하고 마르기도 한다. …제주 동성 안에 산저천(山底泉)이 있는데 석조(石槽)의 길이가 3칸이고 넓이가 1칸이다. 천맥(泉脈)이 사면을 따라 용출하며 물 맛이 극히 좋고 차갑다. …성안 3000여 호가 모두 여기에서 떠나 마시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없어서 마를 때가 없으니 실로 이는 서울 외에서는 드문 명천이다.”고 기록돼 있다.
 63) 이원진의 『탐라지』 토산조, 『남환박물』 지과조에 비자가 수록돼 있다. 또 『영조실록』, 영조 39년 3월 20일 정축조에 보면 진상품목의 하나였던 비판(榰板)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즉 제주에서 바치는 비자나무 판(榰板)을 정지케하라고 명하였다. 제주에서 해마다 비자나무 판 10부(部)를 바쳤는데, 재해가 든 해라 하여 5년을 한정하고 바치는 것을 정지케 한 것이다.

데 길이는 측량할 수 없으며 이름을 저승문(彼生門)이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2) 인문지명의 분석

제주도 전체 인문지명은 행정지명이 555개(24.3%)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교통지명 282개(12.2%), 경제지명 240개(10.5%) 군사지명 240개(10.5%)이며, 문화지명은 32(1.4%)로 매우 적은 편이다.

행정 영역에는 리명·군현·관청·외국지명 등이며, 군사 영역에는 진보·봉수·연대·성지, 교통영역은 포구·역원·도로 등이 해당된다. 경제 영역에는 목장·과원·창고 등이 포함되며, 문화영역에는 제단·정문(旌門)·사묘 등이 해당된다.

그렇다면 제주도 고지도에 인문 지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부 항목을 정리하면 <표14>와 같다.

<표 14> 인문지명 세부 항목 분류

구분	유형	내 용
인문	행정	리명(461) 방면(11)관청(12) 군현(21) 외국명(50)
	군사	진보(62) 봉수(73) 연대(102) 성곽(3)
	교통	포구(265) 기타(17·院9, 중화처3, 도로2, 站1, 津1)
	경제	과원(98) 목장(60) 梁(목장문·47) 피우가(10) 기타(25·창고5, 전답6, 목책시설4, 어염1 포함)
	문화	제단(9) 정문(8) 사묘(6) 문(3) 기타(6·학교2, 누대2, 불우1, 기타1)

(가) 행정지명

인문지명 가운데 가장 많은 항목은 행정 관련 지명이다. 행정관련 명칭 가운데 군현은 21개로 제주 삼읍의 제주목을 제외한 정의현(군), 대정현(군)이 나타나며, 도외의 군현으로 전남지역 강진, 영암, 진도, 해남, 장흥이 표기돼 있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군현은 제주목·정의현·대정현 3개 고을로 나누어져 있었다. 수령인 제주목에는 목사(정 3품), 정의·대정현에는 각각 현감(중 3품)이 파견됐다. 제주목에는 제주목사의 부관(副官)에 해당하는 판관(判官)이 파견됐다. 그러나 판관은 지방장관인 수령은 아니었다.

제주도에 목사가 파견된 것은 고려 충렬왕 21년(1295)부터 이뤄져왔으나, 『증보 문헌비고(권 19, 여지도 4, 군현연혁조)』에 따르면 제주목의 설치는 태조 6년(1397)때다. 당시 제주목은 제주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끝

임없는 중앙집권 정책에 따라 태종 16년(1416) 제주목 외에 정의현과 대정현이 신설되면서 제주도는 비로소 3읍의 체제를 갖추게 된다.

제주도의 지방행정은 면리제도(面里制度)의 정비를 제외한다면 조선전기의 행정 편제가 후기까지 유지됐다. 즉 수령이 파견되는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은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체제는 큰 변동이 없었다. 제주목에는 목사, 판관, 교수, 심약, 한학, 왜학 등이 파견됐고, 정의·대정현에는 현감, 훈도 등이 파견됐다. 그러나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직촌(直村)은 자치적인 향약조직으로 운영되다가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촌의 증가로 면리제도로 편성됐다.⁶⁴⁾

조선시대 면리제도는 조선조 초기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법전에 처음 구체화하는 시기는 조선 성종때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다. 즉 호전호적조(戶典戶籍條)에 보면 “서울이나 지방에는 5호로써 1통을 삼아서 통주(統主)를 두고, 지방은 5통마다 이정(里正)을 두며, 1면마다 권농관(勸農官)을 둔다.(지역이 넓고 호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수를 늘린다)”고 돼 있다. 즉 5호를 1통, 5통을 1리, 몇 개의 리를 합쳐서 1면을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와 비교하면 통은 반, 리는 통, 면은 리·동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법전에 규정된 면리제도가 전국의 말단 행정구역까지 시행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⁶⁵⁾

면리와 관련한 제주문헌을 보면 더욱 그렇다. 선조 26년(1601) 제주에 왔던 김상현의 『남사록』에 보면 본주인 제주목에 4면, 정의현에 5면, 대정현에 3면이 속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향약조에는 각각 27면(面)·5면(面)·3면(面)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 김석익의 『탐라기년(耽羅紀年·1918년)』에는 “광해군 원년(1608)에 판관 김치(金緻·1609년 3월~1610년 2월 재임)가 동서방리의 약정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그 주(註)에 면리(面里)는 본주에 중·좌·우 3면, 정의현에 중·좌·우 3면, 대정현에 좌·우 2면이라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김치 판관보다 45년 뒤에 편찬된 『탐라지』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두 문헌 모두 면의 이름이 표기돼 있지않아 그 면면을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이들 면이 『탐라지』처럼 향약조에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향약시행의 단위였을 것으로 보이며, 정비되기 이전 조선 초기의 면의 구실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정비된 면리제도가 제주도에 시행된 것은 효종 4년(1653) 이후라야 할 것이다.⁶⁶⁾

64) 김동진, 2000,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39쪽.

65) 이수건, 1994, 「조선초기 군현제 정비와 지방통치체제」,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조선후기 제주도의 면리제와 관련된 문헌은 정조 때(1780~1789) 간행된 『제주읍지(濟州邑誌)』와 부속 『대정현지(大靜縣誌)』, 『정의현지(旌義縣誌)』, 동왕 17년(1793) 간행된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헌종 때 제주목사인 이원조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등이다. 이들 문헌의 방리조에는 제주목에 중(中)·좌(左)·신우(新右)·구우(舊右) 등 4면, 정의현에 중·좌·우 3면, 대정현에 좌·우 2면 등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밝힌 대로 조선후기 제주도의 면리제 시행이 효종 4년(1653) 이후 정조 이전 어느 시기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헌종 초년까지 제주도의 면·리 편제는 9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 고종 원년(1864년) 정의·대정현이 군(郡)으로 승격되고, 고종 11년(1874년) 제주목의 좌면을 신좌면 구좌면, 정의군의 중면을 동중면과 서중면으로 나누었고, 대정군에는 중면이 신설돼 모두 12면이 됐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세 개의 제주 고지도에 표기된 마을이름은 모두 461개다. 그 중에서도 단연 행정관련 항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주삼현도」에는 제주목 108개, 정의현 42개, 대정현 25개 등 144개가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제주목 116개, 정의현 30개, 대정현 21개 등 167개가 나와 있다. 『제주삼읍전도』에는 제주목 83개, 정의군 42개, 대정군 25개 등 150개가 표기돼 있다. 이를 현재 4개 시·군 별로 정리하면 제주시가 117개(25.1%), 북제주군 193개(41.4%), 남제주군 102개(21.9%), 서귀포시 54개(11.6%)이다.

「제주삼현도」에는 제주시 45개, 북제주군 64개, 남제주군 24개, 서귀포시 11개의 마을관련 이름이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제주시 49개, 북제주군 68개, 남제주군 33개, 서귀포시 17개가 나오며, 『제주삼읍전도』에는 제주시 24개, 북제주군 60개, 남제주군 46개, 서귀포시 20개다. 이러한 마을 지명 수는 당시 군현의 위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현재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해당하는 제주목이 가장 많고, 정의현(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동부지역)·대정현(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서부지역) 순이다.

이들 마을 지명을 제주에서 조선후기 면리제도가 정비된 후 관련 문헌 정조 때 『제주읍지』를 기준⁶⁷⁾으로 살펴보자. 이 문헌에는 제주목·정의현·대정현에 3면 139리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즉 제주목에 중(25리)·좌(19리)·신우(22리)·구우

66) 고창석, 1991, 「조선초기 면리제상의 영평동」, 『영평마을』, 제주대 박물관, 17쪽.

67) 이 문헌은 『탐라지도병서(1709년)』을 모태로 제작된 「제주삼현도(1750년대)」, 『제주삼읍도총지도(1734~1754년)』, 『제주삼읍전도(1872년)』의 제작 연대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근접한 문헌으로 18~19세기 제주사회의 면리제의 시행을 살피는 자료로 적합하다고 본다. 이 문헌보다 앞서 제작된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總攬)』이 있으나 제주목에 관한 사항만 기록하고 있어서 비교 자료로 삼지 않았다. 이 책에는 제주목 3면 84리가 있는데, 중면 27리, 좌면 21리, 우면 36리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13리) 4면 79리가 있고, 정의현에는 중(12리)·좌(16리)·우(10리) 3면 38리, 대정현에 좌(10리)·우(12리) 2면 22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세 지도와 비교해 보면, 「제주삼현도」의 경우 제주목 중면 43개, 좌면 22개, 신우면 21개, 구우면 22개의 지명이 해당된다. 정의현에는 중면 9개, 좌면 9개, 우면 3개가 표시돼 있고, 대정현에는 좌면 8개, 우면 7개가 포함된다. 『제주삼읍도총지도』의 경우 제주목 중면 48개, 좌면 24개, 신우면 23개, 구우면 21개며, 정의현 중면 11개, 좌면 12개, 우면 7개, 대정현 좌면 11개, 우면 10개로 나타난다. 『제주삼읍전도』의 경우 제주목 중면 24개, 좌면 22개, 신우면 20개, 구우면 17개다. 정의군은 중면 15개, 좌면 16개, 우면 11개이며, 대정군은 좌면 10개, 우면 15개가 해당된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15>와 같다.

『제주읍지』에 표기된 마을이름을 반영한 비율을 보면, 1709년 제작된 『탐라지도병서』를 토대로 제작된 「제주삼현도」의 경우 98개로, 전체 지명수 144개의 68%에 해당한다. 18세기 전반 『제주삼읍도총지도』의 경우 119개로 전체 지명수 167개의 71.2%다. 『제주읍지』 이후 제작된 『제주삼읍전도』의 경우 125개로 전체 지명수 155개 중 125개로 80.6%로 가장 많이 표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삼읍전도』의 경우 면리제가 본격화한 이후 제작된 지도임에도 마을 분화가 이뤄져 실제 지도의 표기 비율과는 거리가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삼현도」의 경우 제주목 중면에는 제주목의 중심마을인 ‘일도리(一徒里)’ ‘이도리(二徒里)’ ‘삼도리(三徒里)’ ‘대독포리(大瀆浦里)’, 좌면의 ‘신촌리(新村里)’ ‘김녕리(金寧里)’ 등을 생략했다.

정의현의 경우 좌면 ‘오소리(吾召里·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중면의 ‘가시악리(加時岳里·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성읍리(城邑里·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우면의 ‘상효돈리(上孝敦里·서귀포시 상효동)’ ‘중효돈리(中孝敦里·서귀포시 상효동 일부)’ ‘하효돈리(下孝敦里·서귀포시 하효동)’ ‘보목리(浦木里·서귀포시 보목동)’ ‘토평리(吐坪里·서귀포시 토평동)’가 누락됐다.

대정현의 경우 우면 ‘하모슬리(下募瑟里·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상모슬리(上募瑟里·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등을 생략했으며, ‘상예래리(上猊來里·서귀포시 상예동)’ ‘하예래리(下猊來里·서귀포시 하예동)’ 등을 누락했다. 대부분 누락된 마을은 당시 규모가 큰 마을이었다. ‘일도리’ ‘이도리’ ‘삼도리’는 제주읍치의 중심마을이고, ‘성읍리’와 ‘하모슬리’ ‘상모슬리’는 모슬진이 설치됐던 군사 중심지였다. 또 ‘신촌’ ‘예래촌’ 등 고려시대 16현(縣)이 있을 때 명칭이 ‘현(縣)’이 설치됐던 곳이다. 이들 대촌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큰 마을이어서 지도에 표기하지 않아도 당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던 지명이었거나 이 지도가 『탐라지도병서(1709년 제작)』를 기본지도로 그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표 15> 『제주읍지』와 세 지도에 나타난 면리의 수

	제주읍지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중면	좌면			
제주목	중면	25리	43(20)	48(22)	24(24)
	좌면	19리	22(14)	24(18)	22(18)
	신우면	22리	21(20)	23(21)	20(19)
	구우면	13리	22(13)	21(13)	17(13)
	계	79리	108(67)	116(74)	83(71)
정의현	중면	12리	9(9)	11(11)	동중면 5(5) 서중면 10(7)
	좌면	16리	9(7)	12(10)	16(12)
	우면	10리	3(3)	7(7)	11(10)
	계	38리	21(19)	30(28)	42(34)
대정현	좌면	10리	8(6)	11(8)	10(9)
	우면	12리	7(6)	10(9)	15(11)
	계	22리	15(12)	21(17)	25(20)
	총계	139리	144(98)	167(119)	155(125)

*()안은 제주읍지에 해당되는 지명의 표시된 지명수임.

『제주삼읍도총지도』의 경우 제주목 중면의 ‘일도리’ ‘이도리’ ‘삼도리’는 「제주삼현도」와 같이 생략했다. 신우면의 ‘구엄장리(舊嚴莊里·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와 ‘중엄장리(中嚴莊里·북제주군 애월읍 중엄리) ‘신엄장리(新嚴莊里·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를 ‘구엄장리’와 ‘신엄장촌(新嚴莊村)’로 표기 마을분화 현상을 보인다. 「제주삼현도」에는 ‘엄장리(嚴莊里)’로만 표기돼 있는 것으로 보아, ‘엄장리’는 ‘신엄장촌’이 생기고, 다음 ‘중엄장리’로 다시 나뉘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현 중면의 ‘보한리(保閑里·남제주군 남원읍 태흥2리), 좌면의 ‘신달리(新達里·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일부) ‘고성리(古城里·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신양리(新陽里·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산양리(山陽里) ‘신흥리(新楓里·남제주군 성산읍 신흥리) 등을 「제주삼현도」와 같이 누락했고, 우면의 효돈마을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대정현의 경우 ‘동성리(東城里·남제주군 대정읍 인성·안성리)와 ‘서성리(西城里·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의 이전 마을명칭인 ‘읍외촌(邑外村·「제주삼현도」의 ‘읍촌(邑村))’, ‘범천리(犯川里·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와 ‘동수리(洞水里·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의 분리이전인 ‘동수촌(洞水村)’으로 표기돼 있다. 모슬진 일대는 ‘모슬촌(募瑟村),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마을 일대는 ‘감산촌(甘山村) 으로 표시했다. 서귀포시 예래마을 일대 3개 마을을 ‘예래촌(猓來村)’으로 표기했다.

그렇다면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나타난 마을 명칭과 『제주읍지』에 표기된 마을 명칭의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9면(面) 체제에 변화는 없으나, 정의현과 대정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변화가 눈에 띈다. 또한 제주목 역시 소폭의 마을 분화 현상이 보인다.

제주목 신우면의 경우 엄장마을 일대에 변화가 보인다. 즉 「제주삼현도」의 ‘엄장리’가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구엄장리’와 ‘신엄장촌’으로, 『제주읍지』에는 ‘구엄장리’ ‘중엄장리’ ‘신엄장리’로 마을분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목에 비해 정의현과 대정현의 마을 분화는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을 수가 늘어 새로운 마을 명칭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정의현의 경우 10개의 기존 마을에서 분리돼 신설됐다. 중면의 ‘보한리’가 새로 보이며, 좌면의 ‘종달촌(終達村)’이 ‘종달리(終達里)’와 ‘신달리’로 나뉘었다. 신우면의 ‘고성리’가 ‘고성리’ ‘신양리’ ‘산양리’, ‘궁산촌’이 ‘궁산리’와 ‘성읍리’로 분리됐다. 또 신우면에 ‘신평리’의 명칭이 새로 등장했으며, ‘천미촌(川尾村·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와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일대)’이 ‘하천미리(下川尾里)’와 ‘신천미리(新川尾里)’ 등으로 분리됐다.

우면의 경우 ‘상효돈촌’ ‘하효돈촌(이상 『제주삼읍도총지도』)’이 ‘상효돈리’ ‘중효돈리’ ‘하효돈리’로 분리됐다. ‘중효돈리’가 ‘상효돈촌’ 일부에서 독립된 것이다. ‘홍로촌(洪爐村·서귀포시 동홍동·서홍동)’이 ‘동홍로리(東烘爐里·서귀포시 동홍동)’와 ‘서홍로리(西烘爐里·서귀포시 서홍동)’로 분리됐다.

대정현의 경우 6개의 마을 명칭이 새로 등장한다. 우면의 경우 『제주삼읍도총지도』에서 밝혔듯, ‘읍촌(읍외촌)’이 ‘동성리’와 ‘서성리’로, ‘동수촌’이 ‘범천리’와 ‘동수리’로, ‘감산촌’이 ‘감산리(柑山里)’와 ‘통천리(通泉里)’, ‘모슬촌’이 ‘하모슬리(下募瑟里)’와 ‘상모슬리(上募瑟里)’로 분리됐다. ‘예래촌’은 ‘상예래리(上猓來里·서귀포시 상예동)’ ‘하예래리(下猓來里·서귀포시 하예동)’ ‘성산리(城山里·서귀포시 상예동 북쪽마을)’로 분화됐다.

18세기 말에 이러한 마을 분화 현상이 나타난 것은 18세기 초 제주 고지도 「탐라순력도」와 비교하면 더욱 심화됐다. 18세기 초 제주목은 읍내 3리를 포함 동면 34리, 서면 23리, 남면 5리 등 3면 95리였다. 『제주읍지』와 비교하면 동면이 좌면, 서면이 구우면과 신우면으로 분리됐고, 남면의 5개리와 동·서면에 포함된 일부 마을이 흡수돼 중면으로 확대개편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면은 4면으로 증가했으나, 리는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95리에서 79리로 축소됐다.

제주목의 호수도 7319호에서 6992호로 감소했는데, 정의현과 대정현을 비교할 때 대조를 보인다. 이는 영·정조 때 극심한 흉년 때문에 인구가 감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다. 흉년의 피해가 제주목에 집중됐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것은 당시 여러 가지 제주사회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의현과 대정현으로 인구유입 등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⁶⁸⁾

정의현은 18세기 초 읍내 1리를 포함, 동면 10리, 서면 12리 등 2면 23리 체제였다. 민호는 『탐라순력도』에 1436호로 기록돼 있다. 18세기 말 정의현은 동·서면이 좌·우면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중면이 신설됐음을 『제주읍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마을 수가 23리에서 38개리로 15리나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인구도 1436호에서 2325호로 증가했다. 마을의 분화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18세기말 대정현 역시 행정체제의 개편이 활발히 이뤄졌다. 숙종 28년(1702) 읍내 1리, 동면 9리, 서면 2리 등 모두 12리였던 마을이 좌·우면 22리로 확대됐다. 민호 역시 797호에서 1704호로 900여 호 이상 증가했다. 대정현의 읍내 1리도 동성리와 서성리로 마을분화 과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읍지』에 나타난 18세기말 제주삼읍의 면리편제와 호구 상황은 <표 16, 17, 18>과 같다.

<표 16> 『제주읍지』에 나타난 18세기 말 제주목의 면리편제 및 호구⁶⁹⁾

① 中面 25里

里名	距離(單位:里)	戶	人口	戶當人口數
一徒里	城中	351	1,890	5.38
二徒里	城中	282	1,466	5.20
三徒里	城中	337	1,670	4.96
健入浦里	동2	69	339	4.91
道路里	남5	40	239	5.98
吾等生里	남8	35	195	5.57
我羅好里	*	*	217	*
別刀里	동10	*	441	필자산출
訖里	동15	91	514	5.65
道連坪里	동남3	36	216	6.11
細隱刷里	동남15	44	230	5.23
別羅花里	동남11	66	378	5.79
奉盖岳里	동남12	95	515	5.42
上無等川里	동남13	45	263	5.84
下無等川里	동남10	62	360	5.81
大獨浦里	서2	52	341	6.56

68) 김동진 앞의 논문, 2000, 46쪽.

69), 70), 71) 김동진 앞의 논문, 2000, 43~45, 57~58, 60~61쪽. 이 표에는 김동진의 논문에 구분된 남녀 인구수는 수록하지 않았다.

吾羅好里	서남5	44	229	5.20
井室岩里	서남10	36	183	5.17
蓮洞里	서남17	34	201	5.91
老衡里	서남18	73	553	7.58
道頭里	서15	95	739	7.78
內都近川里	서19	45	391	8.69
外都近川里	서20	44	302	6.86
都坪代里	서남18	55	290	5.27
伊生里	서남28	65	372	5.72
計		*	12,534	*

② 左面 19里

里名	距離(單位:里)	戶	人口	戶當人口數
新村里	동20	187	1,082	5.79
泉味里	동21	36	178	4.94
臥乎屹里	동남22	30	197	6.57
大訖里	동남25	47	309	6.58
橋來里	동남30	86	372	4.23
臥乎山里	동남22	86	471	5.48
朝天里	동30	168	1,027	6.11
咸德里	동35	110	799	7.26
北浦里	동40	84	571	6.80
先訖里	동남35	49	326	6.65
金寧里	동50	161	1,248	7.75
無注浦里	동57	49	421	8.59
於等浦里	동67	99	631	6.37
怪里	동70	86	576	6.7
坪代里	동73	120	843	7.03
下道衣里	동80	88	820	9.31
上道衣里	동80	88	575	6.53
細花里	동81	91	825	9.07
松堂里	동남60	136	780	5.74
計		1,801	12,051	6.71

③ 新右面 22里

里名	距離(單位:里)	戶	人口	戶當人口數
上貴日里	서27	40	239	5.78

下貴日里	서25	75	428	5.71
光令里	서남22	68	390	5.74
有信洞里	서남25	32	133	4.16
舊嚴莊里	서32	38	218	5.74
中嚴莊里	서33	64	355	5.55
新嚴莊里	서34	25	137	5.48
長田里	서21	36	213	5.92
古城里	서남26	27	143	5.30
水山里	서30	72	365	5.07
今勿德里	서남38	103	610	5.92
牛路里	서남30	33	264	8.00
高內里	서40	46	278	6.04
涯月里	서45	41	352	8.59
上加樂里	서남40	43	279	6.49
下加樂里	서남40	45	200	4.44
納邑里	서남45	126	612	4.86
夫面里	서남52	63	305	4.84
於音非里	서남52	58	337	5.81
郭支里	서50	82	548	6.68
於道內里	서남50	79	577	7.30
毛瑟浦里	서54	49	351	7.16
計		1,245	7,334	5.95

④ 舊右面 13里

里名	距離(單位:里)	戶	人口	戶當人口數
歸德里	서54	71	341	4.80
召隱貴林里	서60	21	110	5.24
潛水浦里	서62	86	409	4.76
大林里	서61	140	678	4.84
水流川里	서70	159	890	5.60
牛叱屯里	서남71	62	315	5.08
獨浦里	서70	86	513	5.97
俠才里	서75	88	588	6.68
楮旨里	서85	166	1023	6.16
造乎水里	서87	97	568	5.86
板浦里	서85	80	442	5.53
頭毛里	서90	189	1,123	5.94
今勿岳里	서남73	75	463	6.17
計		1,320	7,463	5.65

<표 17> 「제주읍지」에 나타난 18세기말 정의현의 면리편제와 호구⁷⁰⁾

面名	里名	距離(單位:里)	戶	人口	戶當人口數
中面	表先里	南17里	74	575	7.77
	細花里	南15里	77	448	5.82
	兎山里	西15里	88	610	6.93
	加時岳里	西13里	87	488	5.95
	安坐岳里	西13里	43	242	5.63
	水望里	西25里	31	203	6.55
	東衣貴里	西28里	47	373	7.94
	西衣貴里	西30里	31	185	5.97
	保閑里	西23里	19	93	4.89
	火等里	西35里	36	209	5.81
	又尾里	西40里	116	780	6.72
	狐村里	西45里	49	327	6.67
	左面	終達里	東30里	42	240
新達里		東30里	33	225	6.82
力石乙里		東30里	79	521	6.59
吾召里		東30里	67	552	8.24
古城里		東30里	69	455	6.59
新陽里		東30里	67	368	5.49
山陽里		東25里	56	325	5.80
弓山里		北10里	23	103	4.48
城邑里			165	872	5.28
難山里		東20里	58	355	6.12
與溫里		東25里	95	591	6.22
新山里		東南18里	48	282	5.86
三達里		南10里	30	180	6.00
新楓里		南10里	47	280	5.96
下川尾里		南13里	51	312	6.12
新川尾里		南15里	19	114	6.00
右面		上孝敦里	西50里	29	158
	中孝敦里	西50里	68	417	6.13
	下孝敦里	西50里	101	627	6.21
	浦木里	西55里	52	333	6.40
	吐坪里	西60里	59	374	6.34
	東烘爐里	西65里	60	353	5.88
	西烘爐里	西68里	52	346	6.65
	西歸里	西70里	49	292	5.96
	好近里	西80里	85	492	5.79

	法還里	西85里	123	808	6.57
3	38		2,325	14,406	6.20

<표 18> 『제주읍지』에 나타난 18세기 말 대정현 면리편제와 호구기

面名	里名	距離(單位:里)	戶	人口	戶當人口數	
右面	東城里		123	595	4.84	
	今勿路里	東5里	75	436	5.82	
	自丹里	北15里	59	228	3.86	
	犯川里	東13里	45	223	4.55	
	洞水里	東13里	44	205	4.66	
	柑山里	東15里	61	338	5.54	
	通泉里	東15里	43	229	5.33	
	西城里		95	394	4.15	
	下摹瑟里	南10里	118	668	5.66	
	日果里	西10里	129	677	5.25	
	頓浦里	西20里	36	206	5.72	
	上摹瑟浦里	南10里	145	761	5.25	
	左面	倉川里	東20里	85	461	5.42
		上貌來里	東20里	60	300	5.00
下貌來里		東25里	82	443	5.40	
城山里		東28里	47	212	4.51	
塞達里		東30里	37	159	4.30	
中文里		東35里	154	734	4.77	
大浦里		東35里	75	298	3.97	
下院里		東40里	44	212	4.82	
石宋里		東42里	51	224	4.39	
江汀里		東47里	96	456	4.75	
2면		22리		1,704	8,275	4.86

18세기 말 『제주읍지』와 고종 원년(1864) 대대적인 행정개편 이후에 제작된 『제주삼읍전도』의 행정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표 19, 20, 21> 참조.

제주목의 경우 중·좌·신우·구우 4면 79리에서 중·좌·신우·구우 4면에 83리로 마을 수가 늘었다. 정의현과 대정현의 경우 ‘현(縣)’에서 ‘군(郡)’으로 승격됐을 뿐 아니라 면리 체제도 확대 개편됐다. 정의지역의 경우 정의현 중·좌·우 3면 38리에서 정의군 동중·서중·좌·우 4면 42리로 확대 개편됐다. 중면이 동중

면과 서중면으로 분리됐고, 일부 마을이 신설됐다. 대정지역의 경우 대정현 좌·우 2면 22리에서 대정군 좌·우·중 3면 25리로 확대됐다.

지도의 표기 내용도 달라졌다. 『제주삼읍전도』는 앞의 두 지도와 달리 방리체제를 확실히 지도에 표기했다. 각 면에 소속된 행정단위 마을을 선으로 연결하고, 마을 수를 표기해 놓았다. 지도에 표기된 마을을 일일이 세지않더라도 그 기록만 보고 소속 마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를 테면 제주목의 경우 '좌면 이십이동(左面二十二洞)'이라고 표기해 좌면의 마을 수가 22개임을 밝혔다. 이 지도에 표기된 방면(方面)의 수는 모두 11개다. 군현별로 보면 제주목·정의군 각각 4개, 대정군 3개다.

마을이름도 '촌(村)'과 '리(里)'가 혼재하던 양상을 보이던 앞의 두 지도와 달리 '리(里)'로 정비됐다. 마을이름 표기도 한층 간소화됐다. 이를 테면 '오등생리(吾等生里)'가 '오등리(吾等里)', '내도근천리(內都近川里)'가 '내도리(內都里)'로 표기한 것이다.

면리체제의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삼읍전도』에 표기된 제주목의 동리는 중면 24리, 좌면 22리, 신우면 20리, 구우면 17리 등 4면 83리다. 『제주읍지』와 비교할 때 면체제는 변동이 없으나, 마을 수는 79개리(중면 25리, 좌면 19리, 신우면 22리, 구우면 13리)에서 4개 마을이 늘었다.

제주읍치의 중심인 제주목의 중면은 '정실암리(井室岩里·제주시 오라동 정실마을)'이 '오라호리(吾羅好里·제주시 오라동)'로 통합됐고, '세은쇄리(細隱刷里)'와 과거 좌면의 '천미리(泉味里·제주시 회천동 동회천 마을)'를 '세천리(細泉里)'로 합쳤다. 따라서 중면의 마을 수는 25개에서 24개로 축소됐다.

좌면은 기존 마을에 '변막리(邊幕里·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별방리(別防里·북제주군 구좌읍 상도·하도리)' '상도리(上道里·북제주군 구좌읍 상도리)' '우도(牛島·북제주군 우도면)' 등 4개 마을이 늘어 19개리에서 22개리로 확대됐다. 즉 제주동부지역의 방어 중심지인 별방진(別防鎭)일대 마을 분화가 심화됐음을 알 수 있다.

신우면은 '신덕리(新德里·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한 마을)'가 신설됐고, '고성리(古城里·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우로리(牛路里·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모슬포리(毛瑟浦里·북제주군 애월읍 금성리)'간 인근마을로 통합됐다. 따라서 마을 수는 22개에서 20개로 줄어들었다. 마을이름도 광령리(光令里·북제주군 애월읍 광령1리)와 '유신동리(有信洞里·북제주군 애월읍 광령2리)'가 '동광리(東光里)'와 '서광리(西光里)'로 바뀌었다.

구우면은 13개 마을에서 17개 마을로 증가했다. 제주서부지역 요새였던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진 일대 '수류천리(水流川里·한림읍 명월리)'와 '우질둔리(牛叱屯里·한림읍 상명리 일부)'가 '서명리(西明里·한림읍 명월리)' '동명리(東明里·한림

읍 동명리) '효동리(孝洞里·한림읍 상명리 일부)'로 나누어졌다. 18세기 초 명월진 주변의 '진근촌(鎭近村)' 일대가 '동명리' '수류천촌(水流川村)' 과 주변 '피문촌(皮文村)'을 합해 '서명리', '우질둔리'가 '효동리'로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⁷²⁾. 명월진 일대외에 '배령리(盃令里·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청수리(淸水里·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신두모(新頭毛·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가 새롭게 행정단위의 마을로 인정됐다. '청수리'는 '저지리(楮旨里·북제주군 한경면 저지리)'에서 분리된 것이며, '신두모'는 '두모리(頭毛里·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일대 새로 생긴 두모마을이라는 뜻으로, 차귀진이 소재한 한경면 고산리를 가르키는 마을이름이었다.

『제주삼읍전도』 정의군에 표기된 마을은 동중면 5개리, 서중면 10개리, 좌면 16개리, 우면 11개리 등 4면 38개리다. 『제주읍지』와 비교할 때 중·좌·우 3면이 4개면으로 분화했다. 마을 수도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늘었다.

동중면과 서중면에는 5개리와 10개리가 표기돼 있다. 『제주읍지』의 중면(마을 수 12개)에 해당한다. 동중면은 현재 남제주군 표선면 지역이며, 서중면은 현재 남제주군 남원읍 지역이다. 동중면은 '표선리(表善里)' '세화리(細花里)' '가시리(加時里)' '안좌리(安坐里·가시리 일부)' '토산리(兎山里)' 등 5개리인데, '안좌리'를 제외하고 현재 행정명칭 그대로다. 『제주읍지』와 비교하면, '세화리'와 '토산리' '표선리'는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한자 표기상 '표선리(表先里)'가 '표선리(表善里)'로 바뀌었다. '가시리'와 '안좌리'는 '가시악리(加時岳里)' '안좌악리(安坐岳里)'로 표기돼 있다.

서중면은 '온천리(溫川里·남원읍 신흥리)'가 '토산리'에서 분화돼 신설 행정단위 마을로 편입됐고, '동의귀리(東衣貴里)'와 '서의귀리(西衣貴里)'가 '의귀리(衣貴里·남원읍 의귀리)' '동의리(東衣里·남원읍 의귀리 일부)' '서의귀리(西衣貴里·남원읍 남원리)' 등 세 마을로 나뉘었다. '호촌리(弧村里·남원읍 신례리·하례리)'가 '예촌리(禮村里)'로 이름을 바꾸고 '오지리(梧旨里)'로 분화됐다. 따라서 옛 정의현 중면은 3개리가 늘어난 것이다.

좌면은 마을 수가 16개로 변화는 없으나, 마을 통폐합을 통한 행정개편은 이뤄졌다.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終達里)'와 '신달리(新達里)'가 '중달리', 남제주군 성산읍 '궁산리(弓山里)'와 '성읍리(城邑里)'가 '성읍리'로 통합됐다. 대신 '난산리(難山里·성산읍 난산리)'가 '동난산리(東蘭山里·성산읍 난산리)'와 '서난산리(西蘭山里·성산읍 난산리)'로 나뉘었다. '산양리(山陽里)'는 일대 한 마을로 통합돼 마을 이름이 사라졌다. '하천미리(下川尾里·성산읍 신천리)'와 '신천미리(新川尾里·표선면 하천리)'가 '신천리(新川里)'와 '하천리(下川里)'로 이름을 바꾸었다.

우면의 경우 서귀포시 효돈 일대 '신효리(新孝里·서귀포시 신흥동)'가 신설돼,

72) 오창명의 앞의 책, 1998, 340~342쪽.

마을수는 1개 늘어나 11개가 됐다.

『제주삼읍전도』에 표기된 대정군의 당시 마을은 좌면 9개리, 중면 7개리, 우면 9개리 등 3면 25개리다. 『제주읍지』의 좌면 10개리, 우면 12개리와 비교할 때 1개면과 3개리가 증가했다. 현재 이곳은 서귀포시와 대정읍·안덕면 일대다.

좌면의 경우 10개리에서 9개리로 줄었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이다. 그 변화를 살펴 보면, ‘창천리(創川里·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가 ‘중면’으로 옮겨졌다. 서귀포시 상예리 북쪽 마을인 ‘성산리(城山里)’가 ‘상예리(上猊里)’로 통합됐고, 색달리 인근에 ‘회수리(回水里·서귀포시 회수동)’가 신설됐다.

신설된 중면은 안덕면 지역인데, 모두 7개리다. ‘사계리(沙溪里)’ ‘덕수리(德修里)’ ‘화순리(和順里)’ ‘감산리(甘山里)’ ‘창천리(倉川里)’ ‘통천리(通泉里·현재 감산리)’ ‘광청리(光淸里·현재 서광리·동광리)다. ‘범천리(犯川里)’와 ‘동수리(洞水里)’가 ‘화순리’로 통합됐고, ‘자단리(自丹里)’가 ‘광청리’로, ‘금물로리(今勿路里)’가 ‘사계리’로 이름을 바꾸었다.

우면은 대정읍 지역인데 9개리가 표기돼 있다. ‘영락리(永樂里)’와 ‘무릉리(武陵里)’ ‘신평리(新坪里)’ 등 3개 마을이 신설됐고 ‘돈포리(頓浦里)’가 ‘도원리(桃源里·현재 신도리)’, 대정현성 일대 ‘서성리(西城里)’가 ‘보성리(保城里)’로 이름을 바꾸었다.

세 지도와 『제주읍지』에 표기된 마을 변화를 종합하면,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주목 신우면의 ‘엄장리’가 ‘구엄리’와 ‘신엄장촌’으로 분화된 것만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주삼읍도총지도』에서 1789년 『제주읍지』의 마을 변화의 폭이 적지 않다. 인구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마을 분화 현상이 가속화 하고 있다. 제주목 보다는 정의현과 대정현에 그 변화가 크다. 제주목은 광령촌과 구엄리 일대의 3개 마을이 5개 마을로 나뉘었다. 반면 정의현은 7개 마을에서 14개 마을로 분화되는데, 종달촌, 고성리, 궁산촌, 와강촌, 천미촌 5개 마을이 11개 마을로 분화되며, 효돈마을 일대에 증효돈리가 신설되고 있다. 대정현은 5개 마을이 11개 마을로 분화됐다. 즉 대정현성 일대 읍외촌을 비롯해 동수촌, 감산촌, 모슬촌이 각각 2개 마을로 나뉘며, 예래촌의 경우 3개 마을로 나뉘져 공식 행정마을이 3개로 늘었다.

1793년 『제주읍지』와 1872년 『제주삼읍전도』의 경우는 마을 통폐합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1864년 대대적인 행정개편에 따른 정의·대정 두 현의 군(郡)으로의 승격, 그리고 한층 심화된 면리체제의 정립 때문으로 보인다.

변화의 폭이 제주목보다는 정의군과 대정군에서 더 크다. 제주목의 경우 신우면에 고성리와 모슬포리가 공식 행정마을 이름에서 사라졌다. 정의군은 중면이 동중면과 서중면으로 나뉘어 4개면(동중·서중·좌·우면)으로 확대됐고, 마을 수도 늘고 있다.

동중면에 현재 남제주군 표선면의 5개 마을이 소속되고, 서중면에는 현재 남제주군 남원의 기존 7개 마을에 3개 마을이 신설돼 10개 마을을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정의군 우면에는 효돈마을에 신희리가 신설됐고, 좌면은 성읍리 하천리 종달리 고성리의 마을이 9개 마을이 5개 마을로 통합됐고, 난산리가 동·서 난산리로 분화됐다.

대정군의 경우 좌·우면 체제에서 중면이 신설돼 3개 면이 됐으며 마을분화가 심화됐다. 우면의 경우 중면과 우면으로 나뉘어 중면에는 기존 좌면의 창천리가 옮겨와 7개리를 만들었는데, 현재 남제주군 안덕면이다. 우면에는 기존 우면 소속 마을에 현재 남제주군 대정읍 일대 영락리 등 3개 마을이 신설, 10리를 만들었다. 좌면의 경우 서귀포시 상예리의 한 마을인 성산리가 사라져, 10개 마을에서 9개 마을로 줄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8세기 중·후반 제주지역은 정의현과 대정현을 중심으로 행정체제가 정비가 크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19세기 말에는 면리체제가 확고히 정비되면서 마을통폐합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 당시 면(面)의 구분이 현재 제주도의 읍면을 가르는 큰 획이 됐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마을이름의 표기와 관련지어 보면 『제주읍지』의 경우 마을 이름을 모두 ‘리(里)’로 표기했으나, 세 지도에는 ‘촌(村)’과 ‘리(里)’ 지명 외에 기타의 이름도 나온다. 이는 면리제의 시행과 실제 지도상의 표기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지도 제작의 주체가 당시 행정관청임을 고려하면, 지도제작이 앞서 제작된 자료를 토대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의 경우 마을 이름에 ‘리(里)’보다는 ‘촌(村)’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 「제주삼현도」는 ‘촌(村)’ 108개, ‘리(里)’ 22개며, 『제주삼읍도총지도』의 경우 ‘촌(村)’ 135개, ‘리(里)’ 23개가 표시돼 있다. 반면 면리제가 정착되고 행정개편이 이뤄진 뒤 제작된 『제주삼읍전도』의 경우 ‘우도(牛島)’의 명칭을 제외하곤 154개 마을 명칭이 모두 ‘리(里)’로 표기돼 있다.

<표 19> 18~19세기 제주목의 면리편제 변화

① 中面 25里

제주읍지	거리(단위:里)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中面	一徒里	城中		一徒里
	二徒里	城中		二徒里
	三徒里	城中		三徒里
	健入浦里	동2	山之村	巾入村
				健入里

道路里	남5	道老里村	道老老村	道路里
吾等生里	남8	吾等生里	吾等生里	吾等里
我羅好里	*	我羅好村	我羅好村	我羅里
別刀里	동10	別刀村	別刀村	別刀里
訖里	동15	所訖村	鋤訖村	所訖里
道連坪里	동남3	道連坪村	道連坪村	道連里
細隱刷里	동남15	細刷村	細隱刷村	細泉里
別羅花里	동남11	別羅花里	別羅花里	別羅里
奉盖岳里	동남12	奉盖岳里	奉盖岳里	奉盖里
上無等川里	동남13	上無等川村	上無等川村	上無里
下無等川里	동남10	下無等川村	下無等川村	下無里
大獨浦里	서2		大瀆村	大獨里
吾羅好里	서남5	吾羅好村	吾羅好村	吾羅里
井室岩里	서남10	道内山里	道内山里	
蓮洞里	서남17	延洞村	延洞村	延洞里
老衡里	서남18	老兄村	老兄村	老兄里
道頭里	서15	泥浦村 ⁷³⁾	道道村	道頭里
内都近川里	서19		泥浦村	内都里
外都近川里	서20	水淨村	水淨村	外都里
都坪代里	서남18	都坪代	坪代	都坪里
伊生里	서남28	利生村	伊生村	利生里

計

② 左面 19里

제주읍지	거리(단위:里)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左面 新村里	동20		新村	新村里
泉味里	동21	泉味村	泉味村	
臥乎屹里	동남22	臥乎訖村	臥乎訖村	臥屹里
大訖里	동남25		大訖村	大訖里
橋來里	동남30	橋來村		橋來里

73) 『제주읍지』의 '도두리(道頭里)'에 직접 대응하는 마을 이름은 없으나 지도에 그 일대를 지칭하는 마을 이름도 대응하는 마을 이름으로 간주해 표에 넣었음을 밝혀둔다.

臥乎山里	동남22	臥乎山里	臥乎山里	臥山里
朝天里	동30	朝天館里	朝天館里	朝天里
咸德里	동35	咸德里	咸德里	咸德里
北浦里	동40	北浦村	北浦村	北浦里
				邊幕里
先訖里	동남35	先訖村	先訖村	先屹里
金寧里	동50		金寧里	金寧里
無注浦里	동57	無注村	無注村	無注里
於等浦里	동67	魚登浦里	魚登里	魚登里
怪里	동70		猫村	槐里
坪代里	동73	坪代村	坪代村	坪代里
下道衣里	동80		別防村	下道里
		敦義里	上道衣灘里	上道里
上道衣里	동80			別防里
				牛島
細花里	동81	細花村	細花村	細花里
松堂里	동남60	松堂里	松堂里	松堂里
計				

③ 新右面 22里

제주읍지	거리(단위:里)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新右面	上貴日里	서27	貴日里	上貴里
	下貴日里	서25	君郎村	下貴里
	光令里	서남22	光令村	東光里
	有信洞里	서남25	有信洞里	西光里
	舊嚴莊里	서32	嚴莊里	舊嚴里
	中嚴莊里	서33		中嚴里
	新嚴莊里	서34		新嚴里
	長田里	서21	長田村	長田里
	古城里	서남26	缸破村	
	水山里	서30	水山村	水山里
	今勿德里	서남38	今勿德村	今德里
	牛路里	서남30	牛路村	
	高內里	서40	高內里	高內里
	涯月里	서45	涯月里	涯月里
	上加樂里	서남40	上加樂村	上加里
	下加樂里	서남40	下加樂村	下加里

納邑里	서남45	納邑村	納邑村	納邑里
夫面里	서남52	夫面村	夫面村	夫面里
於音非里	서남52	於音非里	於音非里	於音里
郭支里	서50	郭支里	郭支里	郭支里
於道內里	서남50	道內山里	道內山里	於道里
毛瑟浦里	서54	毛瑟村	毛瑟村	
計				

④ 舊右面 13里

제주읍지	거리(단위:里)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舊右面	歸德里 서54	歸德里	歸德里	歸德里
	召隱貴林里 서60	召隱貴林村	召隱貴林村	上大里
	潛水浦里 서62	潛水村	潛水村	潛水里
	大林里 서61	大林村	大林村	大林里
	水流川里 서70	水流村	水流川村	西明里
	牛叱屯里 서남71	牛屯村	牛屯村	東明里
	獨浦里 서70	獨浦村	獨浦村	孝洞里
	俠才里 서75	俠才村	俠才村	獨浦里
	楮旨里 서85	楮旨村	楮旨村	挾才里
	造乎水里 서87	造乎勿村	造乎勿村	楮旨里
	板浦里 서85	板浦里	板浦里	造水里
	頭毛里 서90	頭毛村	頭毛村	板浦里
	今勿岳里 서남73	黑岳村	黑岳村	頭毛里
				新頭毛
計				

<표 20> 18~19세기 정의현(군)의 면리편제 변화

제주읍지	거리(단위:里)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中面	表先里 南17里	票先村	票先旨村	表先里
	細花里 南15里	細花村	敦內岳村	細花里
	兎山里 西15里	兎山村	兎山村	兎山里
	加時岳里 西13里		橡岳村	加時里
	安坐岳里 西13里		安坐岳村	安坐里
	水望里 西25里	水望村	水望村	水望里
	東衣貴里 西28里	東衣貴	東衣貴村	東衣里
	西衣貴里 西30里	西衣貴	衣貴村	西衣貴里

	保閑里	西23里			保閑里
	火等里	西35里	火等村	火等村	漢南里
	又尾里	西40里	又尾村	又尾村	又美里
	狐村里	西45里	狐村	狐村	禮村里
左面	終達里	東30里	終達村	終達村	終達里
	新達里	東30里			
	力石乙里	東30里	力石村	力石村	力芑里
	吾召里	東30里		吾照村	吾照里
	古城里	東30里	古城村	古城村	上古城里
	新陽里	東30里			下古城里
	山陽里	東25里			
	弓山里	北10里		弓山村	
	城邑里				城邑里
	難山里	東20里	亂禿村	亂毛村	東蘭山里
	與溫里	東25里	迎婚村	迎婚村	西蘭山里
	新山里	東南18里	末等村	末等村	與溫里
	三達里	南10里		臥江村	新山里
	新楓里	南10里			三達里
	下川尾里	南13里	川尾村	川尾村	新豐里
	新川尾里	南15里			新川里
右面	上孝敦里	西50里		上孝敦村	上孝里
	中孝敦里	西50里			中孝里
	下孝敦里	西50里		下孝敦村	下孝里
	甫木里	西55里		甫木村	甫木里
	吐坪里	西60里		土坪村	吐坪里
	東烘爐里	西65里	烘爐村	烘爐村	東烘里
	西烘爐里	西68里			西烘里
	西歸里	西70里			西歸里
	好近里	西80里	好近村	好近村	好近里
	法還里	西85里	法汗村	法汗村	法還里
3	38				

<표 21> 18~19세기 대정현(군)의 면리편제 변화

제주읍지	里名	거리(단위:里)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東城里		邑村	邑外村	東城里
	今勿路里	東5里	黑路村	黑路村	沙溪里
右面	自丹里	北15里	自丹村	自丹村	光清里
	犯川里	東13里		洞水村	和順里

	洞水里	東13里			
	柑山里	東15里	紺山村	甘山村	柑山里
	通泉里	東15里			通泉里
	西城里		邑村	邑外村	保城里
	下摹瑟里	南10里		摹瑟村	下摹里
	日果里	西10里	日果村	日果村	日果里
					桃源里
	頓浦里	西20里			武陵里
					永樂里
					新坪里
	上摹瑟浦里	南10里		摹瑟村	上摹里
	倉川里	東20里		倉庫川村	倉川里
	上貌來里	東20里	召隱者坪代		上貌里
	下貌來里	東25里		貌來村	下貌里
	城山里	東28里			
左面	塞達里	東30里	塞達村	塞達村	穉達里
	中文里	東35里		中文村	仲文里
	大浦里	東35里	大浦村	大浦村	大浦里
	下院里	東40里	岳洞村	岳洞村	下院里
	石宋里	東42里	石宋村	石宋村	道順里
	江汀里	東47里	江汀村	江汀村	江汀里
2면	22리				

행정지명 중 관청 지명은 세 지도에 모두 12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주목의 관아시설은 7개이다.

「제주삼현도」에 ‘객사(客舍·현 제주목관아내 영주관)’를 비롯, 목사의 집정당인 ‘상아(上衙)’, 관관의 집정당인 ‘이아(二衙)’, 무사들의 열병장소인 ‘연무정(演武亭)’이 표기돼 있으며,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군사방어소이자 관리의 휴식처인 ‘운주당(運籌堂)’이 추가돼 있다. 『제주삼읍전도』에는 ‘객사’, 제주목관아를 이르는 ‘영문(營門)’과 목관아 절제사의 영청인 ‘본영(本營)’이 표기돼 있다.

행정 항목 중 표기된 외국 지명은 50개다.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각 19개, 「제주삼현도」에 12개 표기돼 있다. 실제로 표기된 외국 지명은 표기된 중국의 영파부(寧波府)·항주(杭州)·양주(楊州) 등을 비롯, 일본의 대마도 오키나와(琉球 혹은 琉球國), 베트남(安南 혹은 安南國), 태국(暹羅), 말레이반도(滿刺加) 등 21개에 이른다.

(나) 교통지명

인문지명 가운데 행정지명 다음으로 교통 관련 항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주삼현도」에 82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105개, 『제주삼읍전도』에 95개의 등 모두 282개의 지명이 표기돼 있다.

교통지명의 대부분은 제주섬에 흩어져 있는 포구⁷⁴⁾의 이름인데 265개에 이른다. 그 밖에도 역원·도로 등의 이름이 표기돼 있다. 이것은 교통 관련 지명 중 역원(驛院)이 가장 많고, 진도(津渡)와 포구 순으로 표기된 『대동여지도』 경기도 지명과 다른 분포를 보인 것이다.

먼저 포구의 수를 지도별로 보면, 「제주삼현도」에는 제주목 46개, 정의현 21개, 대정현 11개가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제주목 45개, 정의현 26개, 대정현 22개, 제주삼읍전도』에는 제주목 51개, 정의군 20개, 대정군 18개다. 도외지역은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각 2개, 『제주삼읍전도』에 1개 나온다. 모두 전남해안의 포구들이다. 이들 포구는 제주섬사람들의 중요한 생활 터전이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지도에 일일이 표기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포구 수는 숙종 5년(1679) 순무어사로 제주도에 왔던 이증이 제주도 포구 답사기록인 『남사일록(南槎日錄)』에 표기된 84곳 보다 훨씬 많다. 이 문헌을 토대로 해서 제주의 포구를 역사·민속학적으로 접근한 고광민(2003)에 따르면, 천연방파제가 있어 배를 붙일 수 있는 어선가박포구(漁船可泊浦口)는 81곳, 병선을 감출 수 있는 병선가박포구(兵船可泊浦口)는 47곳, 육과 반(六把半) 이상의 큰 배를 감출 수 있는 대강가박포구(大缸泊浦口)는 15곳이라고 밝혔다.

84곳 포구 가운데 병선가박포구는 제주목에 25곳, 정의현에 13곳, 대정현에 9곳 등 47곳이 있다고 했다. 제주목의 입지상 병선가박포구는 가장 많이 위치해 있다.

또 대강가박포구는 15곳이며, 군선을 둘 수 있는 군선가박포구는 8곳이라고 기록했다. 병선가박포구로는 제주목 ‘화북포’ ‘소홀포’ ‘조천관포’ ‘함덕포’ ‘북포’ ‘대포(김녕포)’ ‘무주포’ ‘어등포’ ‘좌가마포’ ‘별방포’ ‘감동포’ ‘독포’ ‘마두포’ ‘곽지포’ ‘애월포’ ‘고내포’ ‘귀일포’ 등이며, 정의현 포구는 ‘오조포’ ‘협재포’ ‘영혼포’ ‘말등포’ ‘천미포’ ‘소마로포’ ‘토산포’ ‘별포’ ‘우미포’ ‘호춘포’ ‘보목포’ ‘서귀포’ 등이며, 대정현은 ‘강정포’ ‘성노천포’ ‘당포’ ‘금물로포’ ‘모슬포’ ‘서림포’ ‘대야수포’ 등으로 표기해 놓았다.

또 대강가박포구로는 ‘화북포(禾北浦·제주시 화북동 포구)’ ‘조천포(朝天浦·

74) 포구 이름을 마을 이름으로 분류한 연구(오창명:1998)도 있지만, 포구 본래의 기능과 앞에 밝힌 분석 기준에 따라 마을 이름과 구분해 포구로 분류했다.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포구) '김녕포(金寧浦·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포구)' '어등포(於等浦·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포구)' '오조포(吾照浦·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포구)' '영혼포(迎婚浦·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포구)' '서귀포(西歸浦·서귀포시 서귀동 포구)' '색수포(塞水浦·서귀포시 법환동 포구)' '강정포(江汀浦·서귀포시 강정동 포구)' '성노천포(星老川浦·서귀포시 중문동 포구)' '당포(唐浦·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 포구)' '모슬포(募瑟浦·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포구)' '우포(友浦·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포구)' '애월포(涯月浦·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포구)' '조공천(朝貢川·제주시 내도동·외도동 포구)'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남사록』에 기록된 군선은 모두 10척이 있는데, 제주목 7척, 정의현 2척, 대정현 1척이 있었다고 했다. 그 위치는 제주목의 경우 당시 삼읍의 행정중심지와 방호소가 있던 곳이다. 본주인 제주목에는 별도포에 3척을 두었고, 조천방호소 인근 조천포에 1척이 있었다고 했다. 별방방호소의 경우 어등포, 명월방호소의 경우 명월포, 애월방호소의 경우 애월포에 그 군선위치를 표기해 두었다. 정의현은 여온포(與溫浦·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포구)와 서귀포, 대정현은 모슬포에 두었다. 세 지도에는 이같이 군선이나 큰 배가 드나드는 포구를 비롯, 어선을 정박할 수 있는 포구까지 낱낱이 기록해 놓았다.

교통지명 가운데 '원(院)'의 명칭도 보인다. 그 수는 많지 않다. 세 지도에 표기된 지명은 9곳이나, 실제 수는 6곳이다. 이와 관련 『조선왕조실록』 세종조와 세조조에 4번 역원관련 기록이 보인다.

그 내용은 제주의 역원 설치와 폐단에 대한 것이다. 즉 『세종실록(세종 4년(1422) 2월 28일 을사)』에는 “제주에 참로(站路) 세 곳을 혁파했는데, 정의(旌義)의 두 곳과 대정(大靜)의 한 곳이었다.”고 적혀 있다.

『세종실록(세종 21년(1439) 윤2월 4일 임오)』 기록은 왜적 방어를 위해 역참의 설치를 주장한 내용이다. 당시 제주도안무사 한승순은 “왜적을 방어하는 방법은 마병 같은 것은 없사온데, 본주에는 참(站)과 역(驛)이 없으므로, 만약 사객(使客)이나 군기(軍機)의 긴급한 일이 있게 되면 그 전지(田)의 다소를 보아서 말을 차등있게 내게 하여 타게 하매, 군사(軍士)의 말이 이로 인하여 피폐하게 되었으므로, 마병이 부실하게 되어 장래가 염려되오니, 청하옵건대, 목사가 있는 고을과 정의·대정에 다 참과 역을 두게 하시고, 인리(人吏)나 양민을 물론하고 1년씩 교대하여 윤차로 입번(立番)하게 하여 마병을 충실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1년 뒤 세종 22년(1440) 제주출신 고득중이 제주의 역참 혁파를 주장한 기사가 나온다. 고득중은 세 가지 이유로 참역 혁파 상소문을 올렸는데, 첫째 참역 설치로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강제로 고역함에 원망이요, 둘째 제주지역 참역의 거리가 60~70여 리로 멀어 말이 병들고 죽어버린 다는 것, 셋째

제주 평민의 본업의 토지를 빼앗아서 참역에 주고 백성은 그 경작할 땅이 없어서 살 곳을 잃어버린 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조에서 그 편리 여부를 조사해 보니 제주사람들 또한 의견이 같았다는 것이다.

또 제주지역 역참 설치 논란은 세조조에도 계속된다. 『세조실록(세조 1년(1455) 7월 10일 계미)』에 의정부에서 제주지역 역참 폐해 상소를 올리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 고을에 본래 참·역(站驛)이 없어서 민간의 말을 추쇄하여 써 왔는데, 무오년에 안무사 한승순이 건의하기를, ‘본주에 3개소, 정의에 2개소, 대정에 1개소의 참을 설치하고 전토(田土)를 주고는 보충군(補充軍)을 참부(站夫)로 쓰도록 하면 된다’고 한 것을 경차관(敬差官) 왕치(王致)가 그 편리 여부를 복심(覆審)할 때, 참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중지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민간에서 말을 추쇄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니, 받는 폐해가 적지 않았습니니다. 바라건대 한승순의 건의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를 병조에 내려 의논케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주에 궁벽한 바다 가운데 있어 사객이 매우 적곡 보충군으로 있는 장정이 겨우 130여 구(口)인데, 이를 6개 참에 분속(分屬)하게 되면, 거의 태반이 부족할 것이고, 또 민호의 전토를 다 빼앗아 6개 참에 주면 민심이 원망하고 동요될 것이니, 모름지기 참을 설치할 것이 없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선후기 제주지역 역참에 대한 문헌 기록에도 대부분 역참이 없다고 기록돼 있으나, 세 지도에는 역원이 표기돼 있다.

제주목에는 ‘광제원(光濟院)’ ‘이생원(利生院)’ ‘제중원(濟衆院)’ ‘(김녕)원(院)’이 표기돼 있다.

‘광제원’과 ‘이생원’은 현재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지경에 있었는데,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전도』의 ‘발산(鉢山·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어음리 큰바리메·죽은바리메)’ 서쪽에 각각 표기돼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원이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같은 위치에 ‘대정원중화처(大靜員中火處·대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 곳)’라고 쓰여 있다. 또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에 ‘원(院)’이 표기돼 있다. 김녕원이다. 같은 지도에 3소장 인근 ‘소산악(所山岳·제주시 아라1동 소산봉)’ 남쪽에 ‘사기고개십리중화처(寺企古介十里中火處·사기고개까지 10리·점심먹는 곳)’이라 지명이 보인다. 현재 ‘사기고개’의 실체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 지경에 길가는 사람들의 휴게소 역할을 한 곳으로 보인다. ‘제중원’은 『제주삼읍전도』의 ‘천악(泉岳·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샘이오름)’ 북쪽에 표기돼 있다. ‘제중원’이 있었으므로 이 일대 마을 이름을 일제시대에 ‘원동(院洞·원골)’로 표기되기도 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이곳을 ‘정의원중화처(旌義員中火處·정의현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 곳)’이라 표기돼 있어

‘원(院)’이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정의현(군)에는 ‘의귀원(衣貴院)’ ‘서의귀원(西衣貴院)’이 ‘백악(魄岳·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백리악)’ 북쪽에 표기돼 있다. 둘 다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에 있었던 의귀원이다. 『제주삼현도』에는 ‘서의귀원’, 나머지 지도에는 ‘의귀원’으로 표기했다. 원이 위치한 남원읍 남원리는 원(院) 남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남원(南院)’이라하고 다시 원(院)을 원(元)으로 고쳐서 ‘남원(南元·남쪽의 으뜸마을)’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⁷⁵⁾

대정현(군)에는 ‘중문원(仲文院·서귀포시 하원동)’과 ‘원(院)’이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전도』에는 ‘중문원’이 ‘천지연(天池淵·현 천제연폭포)’ 북쪽에, ‘원(院)’은 『제주삼읍도총지도』의 ‘천제담(天帝潭·현 천제연폭포)’ 북쪽에 있다. 현재 서귀포시 중문동의 천제연 폭포 인근에 표기된 것으로 보아 중문원임에 틀림이 없다. 『남사록』에도 서귀포시 하원동 범화사에는 행객(行客)이 머무는 원(院)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원(院)’ 아래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이 일대 마을을 한자로 ‘하원(下院)’이라 표기하기도 했다. 실제 『제주삼읍전도』에는 이 일대 마을을 ‘하원리(下院里·현 서귀포시 하원동)’로 표기했다.

‘원(院)’과 함께 ‘참(站)’의 명칭도 보인다. 『제주삼읍전도』에 정의군과 대정군 경계지점에 ‘병목참(竝木站)’이 보이는데, 오늘날 휴게소나 숙박처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보인다.⁷⁶⁾ 『대정군지도』에도 같은 표기가 보이며, 『제주읍지』(대정현지, 도로)에는 ‘병참(竝站)’으로 기록돼 있다.

교통 지명 항목 중 도로명칭으로는 ‘상대로(上大路)’라는 표기도 『제주삼읍도총지도』에 2곳 표기돼 있다. 제주목 5소장 수처인 ‘준연지(准連池) 동쪽과 ‘정의원중화처(旌義員中火處)’ 북쪽에 위치해 있다. 제주지역 도로는 제주목의 읍치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의 구조가 일찍부터 형성됐을 것으로 파악된다. 삼읍체제가 정립된 뒤 정의현·대정현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망이 형성됐을 것이다. 실제 대부분 옛 지도에는 도로망을 그려놓고 있다. 이들 도로는 제주읍성~정의현성, 제주읍성~대정현성, 정의현성~대정현성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조가 일차적으로 대로(大路)를 형성했다. 이 대로는 주로 제주목사의 순력 등 제주도 삼읍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이용됐고, 각 읍치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중로(中路)·소로(小路) 등이 활용됐다.⁷⁷⁾

75) 오창명 앞의 책, 1998, 461쪽.

76) 오창명(1998:306)에서는 서귀포시 서호동 항목에 ‘병목참(竝木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병(竝)’은 ‘꺠’ 또는 ‘꺠오’의 혼독자표기, 목(木)은 ‘목’의 읍가자 표기로 통로의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갈 수 없는 읍가자 중요한 부분을 뜻하는 고유어이다. ‘참(站)’은 ‘참’의 읍독자표기로 길을 가다가 쉬거나 묵거나 하는 곳을 뜻한다. ‘병목참(竝木站)’은 ‘꺠은목참’의 한자차용 표기다. 민간에는 ‘꺠은’의 제주도방언 ‘꺠은’의 연음인 ‘ㄹ’에 ‘목’을 생략하고 ‘참’을 덧붙인 읍성형 ‘ㄹ은참’이 남아있다.”

(다) 경계지명

경계 관련 지명은 모두 240개다. 과원이 98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목장 60개, 목장문(梁)이 47개, 우마들이 비바람을 피했던 피우가 10개, 창고 등이 표기돼 있다.

과원 이름은 「제주삼현도」에 제주목 24개, 정의현 5개, 대정현 3개 등 모두 32개 표시돼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제주목 30개, 정의현 6개, 대정현 5개 등 모두 41개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전도』에는 제주목 18개, 정의군 2개, 대정군 5개 등 25개가 수록돼 있다.

이를 군현별(표22)로 보면, 제주목이 72개로 가장 많고, 정의현(군)과 대정현(군)이 각각 13개 표시돼 있다. 다른 지명항목처럼 제주목의 과원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시·군별로는 표 22과 같이 제주시 33개, 서귀포시 9개, 북제주군 39개, 남제주군 17개다. 또 이를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지도화해 표기하면 <지도 5>와 같다.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과원은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종종 때 설치됐다고 기록돼 있다. 종종 21년(1526) 제주목사 이수동(李壽童)이 궐을 진현하기 위해 5개의 방호소(별방·수산·서귀·동해·명월방호소)에 각 공과원을 설치하고 궐나무를 심어서 그곳에 사는 군사로 해금 겸해 지키게 했다는 게 그 내용이다.⁷⁸⁾

중종대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공과원의 수가 제주목 19곳, 정의현 5곳, 대정현 6곳으로 적혀있다. 과원은 효종 때 제주목에 3곳, 정의현에 2곳이 증설돼 35곳이 됐다. 모든 과원에는 수감고(首監考)·감고 등 감관(監官) 1인씩을 두어 관리 책임을 맡기고, 직군(直軍)⁷⁹⁾ 또는 과원직(果園直)을 주민들 가운데서 뽑아서 과원을 지키게 해 감궐을 징수하는 폐단을 줄어든게 했다.⁸⁰⁾

<표 22> 지도에 표기된 과원의 시·군별 현황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계
제주삼현도	12	12	2	6	32
제주삼읍도총지도	12	18	4	7	41
제주삼읍전도	9	9	3	4	25
계	33	39	9	17	98
비율	33.7	39.8	9.2	17.3	100

77) 김동진 앞의 논문, 2000, 62쪽.

78) 이원진, 『耽羅志』 과원조.

79)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나 군사를 가리킨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수록된 과원수는 다음과 같다. 제주목 남과원(南果園) 신과원(新果園) 연로(延老) 소림(小林) 신촌(新村) 조천(朝天) 저지(瀦池) 함덕(咸德) 선흥(先僉) 북포(北浦) 김녕(金寧) 청동(靑桐) 묘유(猫有) 해안(海安) 용동(龍洞) 덕천(德泉) 광령(光靈) 우라(紆蘿) 부면(富面) 월계(月溪) 문건(文建) 판지(板旨) 저전(楮田), 정의현 정자(亭子) 독학(獨鶴) 별과원(別果園) 우전(牛田) 금물(禁物) 향목(香木) 원통(元通) 성산(城山), 대정현 고둔(羔屯) 법화(法華) 동천(洞泉) 병악(並岳) 별과원(別果園) 암림(暗林)이다.

이 문헌에 적힌 과원 수를 군현별로 보면 제주목 23곳, 정의현 8곳, 대정현 5곳이다. 효종대 와서 『신증동국여지승람』 때와 비교할 때 제주목에 3곳, 정의현에 2곳을 증설했다고 하면 제주목 22곳, 정의현 7곳이려야 맞다. 이것은 제주목의 ‘저전(楮田)’과 정의현이 ‘향목(香木)’이 공과원이 아니었거나, 그 기능이 미미했기 때문에 과원으로 기록만 했을 뿐 과원 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저전(楮田)’은 『탐라지』에 보면 “제주성 남성(南城) 안에 있다. 전에는 닳나무를 심지않아 우도와 여러 과원에서 취해서 썼다. …대나무 밭도 없어서 다른 데서 취해 쓴 것은 물론 기를 다는 깃대 또한 돈을 주고 사서 썼으니 매우 구차했다. 한편 닳나무 893그루를 새로 심었다.”고 적혀있다. ‘저전’은 종이가 귀한 제주섬의 실정을 고려할 때 관청용으로 심은 듯 보인다. 그런데 ‘저전’은 『제주군지(濟州郡誌·1899년)』 과원조에 기록돼 있다.

또 ‘향목(香木)’에 대해선, “정의현 서쪽 65리에 있다. 금굴 1그루, 유감 1그루가 있다.”고 쓰여있다. 실제 다른 과원보다 굴나무 수가 매우 적다.

숙종 때 제주목사 이형상 재임 당시에는 과원 수가 더 늘어 42곳이 됐다. 『남환박물』 지과조(誌果條)에 보면, 제주목에 29곳, 정의현에 7곳, 대정현에 6곳이라고 적혀있다. 『탐라지』와 비교하면, 제주목에 동과원(東果園) 서과원(西果園) 북과원(北果園) 중과원(中果園) 별과원(別果園) 노형(老兄) 용선달리(龍先達里)가 새로 표기돼 있고, 저전(楮田)은 빠져있다. 정의현은 상우둔원(上牛屯園), 대정현은 읍내원(邑內園)이 신설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를 세 지도별로 비교하면, 『제주삼현도』에는 이형상 목사 당시 있었던 제주목의 노형 용선달촌 서과원 북과원 중과원 동과원 별과원이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제주목에 송당리(松堂里)·신엄장촌(新嚴莊村)·상가락촌(上加樂村), 신엄장촌 북쪽에 ‘과(果)’로 표기된 신설 과원이 보인다. 『제주삼읍전도』에는 중엄리 인근에 ‘과(果)’를 표기해 놓아 엄장리 일때 과원이 이때 까지 존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원의 정비는 숙종조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보면 숫자가 증가했다. 제주목에 43곳, 정의현에 7곳, 대정현에 6곳이 수록돼 있다.

제주목의 경우 이형상 목사 때와 비교하면 14곳이나 증설됐다. 제주읍성 내외에 과원의 증가가 눈에 띈다. 모두 24곳이다. 제주성내 동원(東園) 별원(別園) 남원(南園) 중원(中園) 서원(西園) 신별원(新別園) 북원(北園) 등 7곳을 비롯, 동성 밖에 동성원(東城園) 동일원(東一園) 동이원(東二園) 동과원(東坡園), 북성 밖에 북일(北一)·북이(北二)·북삼(北三)·북사(北四)·북오원(北五園), 제주성 밖 서북쪽에 서북원(西北園)이 표기돼 있다. 성 밖 서남쪽에 서남원(西南園) 신남원(新南園) 서과원(西坡園), 남성 밖에 신원(新園) 남별원(南別園), 성 밖 동남쪽에 동남원(東南園) 동별원(東別園) 등이 있다고 표기해 놓았다.

또 현재 제주시 관할인 연로원(延老園) 노형원(老衡園) 해안원(海安園) 용좌동원(龍坐洞園)과 북제주군에 위치한 조천원(朝天園) 고여지원(古與池園) 함덕원(咸德園) 김녕원(金寧園) 괴이원(槐伊園) 엄장중원(嚴莊中園) 남원(南園) 북원(北園) 상가원(上加園) 부면원(夫面園) 용선달원(龍先達園) 문건원(文健園) 판사원(板舍園) 서취원(西鷺園) 남취원(南鷺園)이 표기돼 있다.

정의현에는 효돈원(孝敦園) 서원(西園) 원통원(元通園) 등이, 대정현에는 고둔원(羔屯園) 법화원(法華園)이 표기돼 있다.

이 같은 과원 수의 증가는 감귤진상에 대한 민폐가 적지않은 데다 1801년 공노비의 해방으로 과원직의 충원이 힘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종대로부터 공과원을 중심으로 진상굴이 재배되고 봉진됐지만 민간에서 재배하는 감귤에 대한 진공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관에서는 사과원(私果園)의 굴수를 철저히 파악하게 해 하나도 빠짐없이 봉진했기 때문에 만일 그 수가 줄어들면 그 주인이 물어야 했다. 매년 7, 8월에는 목사가 민가에 굴나무가 있는 곳을 순시하면서 주필로 날날이 표시하고 문부에 적었다가 굴이 익을 날이면 문부에 따라서 낼 것을 조사했다. 혹 까마귀나 까치가 굴을 쪼아먹은 경우 주인이 대신 납부해야 했다. 민가에선 이런 이유로 굴나무를 독약과 같아 보아서 잘 재배하지 않으며 나무 있는 자들은 일부러 잘라버리는 일이 빈발했다.⁸¹⁾

감귤진상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던지 영조에게까지 굴나무에 끓는 물을 부어 죽여버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다.⁸²⁾ 이러한 폐단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정에 알려졌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공과원은 과원직의 피역으로 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굴의 진상 품목도 당금굴은 금굴로, 감자는 산굴로 대신하고, 유감은 모두 천신용으로만 충당시키고 나머지는 금굴이나 산굴로 대봉(代捧)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원조 목사 이후 30년 뒤

81) 김상헌, 『남사록』 권 4, 10월 23일조.

82) 『영조실록』 영조 24년 정월 10일 을미.

그러진 『제주삼읍전도』에는 25곳만 표기돼 있다. 이런 감귤진상의 폐단을 고려, 공과원을 정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세 지도의 과원 표기는 과원의 이름을 붙이는게 많지만, 일부는 ‘과(果)’라는 표기로만 한 곳도 상당수다. 「제주삼현도」의 경우 32곳 중 14곳, 『제주삼읍도총지도』는 전체 41곳 중 6곳, 『제주삼읍전도』는 25곳 가운데 20곳을 표식할 수 있는 글자로 수록했다.

경제 관련 지명 가운데 ‘목장’은 60곳이 표기돼 있다. 제주도는 국마의 보고로 알려졌던 명마의 고장. 그 명성에 맞게 목장 지명이 옛 지도에 그대로 수록돼 있다. 세 지도 모두 한라산 중산간에 흩어져 있었던 관설목장이 표기돼 있다. 1~10소장을 비롯해 산마장(山馬場), 우목장(牛牧場)인 모동장(毛洞場)과 천미장(川尾場), 노루목장(獐場) 등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제주도 목장은 세종 11년(1429) 제주출신 고득중(高得宗)이 목장을 해안지대에서 중산간 지대로 이설할 것을 제안,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중산간 지역에 잣성⁸³⁾이 축조되면서 중산간에 목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들 목장은 목장내의 거주민을 장외로 옮기는 이주정책을 통해 대대적으로 진행됐는데, 15세기말에는 중산간 목장은 10개 소장으로 분할됐다.⁸⁴⁾

조선후기 제주도 목장은 입지 장소에 따라 중산간 목장, 산간목장, 해안목장, 도서목장으로 구분됐다. 산간과 해안·도서지역에도 관설목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조선전기에 비해 후기에는 목장의 공간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⁸⁵⁾ 중산간 목장은 해발 200~600m에 설치된 목장으로 10소장, 산간목장은 해발 600m이상 의 산간지대에 형성된 산마장을 말한다. 해안목장은 우목장, 도서목장은 우도장(牛島場)과 가파도 별둔장(別屯場)이 해당된다.

17세기 중반 제주도 중산간에는 11개 소장에 58개 자목장(字牧場)⁸⁶⁾이 설치돼 있었다. 이원진의 『탐라지』에 보면 제주목에 7개 소장에 자목장 38개, 정의현에 3개 소장과 17개 자목장, 대정현에 1개 소장에 3개 자목장을 두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목장은 18세기 들어 증설됐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는 63개 자목장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목장의 방만한 운영으로 폐단이 적지 않았는데, 숙종 30년(1704) 제주목사 송정

83) 주 22) 참조

84) 『經國大典』 권 4 兵典.

85) 강만익, 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쪽.

86) 둔마(屯馬)를 천자문의 글자로 낙인한 후 편성해 만든 소규모 목장으로 소장(所場)에 포함됐다. 둔마는 25필 규모로 무리를 지어 방목되는 말을 의미한다. 1개의 자목장에는 암말 100필과 숫말 11필로 구성됐으며, 군두 1명과 군부 2명, 목자 4명이 자목장을 관리했다.

규(宋廷奎·1704년 10월~1706년 10월 재임)가 이런 목장을 10개 소장으로 정비했다. 관리가 부실해 마필 사육이 불량한 자목장은 버리고, 작은 목장은 큰 목장으로 합쳐서 통합한 것이다. 중산간의 자목장을 10소장으로 통합함으로써 중산간 목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했다.⁸⁷⁾

이런 10소장 체제는 20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크고 작은 목장 10개가 있다.”고 기록돼 있고, 『제주읍지(1899)』에도 10소장과 산마장 산간목장 등이 수록돼 있기 때문이다. 1소장은 현재 북제주군 구좌읍, 2소장은 북제주군 조천읍, 3소장은 제주시, 4소장은 제주시와 북제주군 애월읍, 5소장은 북제주군 애월읍, 6소장은 북제주군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일대에 설치된 목장이다. 제주목 소속이다. 7소장은 남제주군 안덕면~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8소장은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형성된 목장이며 대정현(군) 소속이다. 9소장은 남제주군 남원읍, 10소장은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표선면 일대의 목장으로 정의현(군) 소속이다.

세 지도 모두 1704년 이후 10개 소장으로 목장이 정비된 뒤 제작된 것이어서 10개 소장만 표기하고 자목장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산마장은 남원읍과 표선면 일대에서 개인목장을 개척한 김만일의 사목장(私牧場)에서 기원했다. 김만일(金萬鎰·1550~1632)은 임진왜란으로 각 소장에서 말이 징발됐으나 한반도에서 전마가 부족하자 선조 33년(1600)과 광해군 12년(1620) 전마 500필을 각각 국가에 헌납했다.⁸⁸⁾ 이에 조정에서는 1620년 현마한 말을 사육하기 위해 제주목과 정의현 경계에 동·서 별목장을 설치했다. 이후 김만일의 아들인 김대길(金大吉)과 손자 려(礪)도 국가에 말을 헌마했는데, 이로 인해 효종 9년(1658) 제주목사 이회(李檜·1658년 4월~1660년 5월 재임)의 건의로 동·서 별목장을 산마장으로 개칭, 비로소 산마장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산마장은 현재 제주 동부지역인 북제주군 조천읍, 남제주군 남원읍과 표선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산마장은 「제주삼현도」에는 ‘산장(山場)’으로 표기됐는데, 제주목과 정의현에 각 3곳 나타나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산마장’이라고 썼으며, 제주목 4개, 정의현 6개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전도』에는 ‘산장’이 제주목 2개, 정의군에 3개 적혀 있다.

「제주삼현도」의 경우 제주목에 ‘마장(馬場)’ 2곳을 제주목 함덕포와 어등포에 표기하고 있다. 함덕포의 마장은 조선시대 제주에 있었던 별목장(別牧場)⁸⁹⁾ 가운

87) 이원조, 『탐라지초본』.

88) 『광해군일기』 권 155, 광해군 12년 8월 15일 경신.

89) 남도영(2001:283)에서는 어승마, 진상마, 체임마를 목양하고 길들이기 위해 설치한 특별목장이라고 쓰여 있다.

데 하나인 '서산장(西山場)'이다. 제주도 모든 목장에서 기른 말은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포구에서 반출됐다. 말을 진상할 때가 가까워지면 2소장 내 조천읍 선흘리 윗밤 오름과 알밤오름 사이에 있는 목장에 모아 두었다가 함덕포구에 임시목장으로 데려왔다. 이것이 바로 서산장이다. 서산장은 숙종 32년(1706) 제주목사 송정규가 현재 함덕 해수욕장 동쪽 서우봉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었다.

어등포의 마장은 이원진의 『탐라지』 목양조에 기록된 '우둔(牛屯)'이다. 이 문헌에 "나라의 둔(屯)에 있는 소는 순흑색은 적고 잡색이 많다. 나라의 제향에 쓰는 소는 검은 소로 원래 15마리로 정했으나 지금은 5마리를 더해 모두 20마리다. 매해 봉진하면서 소를 합쳐 보냈는데, 항상 부족함을 염려해 부득이 민간의 소를 골라 충당하고 대신 잡색의 소를 주었다. 이 일이 심히 구차해 많은 수의 검은 소를 돈을 주고 사거나 바꾸어서 종자를 얻어 번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진상용 흑우를 키웠던 목장으로 보인다.

「제주삼현도」에는 10소장과 산마장 외에 노루목장인 '장장(獐場)'이 정의현 보모소천(浦毛所川) 동북쪽에 표기됐으며, 우목장 가운데 하나인 '천미장(川尾場)'이 현재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해안에 표기돼 있다.(지도 6)

『제주삼읍도총지도』에도 '천미장'과 '장장'이 보이며, 북제주군 한경면 일대에 우목장인 '모동장(毛洞場)'이 더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전도』에는 '천미장' 위치에 '우장(牛場)'이라 표기했으며, '모동장'을 '모동우장((毛洞牛場)'으로 적었다.

그런데 세 지도 별목장이 있었던 우도장과 가파도 별둔장은 표기하지 않았다. 우도장은 『남환박물』에 숙종 23년(1697) 제주목사 유한명(柳漢明·1696년 10월~1699년 5월 재임)이 말을 방목함으로써 설치됐다고 기록돼 있다.⁹⁰⁾ 처음 180필을 방목했으나 3년이 못돼 죽은 수가 105필로 줄었다. 7년 뒤 260필이 됐고 준마도 생산됐다⁹¹⁾.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중 「우도점마(牛島點馬)」에는 말 262필과 목자(牧子)와 보인(保人)을 합쳐 23명이 있었다고 적혀있다. 정조대 편찬된 『제주읍지』에는 목장 둘레가 50리고 수처가 6곳 있으며, 둔마 243필, 군두(群頭)·목자 39명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도 둔마 275필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목장 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로 경작지가 부족한 데다 흉년이 들어 경지개간의 필요성이 제기돼 가파도의 별둔장과 함께 우도장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됐다. 두 목장은 현종 8년(1842) 목장이 개설되지 오래되지 않았고, 두 지역 바닷길이 모두 험란하고 포

90) 김경옥, (2001:61~62)에 따르면 현종 4년(1663) 전국적으로 실시된 목장실태조사에서 우도목장에 410필의 목마가 사육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우도 목장의 시원을 현종 4년 이전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91) 이형상, 『탐라계록초(耽羅啓錄抄)』. 『병와전서(瓶窩全書(1715))』 권 10.



구와 떨어져 있어 우마의 관리에 불편하므로 폐지하게 됐다. 우도의 경우 이듬해부터 농경지로 개간됐다.

가파도의 별둔장은 영조 26년(1750) 설치됐으며 설치 당시 약 50수의 흑우가 방목된 흑우장이었다.⁹²⁾ 목장 규모는 주위 10리에 흑우 103수가 사육됐으며 모슬포 조방방이 우감을 검직했고 색리 1명·군두 1명·목자 8명이 관리했다. 그러다 1840년 영국선박의 침입을 받아 모동장으로 흑우를 옮겨 사육시키고, 1843년 폐지됐다.

이로 볼 때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는 두 목장의 존재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제주삼읍전도』는 두 목장의 폐지 이후여서 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목장 외에 목장관련 시설도 표기돼 있다. 목장의 출입구인 ‘양(梁)’을 비롯해 ‘피우가(避雨家)’, 목책시설들이 적혀 있다. 양(梁)은 목장 주위에 설치된 일시적인 우마와 목자 주민의 출입구로, 제주에서는 ‘도’라고 불리었다.⁹³⁾ ‘양(梁)’은 우마를 방목하거나 농경지의 토양을 밟기 위해 우마를 옮겨 올 때 일시적으로 열지만, 그 외 기간은 말이 농경지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두었다.

‘양(梁)’은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10소장을 중심으로 각각 표기돼 있다. 「제주삼현도」에는 제주목 15곳, 정의현 1곳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제주목 21곳, 정의현과 대정현에 각 5곳이 나온다. 반면 『제주삼읍전도』에는 이 표기돼 있지 않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목장의 관리본부인 둔마장의 필수 시설인 ‘피우가’를 표시해 놓았다. 10개 소장별로 1개씩 표기놓고 있다. 피우가는 말 그대로 말의 눈·비·바람·더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겨울철의 풍설기한(風雪飢寒)에 대비하기 위한 가옥이다. 이들 피우가는 목장이 위치한 중산간 지역이 기상변화가 많을 뿐 아니라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는 다우지역이므로 필수적인 시설로 파악된다. 피우가는 방목하는 마필수를 고려해 축조됐으며 축사로서의 기능과 함께 목자들의 거주 가옥으로도 이용됐다고 볼 수 있다.⁹⁴⁾

이 지도에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 지경에 목책시설인 ‘두원(頭圓·목장내 우마취합을 위해 만든 원형목책)’, ‘미원(尾圓·목장내 우마취합을 위해 만든 원형목

92) 김석익, 『탐라기년(1918)』.

93) 오창명(1998:259)에 의하면 양(梁)은 ‘어귀’ ‘입구의 뜻을 가진 옛 말 ‘도’의 훈독자로 보고 있다. 강만익(2001:73)에서는 양(梁)이란 사전적인 용어로는 나무로 만든 교량을 의미한다. 제주에서는 목장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나무로 만든 문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옛 지도에 양(梁)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94) 강만익, 2001, 66쪽.

책) , '사장(蛇場·취합한 목장의 목책통과로)' , 산마장의 마필수를 점검장소인 '산마구점처(山馬驅點處)'도 적혀 있다. 또 점마와 관련 말을 모아 모으는 구역도 표기됐는데, '일일구(一日驅)' '이일구(二日驅)' '삼일구(三一日驅)'가 그것이다.

과원·목장 외에 경제 관련 지명으론 '대답(大沓·서귀포시 호근동 하논)' '답(沓·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원전(院田·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 '죽전(竹田·한라산 일대)'에 보인다.

또 한라산 일대 구상나무 발인 '구향목전(舊香木田)'과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일대 소금밭을 지칭하는 '염전(鹽田)'도 『제주삼읍전도』에 표기돼 있다.

창고 지명도 『제주삼읍전도』에 보인다. 제주목 관아 내 '창(倉)' 3곳이 표기돼 있고,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명월진 내 '서창(西倉)'과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별방진 내 '동창(東倉)'이 표기돼 있다. 모두 제주목에 해당한다.

(라) 군사지명

군사 관련 지명으로는 표기된 수는 모두 240개이다. '연대(煙臺)'가 102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봉수(烽燧)' 73개, '진보(鎭堡)' 62개, '성곽(城郭)' 3개 순이다.

'연대'는 제주목의 경우 「제주삼현도」에 16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19개, 『제주삼읍전도』에 15개 표기돼 있다. 정의현(군)에는 「제주삼현도」 10개, 『제주삼읍도총지도』 11개, 『제주삼읍전도』 9개가 표시돼 있다. 대정현(군)에는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전도』에 각 7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8개 표기돼 있다.

'봉수'는 제주목의 경우 세 지도 모두 10개씩 표기돼 있다. 정의현(군)에는 『제주삼현도』 8개,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삼읍전도』에는 10개씩 기록돼 있다. 대정현(군)에는 「제주삼현도」 4개, 나머지 두 지도에는 각 5개 표기돼 있다.

1780년대 『제주읍지』에 수록된 연대는 모두 37개이다. 제주목 17개, 정의현 11개, 대정현 9개이다. 또 봉수는 제주목 10개, 정의현 9개, 대정현 5개 등 모두 24개이다.

제주도 봉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동사강목(東史綱目』이다. 이 문헌에는 “전라도에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를 설치해 우리나라와 원나라의 군대를 찾아내고 합포(合浦), 동래(東萊) 등 좁은 바다 어귀와 탐라 등지에 경계를 구획해 봉수를 설치하고 배와 무기를 몰래 간직해 놓고 밤낮으로 감시하며 순찰했다.”⁹⁵⁾고 기록돼 있다. 이 때 탐라에 봉수가 설치됐으나, 그 구체적인 실태는 기록해 놓지 않았다.

조선시대 봉수 기록은 세종때 제주안무사(濟州按撫使) 한승순(韓承舜·1437년 2

95) 『東史綱目』,辛巳(충렬왕) 7년, 冬十月條, 又於全羅道 置鎭邊萬戶府摘發 本國軍及元軍 於合浦 加德 東萊蔚州 (중략) 等隘口及耽羅等處 分俵設烽燧 暗藏船兵 日夜看望巡綽.

월~1439년 윤2월 재임)이 첫 기록이다. 즉 “봉화를 올리고 망보는 곳은 제주목은 동쪽 김녕에서 서쪽 판포까지 10곳이고, 대정현은 서쪽 차귀에서 동쪽 거옥(居玉·현 서귀포시 하원동 굿산망)까지 5곳이고, 정의현은 현의 서쪽에서 북쪽 지말산(只末山·현 북제주군 구좌읍 지미봉)까지 7곳이다. 봉화가 있는 곳마다 5인씩 나누어 배정하고, 또 연대를 쌓았는데 높이와 너비가 각 10자입니다. 망보는 사람에게 병기, 기(旗) 각(角)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며, 만약 적변이 있을 때는 봉화에 올라가서 각을 붙여서 서로 통보하게 했습니다.”는 기록이다.⁹⁶⁾ 이로 볼 때 조선 세종조 제주에 설치된 봉수는 10개, 대정현 5개, 정의현 7개 등 모두 22개이다.

그 후 세조 8년(1462) 병조에서 제주의 도절제사로 해금 제주도 연대를 정비토록 한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본래 변방의 연대는 급변을 알기 위한 것이나 제주의 연대가 혹은 낮고 혹은 적어서 멀리 보아 통하지 못하니 도절제사로 하여금 살피도록 하라는 것이었다.⁹⁷⁾

중종 5년(1510) 『중종실록(中宗實錄)』에 “연대를 두어야 할 곳에 후망(喉望)을 가설했습니다. 제주 3읍이 모두 해안가이므로 방어가 아주 긴박하지만, 군사의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라는 기록으로 미뤄 지속적으로 연대가 정비됐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봉수 23곳은 모두 높은 산정에 위치했다. 제주목에 사라악(紗羅岳) 별도악(別刀岳) 원당악(元堂岳) 입산악(笠山岳) 도도리악(道道里岳) 수산악(水山岳) 고내악(高內岳) 판을포악(板乙浦岳) 등 8개소, 정의현에는 남산(南山) 오음사지악(五音沙只岳) 달산(達山) 토산(兎山) 소수산(小水山) 여을온(餘乙溫) 지말산(只末山) 전월론(錢月論) 호아촌(弧兒村) 삼매양(三每陽) 등 10개소, 대정현에는 거옥악(居玉岳) 굴산(堀山) 송악(松岳) 모슬포(慕瑟岳) 차귀악(遮歸岳) 등 5개소이다.

이들 봉수가 모든 높은 산정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이르러 봉수와 연대를 구분, 봉수로 한 것 같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선후기 봉수를 정비하면서 해안에 연대가 설치됐다. 이로부터 산악을 중심으로 하는 봉수,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로 구분하게 됐다.⁹⁸⁾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봉수 23곳, 『탐라지』에는 봉수 25곳만 기록돼 있다. 연대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숙종 때 제주목사 이형상이 편찬한 『남환박물·1704년』에도 제주의 연대와 봉수가 63곳 있다고 기록했다. 개별적인 봉수와 연대 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문헌과 짝을 이루는 「탐라순력도」의 제주도를 그린 전체지도 ‘한라장축’을

96) 『세종실록』, 세종 21년 윤 2월 4일.

97) 『세조실록』, 세조 8년 4월.

98) 김명철, 2000,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57쪽.

보면 봉수 25곳, 연대 38곳이 분명히 표기돼 있다. 봉수는 제주목 10곳, 정의현 10곳, 대정현 5곳이 수록돼 있다. 연대는 제주목 18곳 정의현 10곳, 대정현 9곳을 표기해 놓았다⁹⁹⁾. 봉수는 ‘망(望)’이라고 분명히 썼으며, 연대는 사각형으로 해안에 그려놓아 『남환박물』의 기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연대의 경우 37개소 표기된 것으로 보이나, 봉수의 수가 25곳이므로 연대의 수는 38곳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봉수와 연대의 표기가 나타난 것이 18세기 중반 편찬된 『탐라방영총람』이라는 주장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연대와 봉수의 수도 『탐라방영총람』에 기록된 봉수 24곳, 연대 37곳보다 1곳씩 각각 더 많다.

『탐라순력도』에 표기된 봉수는 「한라장축」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지도의 각 개별지도에 표기된 것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목 사라(沙羅·『탐라순력도』중 「호연금서」에는 紗羅望) 망(望·「호연금서」에는 원당망(元堂望)) 서산망(西山望) 입산망(笠山望) 왕가망(往可望) 망(望·『탐라순력도』중 「비양방록」에는 도두망(道頭望)) 수산망(水山望) 고내망(高內望) 도내망(道內望) 만조망(晩早望), 정의현 지미망(指尾望) 성산망(城山望·『탐라순력도』중 「한라장축」에는 사각점으로 봉수 표시만 됐으나 「성산관일」에는 성산망(城山望)으로 표기됨) 수산망(首山望) 남산망(南山望) 독자망(獨子望) 달산망(達山望) 토산망(兎山望) 자포망(紫蒲望) 호촌망(弧村望) 삼매양망(三梅陽望·『탐라순력도』중 「한라장축」에는 사각점으로 봉수 표시만 돼 있으나 「서귀조점」에 ‘삼매양망(三梅陽望)으로 표기), 대정현에는 구산망(龜山望) 이두어시망(伊斗於時望) 저성망(貯星望) 모슬망(毛瑟望(『탐라순력도』중 「모슬점부」에는 모슬망(募瑟望)으로 표기) 망(望 『탐라순력도』중 「차귀점부」에는 당산망(堂山望)으로 표기)이다.

연대는 제주목에는 별도포(別刀浦) 관포(館浦) 왜포(倭浦) 함덕포(咸德浦) 무주포(無注浦) 좌가마포(左哥馬浦) 포두포(浦頭浦) 두원포(斗元浦) 수근포(修近浦) 조부포(藻腐浦) 엄장포(嚴莊浦) 애월포(涯月浦) 귀덕포(販德浦) 우지포(牛池浦) 잠수포(潛水浦) 마두포(馬頭浦) 배령포(盃令浦) 원룡포(元龍浦)에 표기돼 있다. 정의현에는 두모포(頭毛浦) 오조포(五照浦) 협재포(俠才浦) 영혼포(迎婚浦) 말등포(末等浦) 천미포(川尾浦) 당포(堂浦) 소마포(所馬浦) 보목포(甫木浦) 법환포(法還浦), 대정현에는 색수(塞水) 강정포(江汀浦) 대포(大浦) 성천포(星川浦) 당포(唐浦) 산방포(山房浦) 심포(深浦) 서림포(西林浦) 우두포(牛頭浦)가 표시돼 있다.

두 기록의 경우 봉수는 『탐라순력도』에 정의현 ‘수산망(水山望)’ 즉 수산봉수가 추가됐을 뿐, 다른 봉수의 이름은 같다. 연대의 경우 제주목은 연대 이름만 다르게

99) 『耽羅地圖竝序(1709년 제작)』의 지도 서문에 보면 “연대는 도내에 38개소가 있는데 제주 18개소, 정의 11개소, 대정 9개소다.”라고 기록돼 있다.

표기됐을 뿐 그 숫자는 같다. 정의현은 『탐라방영총람』의 ‘벌포(伐浦)’ ‘금로포(金路浦)’ ‘우미포(又尾浦)’가 빠진 반면 ‘당포(堂浦)’ ‘두원포(頭元浦)’ ‘영혼포(迎婚浦)’의 연대가 추가 표기됐다.

두 기록과 논문 분석 대상인 세 지도에서 봉수와 연대 현황을 비교해 보면 봉수는 시대에 따라 이름이 달리 표기하고, 『탐라순력도』의 ‘망(望)’ 대신 ‘봉(烽)’으로 기록했을 뿐이며 『탐라순력도』에 표기된 25곳의 봉수가 세 지도에 변함없이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탐라방영총람』에서 수산봉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될까? 수산봉수의 관할은 수산진이다. 조선시대 군사 방어에 요해처 중의 하나로 일찍이 진성이 설치됐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수산봉수를 언급하고 있고, 그 이후 『제주읍지』 『탐라지초본』에도 수산봉수를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당시 기능을 상실했다가 일시적인 폐쇄됐다가 다시 환원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 문제는 과제로 남겨둔다.

연대는 지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탐라방영총람』을 기준¹⁰⁰⁾으로 비교하면 「제주삼현도」의 경우 제주목의 ‘입두(笠頭)’·‘조부(藻腐)’연대, 정의현의 ‘오조(吾照)’연대, 대정현의 ‘소마로(所馬路)’·‘별노천(別老川)’연대가 제외된 반면, ‘두원(斗元)’연대¹⁰¹⁾ ‘여을온(餘乙溫)’연대¹⁰²⁾는 표기돼 있다.

제주목과 대정현에는 『탐라방영총람』에 표기된 연대가 모두 표기돼 있으며, 정의현은 종달연대를 추가로 표기했다.

『제주읍지』에 ‘소마로’·‘별로천’·‘종달’연대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1780년대 까지 이들 연대는 존속했다. 「제주삼현도」에 ‘소마로’·‘별로천’연대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을온’ 연대는 「제주삼현도」 이후 기록이 보이지 않아 이후 폐쇄돼 인근 오소연대나 말등포연대에서 그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목의 ‘함덕(咸德)’·‘좌가(佐哥)’·‘귀덕(歸德)’·‘마두(馬頭)’연대, 정의군의 ‘소마로(所馬路)’·‘종달(終達)’연대, 대정군의 ‘마희천(馬希川)’·‘별로천(別老川)’연대가 표기돼 있지 않다.

100) 『탐라순력도』의 경우 연대의 이름을 표기한 경우도 있으나, 표기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연대 표시를 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01)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에 ‘두원포’ 연대가 표기돼 있다. 『제주읍지』 연대조에 보면 “종달연대는 남쪽으로 ‘오소(吾召)’ 연대에 응하고, 서쪽으로 ‘입산(笠山)’ 연대에 응한다.”고 기록돼 있다.

102)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봉수)』에 보면 “‘여을온(餘乙溫)’ 봉수는 ‘소수산(小首山)’ 봉수에 응한다.”고 기록돼 있다. 「제주삼현도」에는 ‘영혼포(迎婚浦)’아래 연대가 표기돼 있다. ‘여을온(餘乙溫)’은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의 옛 이름이며, ‘영혼포(迎婚浦)’는 그 일대 포구를 가르킨다.

따라서 연대의 수가 앞의 두 지도에 비해 상당히 적게 표기돼 있다. 이것은 조선후기 제주의 봉수체제가 25봉수와 38연대로 유지되다가 19세기 초 정비된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 봉수와 연대의 명칭만 다를 뿐 25봉수와 38연대가 유지되다가 순조 11년(1811)에 3읍의 연대 중 8곳이 폐지됐다고 기록돼 있다.¹⁰³⁾

그러나 구체적으로 혁파된 연대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현종 7년(1841) 윤3월에서 현종 9년(1843) 6월 제주목사를 지낸 이원조(李源祚)가 남긴 『탐라지초본』의 봉수와 연대 기록이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문헌에는 제주목의 함덕·좌가·귀덕·마두연대, 정의현의 소마로·종달연대, 대정현의 모슬봉수와 마희천·별로천 연대 등이 폐쇄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로 미뤄 볼 때 제주지방에 봉수 1곳과 연대 8곳이 폐쇄됨에 따라 24봉수 30연대로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삼읍전도』의 표기가 누락된 연대는 19세기 초 폐쇄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혁파된 ‘모슬봉수’를 수록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다.

『탐라지초본』 이후 관련 기록을 현재로는 찾을 수 없으나, 『대정군읍지(大旌郡邑誌(1899년))』 대정군 봉수에 ‘모슬봉’이 기록돼 있다. 『제주삼읍전도』의 기록이 잘못됐다면, 이 문헌 역시 그대로 옮겨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지도가 전국지도 제작의 하나로 만든 제주도 지도이고, 당시 조선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으로 외세와 직접 무력충돌을 겪은 다음 서양의 침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군사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한 것을 고려하면 다시 환원됐을 가능성도 없지않아 보인다.

세 지도 모두 한라산에 있는 연대도 표기하고 있는데,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연대(煙臺)’, 『제주삼읍전도』에는 ‘고연대(古煙臺)’라고 표기해 놓았다. 이와 관련한 기록은 『남환박물』에 보인다. 즉 “도내에 봉수와 연대가 63개소가 된다. 그러나 옛날에는 한라산 허리에 하나의 봉수대가 있었고 해남의 백량(白梁)에 미치어 완급을 통보했으나 해무(海霧)가 항상 자욱이 덮이므로 지금은 모두 철폐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기록에 나타난 한라산의 연대를 이름이다. 실제 『탐라순력도』 「제주조점(濟州操點)」과 「병담범주(屏潭泛舟)」에도 한라산 허리에 ‘연대(煙臺)’를 표기해 두어, 옛 연대를 기록하고 있다. 세 지도 제작당시는 모두 혁파됐으나 연대 터가 남아 있으므로 연대 항목에 포함시켰다.

한편 세 지도의 연대 표시와 관련해서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는

103) 『備邊司謄錄』 순조 11년 9월 7일. 以爲三邑煙臺 凡爲三十八處 其中三十處 皆是要衝當存之處 其外八處無甚繁關 置無用 (중략) 竝令革罷之意 分府如下 答曰允.

『제주삼읍전도』는 『탐라순력도』의 '연대(煙臺)' 표기대신 붉은 햇불로 대신 그려 표기했다. 그러나 앞의 두 지도와 달리 『제주삼읍전도』는 '××煙'으로 명확히 표기해서 기록의 정확도를 기했다. 이것은 이 지도의 제작배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는 조선정부가 당시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군사 제도를 개편하고 군사시설 등을 정비한 뒤 전국 지도제작의 하나로 제작했다. 이때 지도는 군사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앞의 지도보다 봉수와 연대의 표기를 정확히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헌에 수록된 제주도 봉수와 연대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표 23·24>와 같다. 또 『제주삼읍도총지도』에 표시된 봉수와 연대를 지도화 하면 <지도 7>와 같다.

<표 23> 조선시대 제주지역 봉수와 연대의 변천 과정¹⁰⁴⁾

소 속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耽羅防營總覽	濟州邑誌	濟州旌義大靜邑誌	濟州兵制烽臺總錄	耽羅誌草本
제주목	紗羅岳 元堂岳 *山岳 笠山岳 *道里岳 水道山岳 高內岳 *板乙浦岳 別刀	紗羅山 元堂山 西笠往道 山可圓山 內內乙板	紗羅烽 元堂烽 西笠烽 往道烽 水道烽 高內烽 晚別烽 朝天烽 倭威烽 無注烽 佐哥頭烽 修近烽 藻腐烽 南頭烽 涯月烽 歸德烽 牛池烽 竹島烽 馬頭烽 盃令烽 大浦烽	左可煙	王哥 左哥	往哥 無住 佐可	道頭 (공란) (공란) (공란) (공란)

104) 김명철, 2000, 57~58쪽.

정의현 관내	南 岳 山 五音沙只 達 山 兔 山 餘 山 只 乙 錢 * 末 狐 月 三 兒 每 村 陽 陽	南 子 山 獨 山 達 山 兔 山 小水 * 城 山 指 尾 紫 浦 三 梅 陽	頭 煙 烽 烽 烽 烽 南 山 子 山 山 山 獨 子 子 山 山 達 山 山 山 山 兔 (공) (공) (공) (공) (公) (公) (公) (公) 城 山 山 山 山 地 尾 盃 村 紫 狐 村 陽 三 每 陽 陽 末 等 浦 烟 川 尾 烟 烟 所 尔 路 烟 烟 伐 才 浦 烟 烟 俠 照 才 烟 烟 吾 照 才 烟 烟 金 露 浦 烟 又 尾 烟 烟 甫 木 烟 烟 淵 洞 烟 烟	水 山 烽 指 尾 烽	首 山 三 梅 陽 挾 子 金 祿 浦 爲 浦 美 木	水 山 三 每 陽 俠 子 金 路 浦 又 甫 美 木	首 山 指 資 尾 盃 (공란) 挾 子 (공란) 金 祿 浦 爲 美
	居 玉 岳 堀 山 松 岳 毛 瑟 遮 歸 岳	龜 山 嶸 岳 松 瑟 墓 歸 岳	龜 山 伊 岳 貯 瑟 墓 歸 堂 岳 邊 岳 大 岳 別 岳 唐 岳 山 岳 無 岳 西 岳 牛 岳	烽 嶸 嶸 嶸 嶸 嶸 山 山 山 山 山 山 頭 嶸 嶸 嶸 嶸 嶸 別 嶸 嶸 嶸 嶸 嶸 瑟 嶸 嶸 嶸 嶸 嶸 水 嶸 嶸 嶸 嶸 嶸 希 嶸 嶸 嶸 嶸 嶸 浦 嶸 嶸 嶸 嶸 嶸 大 嶸 嶸 嶸 嶸 嶸 別 嶸 嶸 嶸 嶸 嶸 唐 嶸 嶸 嶸 嶸 嶸 山 嶸 嶸 嶸 嶸 嶸 無 嶸 嶸 嶸 嶸 嶸 西 嶸 嶸 嶸 嶸 嶸 牛 嶸 嶸 嶸 嶸 嶸	嶸 嶸 嶸 山 嶸 嶸	尙 希 尙 希 尙 希 別 老 別 老 別 老 無 首 茂 首 無 首	嶸 嶸 嶸 (공란) (공란) (공란) (공란) 無 首

<표 24> 18~19세기 제주지역 봉수와 연대의 변천과정 2

소 속	耽羅防營總攬	제주삼현도	제주삼읍 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탐라지초본
제주목	紗羅烽 元堂烽 西山烽 笠山烽	沙羅烽 元堂烽 그림포시 笠山烽	沙羅烽 元堂烽 西山烽 笠山烽	紗羅烽 元堂烽 西山烽 笠山烽	

	甫木烟 淵洞烟	그림표시 그림표시	그림표시 그림표시	甫木煙 法還煙	
대정현 관내	龜山烽 伊頭烽 貯別烽 募瑟烽 堂山烽	龜山烽 (공란) 貯星烽 募瑟烽 堂山烽	窟山烽 窟豆烽 貯星烽 募瑟烽 堂山烽	屈山烽 伊頭烽 貯別烽 募瑟烽 堂山烽	폐지
	邊水烟 尔希川烟 大浦烟 別老川烟 唐浦烟 山房烟 無水烟 西林烟 牛頭烟	그림표시 (공란) 그림표시 (공란) 그림표시 그림표시 그림표시 그림표시 그림표시	그림표시 그림표시 그림표시 (공란) 그림표시 그림표시 그림표시 그림표시 그림표시	塞水烟 (공란) 大浦烟 (공란) 堂浦烟 山房烟 募瑟煙 西林烟 牛頭烟	폐지 폐지

군사 항목 지명을 이해하기 위해선 조선시대 제주 진보체제의 정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제주도에는 왜구의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방호소(防護所·鎭)가 설치됐다. 이들 진성은 태종 16년(1416) 7월 대정·정의 두 현을 신설해 3읍 체제가 정립되고, 읍성을 축조·개축하면서 비롯됐다. 이 때 9개 방호소(진)도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3읍성 가운데 제주읍성은 태종 8년(1408년) 이전에 축조됐으나¹⁰⁵⁾, 당시 축조시키는 알 수 없다.¹⁰⁶⁾ 제주읍성의 규모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문헌이 편찬된 1530년 이전에 현재 읍성으로 개축된 것으로 보인다.¹⁰⁷⁾

정의·대정읍성은 태종 16년(1416) 3읍이 분리되면서 축조됐다. 당시 제주안무사 오식(吳湜)의 건의로 한라산 남쪽의 동쪽에는 정의읍성을, 한라산 남쪽의 서쪽에는

105) 『태종실록』, 태종 8년 8월 9일.

그 내용은 “제주에 큰 비로 물이 제주성에 들어와 관가와 민가와 곡식 태반이 표몰되거나 침수됐다(濟州大雨 水入濟州城 漂溺官舍民居 禾穀殆半).”는 것이다.

106) 김명철(2000:15)에 따르면 김봉옥·신석하(1996:29)에서는 제주성을 탐라국 수부(首府)의 성으로 보고 있다. 김두봉은 『제주도실기』에서 “고려시대 관군은 동제원에 설치하고 이문경(李文京)은 제주성(濟州城)에 이르러 성주(星州) 고인단(高仁旦)에게 성문을 열어 통과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고인단은 이를 거절해 성문을 굳게 지켰으므로 성을 우회해 동제원에 이르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미 고려 원종(元宗) 11년(1270년)에 제주성이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두 기록 모두 근거 사료가 없다고 밝혔다.

107) 김명철 앞의 논문, 2000, 66쪽.



대정읍성을 설치했다. 정의읍성은 당초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에 축조됐으나 읍성의 위치가 행정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세종 4년(1432) 진사리(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로 이설됐다. 대정읍성은 현재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인성리·안성리 3개 마을에 걸쳐있다.

제주지역 진성(鎭城)의 축조는 세종 21년(1439) 제주 도안무사 한승순의 건의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한승순은 죽도(竹島) 인근에 있는 차귀방호소와 우도(牛島) 인근에 있는 수산방호소의 축조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고 했는데, 조정에서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두 방호소가 축성됐다.¹⁰⁸⁾ 그 후 세종 25년(1443)에는 김녕·명월·서귀방호소에도 진성이 축조를 건의¹⁰⁹⁾했으나 백성들이 가난해 성을 쌓기가 매우 어려우니 요해처만 엄하게 방어하도록¹¹⁰⁾하면서 성 쌓기를 미뤘다.

이런 방호소에 대한 축성 건의는 종종 때에도 계속 거론됐다. 중종 5년(1510) 제주목사 장림(張琳·1510년 6월~동년 12월 재임)이 제주도내 왜구의 침입이 예상되는 60개 포구 가운데 9개의 방호소가 부족하므로, 김녕포·도의탄포·명월포·판을포·법환포·가내포·차귀포 등 7개의 포구에 진성 축조를 건의했다.¹¹¹⁾ 이 무렵에 명월·별방·서귀·동해 등 4개 진성이 축조됐다. 이러한 사실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 3읍의 관방조에 수산·차귀 외에도 명월·별방·서귀·동해진성이 축성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서귀진은 당초 홍로천 상류에 있다가 선조 23년(1590) 절제사 이옥(李沃·1589년 10월~1592년 3월 재임)이 홍로천 하류인 현재의 터로 이설했다.¹¹²⁾

조천진성은 처음 축조시기가 확실치 않으나 절제사 이옥(李沃)이 선조 23년(1590) 개축해, 성을 동북쪽으로 퇴축하고 초루를 축조한 사실로 미뤄 이미 16세기에 축조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삼별초군이 축조한 애월목성을 포함한 9개의 진성 가운데 8개는 이미 16세기 초에 축조되거나 개축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모슬진성의 경우 숙종 4년(1678), 화북진성은 숙종 4년(1678) 축

108) 『세종실록』, 세종 21년 윤2월 4일 임오.

濟州都按撫使韓承舜啓 (전략) 詢諸古老皆云 旌義縣東牛峯 大靜縣西竹島 自古倭船隱泊 最爲要害之地 右牛島隣近水山 竹島隣近西歸防護所 竝無城郭 惜倭賊犯夜突入 卽軍士無所依據 應敵勢難 請量 宜築城 以應敵變 (후략).

109) 『세종실록』, 세종 25년 정월 10일 병인.

110) 『세종실록』, 세종 25년 5월 28일 임오.

111) 『중종실록』, 중종 5년 7월 10일 갑자.

112) 김상헌, 『남사록』.

按地誌 西歸浦卽縣西烘爐川下流 耽羅朝大元時 候風處云 舊在海濱烘爐川上 牧使李沃時 移築于今所.

조됐다.

동해방호소는 중종 5년(1510) 장림목사가 가래(加來)방호소를 옮겨, 서귀포시 회수동에 축성했다.¹¹³⁾ 그러나 숙종 원년(1675) 어사 이선(李選·1589년 10월~1592년 3월 재임)이 이설을 건의한 뒤 3년 후인 숙종 4년(1678) 윤창형(尹昌亨·1676년 2월~1678년 8월 재임) 목사가 동해방호소를 철폐하고 모슬진으로 이설했다.¹¹⁴⁾

화북진성은 숙종 4(1678) 최관(崔寬·1678년 8월~1680년 5월 재임) 목사가 축성했는데,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진보조에 숙종때 최관목사가 창설했으며 성내에는 객사와 군기고가 있고 조방장 1인을 두었다고 기록해 놓았다.¹¹⁵⁾

이로 미뤄 볼 때 제주의 진보체제는 16세기 초 대부분 만들어졌고, 17세기 말 모슬진성과 화북진성이 축조됨으로써 현재 3읍성과 9진성이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¹¹⁶⁾

그렇다면 세 고지도의 군사지명에는 조선시대 진보체제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 세 지도에 표기된 진보(鎭堡) 지명은 모두 62개다.

제주지역 진보는 「제주삼현도」에 12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11개, 『제주삼읍전도』에 9개다.

전남지역일대 진보도 세 지도 제작순으로 9개, 10개, 11개가 각각 표기돼 있다.

세 지도 모두 당시 9개의 제주의 방호소(防護所·鎭)를 표기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옛 서귀진, 옛 동해방호소, 옛 정의현성도 낱말이 표기했다. 세 지도의 제작목적이 군사적인 측면이 강한데다 제주도의 군사요충지로서 위치 때문으로 파악된다.

전남지역의 진보 지명은 30개. 실제 진보 수는 가리포 갈두 고금도 금갑 남도 방담 어란 우수영 이진 신지도 회령(회녕포) 등이 11곳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삼현도」에는 제주목에 '수북(水北)¹¹⁷⁾ '조천(朝天) '별방(別防) '애월(涯月) '명월(明月) 이 표기돼 있고, 정의현에는 '서귀(西歸)

113) 이원진, 『탐라지』 대정현 방호소조.

東海城內 有客舍軍器庫 正德庚午 移加來防護所.

114) 이원조, 『탐라지초본』 진보조.

摹瑟鎭 在縣十里 古爲水戰所 肅廟乙卯 御使李選建議 越四半戊午 牧使尹昌亨撤東海所移設.

115) 이원조, 『탐라지초본』 진보조.

禾北鎭 在州東十里 肅廟戊午牧使崔寬創設 城周三百三步 高十尺 東西兩門 城內有客舍 軍器庫 助防將 一人.

116) 김명철 앞의 논문, 2000, 66쪽.

117) 화북(禾北)의 오기다. 이 외에 과원을 표시하면서 '리(里)로 표시하거나, 마을 이름에 '촌(村)을 '목(木)으로 잘못 표기했다. 이 지도에 표기된 '함덕리(咸德里)는 '함덕과(咸德果), '구호음목(求好音木)은 '구호음촌(求好音村)이라고 표기해야 맞다.

‘수산(首山)’, 대정현에는 ‘모슬(募瑟)’ ‘차귀호(遮飯戶·遮飯所의 오기)’ 등 9개 진을 표기해 놓았다. 이 지도는 9개의 ‘진(鎭)’을 표기한 두 지도와 달리 직접적으로 ‘진(鎭)’을 쓰지 않고 노란바탕의 원 안에 진의 이름을 써 표기하고 있다.

9개 진(鎭) 외에 『제주삼현도』에 ‘고성(古城)’이라고 쓰고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의 옛 정의현성을 표시해 놓았고, 서귀포시 서홍동의 옛 서귀진을 ‘구서귀(旧西飯)’, 서귀포시 회수동 옛 동해방호소를 ‘구동해(旧東海)’로 표기해 놓았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9진 외에 ‘구서귀(旧西飯)’와 ‘구동해(旧東海)’, 『제주삼읍전도』에는 ‘구서귀(旧西飯)’가 표기돼 있다.

분석 대상인 세 개의 제주의 옛 지도에는 고려시대 삼별초와 관련된 항과두성도 표기해 놓았다.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전도』에는 ‘토성(土城)’,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김통정소 축성(金通精所 築城)’이라 표시했다.

세 지도 모두 철폐된 옛 진성이나 고려시대 삼별초의 토성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 지도를 제작할 때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마) 문화지명

문화 관련 지명으로는 제단·정문(旌門)·사묘·문(門)·누대·불우 등이 적혀있다. 이러한 문화지명의 표기는 조선시대 지식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한편 유교적 통치 이념을 지역사회에 유포해 정착시키고, 일상 생활의 유교화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기제로써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서원은 교육기관이면서 유교의 성전이며 지역공동체의 중심이었다. 문묘(文廟), 여단(厲壇), 사직단(社稷壇) 등은 수령제의 확립을 위해 조선 전기 각 군현에 설치된 것이다.

『제주삼현도』의 관련 지명은 모두 6개이다. 제주목에 현 제주향교인 ‘문묘(文廟)’, 제주성 밖에 여귀를 제사지냈던 ‘여단(厲壇·檀으로만 표기)’ ‘사직(社稷)’ ‘삼성혈(三姓穴)’, 오현단 내 있었던 ‘서원(書院)’이 보이며, 정의현에 정씨 열녀문이 현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에 ‘정씨문(鄭氏門)’으로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20개의 문화관련 지명이 나온다. 제주목에 그 지명은 집중표기됐다. 제주성내 ‘동문(東門)’ ‘서문(西門)’ ‘남문(南門)’ ‘관덕정(觀德亭)’ ‘망경루(望京樓)’, 제주성 소림과원 인근에 있었던 포제단인 ‘포신묘(脯神廟)’ 등이 추가 표기됐다. 또 효부·효자·열녀 등을 기리기 위한 정문도 6개나 적혀 있다. 열녀 국지(國只)와 천덕(天德), 효자 김평(金枰·枰은 秤의 오기)·진대석(秦大石)·고찬원(高贊元), 효부 김옥(金玉)이다. 정의현에는 열녀 정씨(鄭氏), 고려시대 제주의 3대 비보사찰 중 하나인 ‘법화사(法華寺)’, 현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대정향교가 ‘문묘(文廟)’로 표시해 놓았다.

『제주삼읍전도』에는 제주목에만 5개의 문화관련 지명이 표기돼 있다. 눈에 띄

는 것은 말을 무병과 번식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던 '마조단(馬祖壇)'과 한라산신제를 지냈던 제주시 아라동의 '산천단(山川壇)'이다. 이 지도에만 표기돼 있다.

이 외에 분류가 힘든 '치조로(鷓鴣路)'·'임술저액(壬戌猪額)' 등은 후일 과제로 남겨둔다.

IV. 결론

이 연구는 18~19세기 대표 제주의 고지도인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의 지명에 대한 시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세 지도에 표기된 모든 지명을 추출하고 각각의 지명들을 인문과 자연의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지역의 지명을 군현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제주목의 지명 수가 1200개로 가장 많고, 정의현(485개)·대정현(357개) 순이었다. 전남과 제주주변을 중심으로 뻗친 외국 지명을 포함한 도외 지명은 246개다. 즉 제주지역의 경우 지명의 위세가 큰 고을의 지명 수가 많다.

둘째, 제주도 옛 지도에 표기된 지명을 자연항목과 인문항목으로 크게 나누면, 인문항목 지명이 많다. 자연지명이 926개, 인문지명이 1349개로 집계됐다.

자연 지명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면, 산지항목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도서, 하천, 해안 순이었다. 산지의 경우 '산(山)'보다는 '악(岳)'으로 표기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제주의 기생화산인 오름을 '악'으로 지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서지명으로는 '도(島)'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천지명으로는 '천(川)'이 '수(水)'보다 많이 쓰였다. 해안은 '곶(串)'이 대부분이며, 제주의 주요 해수욕장 일대에 표기된 '사(沙)' 등이 포함돼 있다.

호소와 평야 항목은 매우 적은 편이다. 호소는 '담(潭)'보다는 지(池)의 빈도가 높다. 호소는 그 수는 적지만, 제주중산간에 산재해 있던 목장의 주요 수처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특기할만 하다.

자연의 기타 항목에는 제주의 주요 숲 지대가 '수(藪)'로 표기돼 있다. 자연 기타 항목 중 가장 많다. 주로 현재 제주동부·서부·북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현재 제주의 주요 꽃자왈 지대에 '수(藪)'의 지명이 표기돼 있다.

자연 기타항목으로는 제주의 명승지인 폭포, 만장굴 등도 표기돼 있다.

셋째, 인문지명의 유형을 분석하면, 행정 지명이 가장 많다. 교통·군사·경제 지명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이것은 『대동여지도』의 경제 지명의 비중이 다른 지명에 비해 낮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제주 옛 지도에 경제항목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제주에 있었던 공과원과 목장 관련 지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원 이름은 감귤 진상과 관련이 있고, 목장 이름은 국마의 보고로서 제주도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 관련 항목에서는 마을이름을 기록한 '리명(里名)'이 가장 많고, 군현·관

청·방면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지명의 대부분을 차지한 마을이름은 경우 조선후기 면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한 행정제도의 정비, 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항해 목적에서 동남아 일대 외국의 이름을 표기한 것은 다른 육지부 지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행정 지명은 18세기 제작된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촌(村)’과 ‘리(里)’를 혼용하고 있으나, 1864년 행정개편 뒤 제작된 『제주삼읍전도』는 마을이름을 모두 ‘리(里)’로 통일해 표기했다. 마을 소속도 면(面) 단위로 묶어서 표기하고 있어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교통 관련 항목에서는 포구의 이름이 가장 많다. 행객의 숙소인 원(院)이나 참(站)은 매우 적다. 도로망은 선으로 표기돼 있으나 도로 이름은 극히 적다.

교통항목 중 포구 이름이 많은 것은 『대동여지도』의 경기도 지명 분석결과와 사뭇 다르다. 경기도 지역은 육상교통의 중심축을 형성한 역원의 비중이 높았다.

경제 관련 항목에서는 과원과 목장 지명이 두드러진다. 당시 도내의 공과원이 표시돼 있으며, 목장과 목장시설도 빠짐없이 표기돼 있다. 공과원은 감귤을 진상하기 위해 설치됐고, 목장은 대부분 관설목장이었는데, 조선시대 말의 공급처인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목장 관련 지명은 『제주삼읍도총지도』가 두드러진다. 삼읍의 목장뿐 아니라 목장 관련 시설, 목책시설까지 표기해 놓았다. 목장은 1704년 이후 10개 소장(所場)체제로 재편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세 지도는 반영하고 있다. 과원도 조선 후기 확대 정비되는데,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군사 관련 항목에서는 봉수망이 가장 많이 표시돼 있다. 제주 3읍의 읍성과 진성도 상세히 적혀 있다. 시대별로 수의 차이는 있으나 제주의 중요방어시설은 빠짐없이 표기해 놓고 있다. 도서지역인 제주의 군사시설에 대한 상세한 표기는 전란이후 강화된 해안방어의 중요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은 표기돼 있지 않으며, 창고 지명도 소수이다.

문화항목은 매우 적은 편이다. 제단이 가장 많고 효부·효자·열녀를 기리기 위한 정문의 그 다음이다. 그 외에 사묘 누대 서원 등이 표기돼 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세 지도는 18~19세기 행정·교통·경제·군사 항목을 고루 수록한 당시 제주지역의 사회변화상을 반영한 관찬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지도는 모두 18~19세기 제작된 것으로, 제주사회의 큰 변화상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다만 행정지명의 경우 당대 마을분화를 통한 면리제의 변화를 파악했고, 경제 지명의 경우 10소장의 정비에 따른 목장의 변화와 과원 수의 증가에 따른 상황을 수록했다. 또 군사지명의 경우 군사체제 정비에 따른 봉수와 연대

의 추이를 살피는데 그쳤다. 좀더 구체적인 변화상은 당대 여러 고지도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해야 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朝鮮王朝實錄』
『東國輿地勝覽』
金尙憲 편저, 『南槎錄(1601~1602)』
李元鎮, 『耽羅志(1653)』
李益泰, 『知瀛錄(1696)』
李衡詳, 『南宦博物(1704)』
李奎成, 『耽羅地圖并書(1709)』
李衡祥, 『耽羅啓錄抄』, 『瓶窩全書(1715)』 권 10
『耽羅防營總攬(18세기 중반)』
『濟州邑誌(1780년대)』
李源祚, 『耽羅誌草本(19세기 중반)』
『濟州啓錄(1846~1884)』
『濟州郡邑誌(1899)』
『旌義邑誌(1899)』
『大靜郡邑誌(1899)』
『三郡戶口家間摠冊(1904)』
金錫翼, 『耽羅紀年(1918)』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9, 『備邊司謄錄 濟州記事』

2. 지도자료

- 가칭 『耽羅圖(17세기 후반)』
『耽羅巡歷圖(1702~1703)』
『耽羅地圖(1709)』
『海東地圖(1750년대)』 중 「濟州三縣圖」
『濟州三邑都摠地圖(1734~1754년)』
『濟州三邑全圖(1872년)』
『濟州郡邑誌』의 『濟州地圖(1899)』
『旌義邑誌』의 『旌義地圖(1899)』

『大靜郡邑誌』의 『大靜郡地圖(1899)』
국립지리원의 25,000분의 1지도(2003년)

3. 기타 문헌 자료

- 강길부, 1987, 「국토와 지명」, 『도시문제』 제22권 7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강만익, 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강창룡, 2004,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로 본 상서로운 산(瑞山)의 위치에 관한 고찰」, 『제주문화재연구』 제2호,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 강창룡·고창석·김상옥 등 공저, 1997,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 고광민, 2004, 『제주도 포구 연구』, 도서출판 각
- 고창석, 1991, 「조선후기 면리제상의 영평동」, 『영평마을』, 제주대박물관
- 김경옥, 2001,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탐라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 1호, 역사문화학회
- 김동진, 2000,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 김명철, 2000,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읍성·진성과 봉수·연대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김봉옥, 1994, 『新耽羅錄』, 제주문화방송
- 김봉옥, 2000,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 김봉옥·신석하, 1996, 『제주의 방어유적』, 제주도
- 김오순, 2002, 『탐라순력도 산책』, 도서출판 제주문화
- 김종철, 1995, 『오름나그네 1·2·3』, 도서출판 높은오름
- 김찬읍 외 옮김, 2002, 『譯註 耽羅志』, 푸른역사
- 남도영, 2001,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박물관
- 남제주군, 1996, 『남제주군 고유지명』
-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 박용후, 1992,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 북제주군, 2000, 『북제주군지 상·하』
- 북제주군·(사)제주학연구소, 2005, 『북제주군 마을 지명 유래-추자면 우도면』
- 사단법인 꽃자왈사람들, 2005, 창립기념행사 자료집
- 서귀포시, 1998, 『서귀포시 문헌자료집』
- 서귀포시, 2002, 『서귀포시지 상·하』

- 아세아문화사, 1983, 한국지리총서 『邑誌』 6 제주도
- 양보경, 2001, 「濟州 古地圖의 類型과 特徵」, 『문화역사지리』 제13권 제2호
- 오상학, 2000,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탐라순력도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 오상학, 2004,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제24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오상학, 2005, 「대동여지도의 지명에 관한 연구-경기도 지명을 중심으로」, 『지리학 논총』 제45호,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 오창명, 1993, 「제주도지명연구사」, 『돌과 바람의 역사』, 제주역사연구회
- 오창명, 1996, 「제주도 지명 표기의 연구:조선후기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 1997, 「제주도 마을(洞里)과 산악 이름의 종합적 연구」, 『탐라문화』 18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 1997, 「지명의 차차 표기에 대한 해독:제주지역 오름이름의 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17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 오창명, 2004,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이찬, 1979, 「十八世紀 耽羅地圖考」, 『지리학과 지리교육 9』
- 정장호·신동승, 1995, 「국민학교 교과서의 지명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25』
- 정진원, 1982,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촌락명의 분석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9』
- 제주도, 1993, 『濟州道誌 1·2·3권』
- 제주도, 1995, 『濟州語辭典』
- 제주도, 1997, 『제주의 오름』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濟州의 옛 지도』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3, 『2003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 제주도사연구회, 1992,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 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 2005, 『제주목 지명총람』
-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제주시 옛 지명』
-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탐라순력도연구논총』
- 기타 『우도지』 등 마을지류

M.A. Thesis

STUDY on ANCIENT JEJU MAPS from the 18th and
19th century

Oh-soon Kim

Department of Koreanology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ung-kyu Lee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critically analyzes tentative geographical names recorded in ancient Jeju maps from the 18th to 19th century.

Geographical names in the Jeju region were gathered from "JEJUSAMHYEONDO"(1750s), "JEJUSAMEUPDOCHONGJIDO"(1734~1754), "JEJUSAMEUPJEONDO"(1872) from the old Jeju map, "HAEDONGJIDO". Each of the geographical names was analyzed by type and any unique nominal characteristics while the actual locations referred to in ancient Jeju maps were examined as well. The social transition of Jeju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was also taken into account during our map analysis.

Among the municipal subdivisions of "Koon, Hyeon", a specific analysis of geographical names in Jeju revealed that the number of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fluential counties was quite large.

Of 2,248 total geographical name references analyzed in this thesis, "Jejumok" took the lion's share with 1200, while "Jeongeuihyeon" and "Daejeonghyeon" made up 485 and 357 of the references, respectively. There were 246 references to geographical names of foreign countries centered on Jeonnam and Jeju.

There were more of human geographical names than of physical ones in the three maps.

The number of physical geographical place names totaled 926, while the names of humanity came in at 1349.

When physical place names were analyzed by geological type, the number of mountainous districts was the largest, followed by islets, rivers, and coasts.

As for the names of mountainous districts, many more of them ended in "Ak" than "San". That's because the names of most "Oreums", parasitic volcanoes in Jeju, end in Ak.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lakes, marshes, and plains represented in geographical name references was small. Even though the number was small, it is especially noteworthy to note that references to such places focused primarily on the main waters of ranches scattered across the mountainsides of Jeju.

Administrative names comprised most of the references to people, while references to transportation-related, military, and economic locations were evenly distributed.

As far as administrative names were concerned, most of the villages appearing in old maps contained a "Ri" in the suffix. This reflects socioeconomic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n a full-scale enforcement of the "Myeon and Ri" system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as well as the effect of the population growth. The more powerful the province was, the more villages it had. One unique characteristic of old Jeju maps is that they contained references to Japan and many countries in Southeast Asia. For example, references to Tsushima Island, Japan, Vietnam and other places surrounding Jeju can be found in old Jeju maps. This suggests that there was frequent marine traffic and exchange between those countries and Jeju.

The number of names of piers found intermittently around Jeju island was the largest in the transportation name category. By contrast, the number of "Won" or "Cham", names of lodging houses for travelers, was quite small.

The names of orchards and ranches made up the bulk of economic-related names. All of the public orchards and government-managed ranches in Jeju at that time were recorded in the maps. The public orchards were set up so that mandarin oranges could be presented to the king, and the prominent position of ranches in maps of the period displayed Jeju's status as the national treasure-keeper of Korea's horses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ranches were reorganized into 10 operations after 1704, which is reflected in the three maps. The number of orchards increased and they were better organized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which the old maps show as well. Military installations such as fortresses, fire beacon mounds,

and communication posts of three *Eup*'s are prominently indicated among the list of military-related geographical names. It was probably a result of the increased importance of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China's Qing Dynasty Invasion of Korea in 1636.

The number of geographical names under the cultural category is quite small. Included in this category are the names of altars, red gates with spiked tops (for honoring filial sons, devoted daughter-in-laws, and chaste women), household shrines, and lecture halls.

In summary, the three ancient maps of Jeju mark administrative, transportation-related, economic, military, and cultural locations, thereby helping to shed light on the social aspects of Jeju during this period.

However, this thesis does not go beyond experimental commentary in its analysis of geographical names from old Jeju maps of the 18th and 19th century. The analysis stops short of drawing conclusions about social transition in Jeju society. As all maps of Jeju from this period have yet to be analyzed, a comparative study of other ancient Jeju maps is an area that requires further research.